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2015. Vol. 174 **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산물수출진흥정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농기계산업

국가별 농업자료
나이지리아

해외 농업·농정 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편집자문위원

•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태 곤 연구위원

•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용 선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정 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준 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성 우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 상 진	연구위원	고 려 대 학 교	임 송 수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 경 택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 정 빈	교수

☐ 03-2015-2

제 174호

세 계 농 업
WORLD AGRICULTURE

2015. 2.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 병 훈	연구위원	bhlee@krei.re.kr	TEL 02-3299-4242 / FAX 02-962-7340
	이 혜 은	전문연구원	flaubert@krei.re.kr	TEL 02-3299-4244 / FAX 02-962-7340
	박 한 울	초청연구원	phu87@krei.re.kr	TEL 02-3299-4278 / FAX 02-962-7340
	박 현 빈	인턴연구원	hb9010@krei.re.kr	TEL 02-3299-4125 / FAX 02-962-7340

1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산물수출진흥정책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위용석	7
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이혜은·윤성은	27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김경필	43

2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농기계산업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	강창용	65
-----------------------------------	-----	----

3 국가별 농업자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현황 및 시사점	서강철	89
------------------------	-----	----

4 해외 농업·농정 동향 109

5 세계 농업 브리핑 137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농산물수출진흥정책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 위용석

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 이혜은·윤성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 김경필

2015년 2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기획주제로 「**농산물수출진흥정책**」을 선정하고,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농업 HISTORY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직접지불제도 일본의 직접지불제(1): 호별소득보상제도의 성과와 특징 EU 직접지불제: 현황과 개혁을 둘러싼 논쟁들 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2월	농업협동조합 프랑스 브레타뉴 채소협동조합연합 미국 농업협동조합의 현황과 사례 일본 JA전농의 경제사업 활성화 전략
	3월	농업보험제도 미국 작물보험의 유형 및 현황 일본의 농업보험: 농업재해보상제도
	4월	식량안보 글로벌 식량위기와 한국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전략 지수로 본 세계의 식량안보 추이 중국의 식량안보 체계와 시사점 EU의 식량안보 논의와 영국의 식량안보 정책 일본의 식량안보정책 동향과 시사점
	5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농업개발협력 동남아시아 농업개발 협력의 과제와 발전 전략 캄보디아의 쌀 증산 및 수출 전략 대(對)아프리카 농업 원조의 방향 모잠비크 농업과 비료산업 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월	유기농업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 동향과 발전 전망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동향 주요국의 유기농업정책 추진현황
	7월	식품안전 세계 식품안전정책 동향
	8월	Farmer' s Market EU 농식품 직거래와 파머스마켓 일본 직거래 확대정책과 직매장 운영의 특징 미국 파머스마켓 운영현황과 시사점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9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M농산물 무역동향과 쟁점 분석 세계 GMO 표시제 현황 GMO 표시제 주요 쟁점
	10월	농촌개발정책 미국의 농촌개발정책 EU의 농촌개발정책 일본의 농촌진흥정책과 시사점
	11월	농업의 6차산업화 일본 6차산업화 정책 동향: 여성농업인 역할을 중심으로 일본 6차산업화 마을별 사례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정책 개요 중국 농업산업화(農業産業化) 지역사례 연구
	12월	농식품산업의 국제화 전략 국제농업협력 강화 과제와 전략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과제와 전략 농식품 수출 활성화 과제와 전략
2014년	1월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미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일본 유기농업 인증제도 중국 유기식품 인증제도
	2월	농업예산 일본의 농정개혁과 2014년 농림수산예산 미국 농업예산과 성과 평가
	3월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 동향 일본의 동물복지정책과 사례 국내 동물복지정책 동향
	4월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 정책 동향 미국 식품법의 변화 일본 식품안전 정책 동향 중국 식품안전 정책 현황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5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 동향 미국-EU FTA, TTIP 협상 현황과 전망
	6월	국제농업개발협력 유럽 주요 공여국의 농업 ODA 체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업 추진체계와 전략 미국의 농업부문 ODA 현황과 사례
	7월	협동조합금융 독일 협동조합 금융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라보뱅크 프랑스 농업협동조합은행의 농업부문 정책 및 동향 일본 협동조합 금융
	8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배경과 개요 EU CAP 개혁 주요 배경과 개요 일본 농정개혁 배경과 특징
	9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EU CAP 개혁의 주요 내용 일본 경영안정정책의 내용과 특징
	10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의 작물보험과 긴급재해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CAP 직불제 개혁의 주요 내용 일본의 새로운 농업보호와 다원적 기능 직불제
	11월	농업법 2014년 미국 농업법 환경보전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 주요내용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과 특징
	12월	농업법 2014년 미국 新농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의 특징과 평가 일본의 정책평가제도와 시사점

□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농업 R&D 정책 및 예산 미국의 정부 농업 연구개발과 보급체계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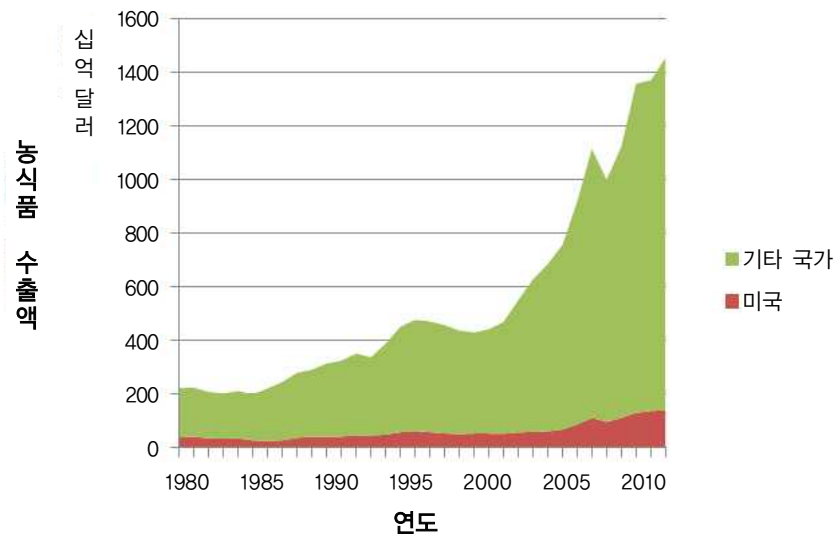
미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

위 용 석

(University of Arkansas Pine Bluff Associate Professor)

세계의 농식품 무역은 6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인구증가, 경제성장, 소득증가, 소비자의 맛 또는 기호의 변화, 환율변동 그리고 농업정책 등이다.

그림 1 세계 농식품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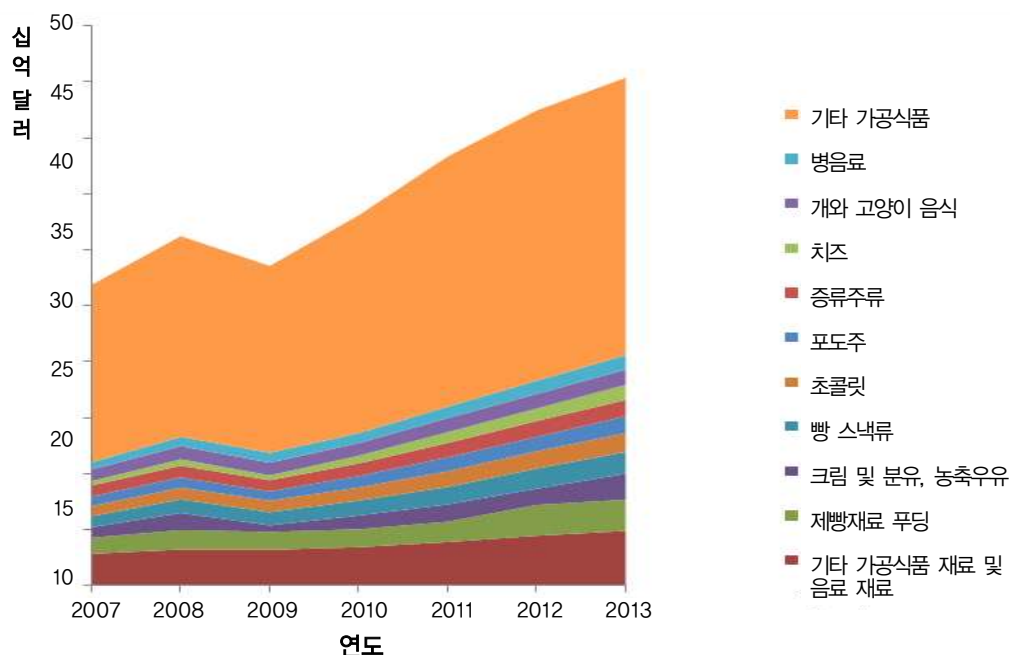
자료: USDA a, FAS, 2014. (<http://apps.fas.usda.gov/GATS/ExpressQuery1.aspx>).

* (wuiy@uapb.edu).

농식품 소비는 소득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는 선진국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높아 개발도상국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 및 개발도상국들의 농식품 수요증가는 확실히 예상되는 현상이며, 2002년 이후 미국 달러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어 미국의 농식품수출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Hanrahan, 2013).

세계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입증가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6,727억 달러에 이르며 그 중 미국의 수출이 472억 달러(전체의 7%)로¹⁾ 국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특히 신흥국가들의 농식품 수출 증가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액은 1991년 11억 달러에서 2013년 38억 달러로 연 평균 5.9% 증가하여 한국의 농식품 수출 또한 세계 농식품 무역의 증가와 함께 기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 농업의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다(임정빈, 안동환, 2010). 이러한 한국의 농식품 수출 증가를 위해 세계 농식품 수출의 독보적인 존재인 미국 농식품의 수출에 대한 현황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림 2 미국 10대 및 기타 농식품 수출 현황



자료: USDA a, FAS, 2014. (www.fas.usda.gov/GATS).

1) 472억 달러는 UN에 보고된 미국 자료이며, 이는 미국 농무부 통계인 454억과는 18억 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통계상 집계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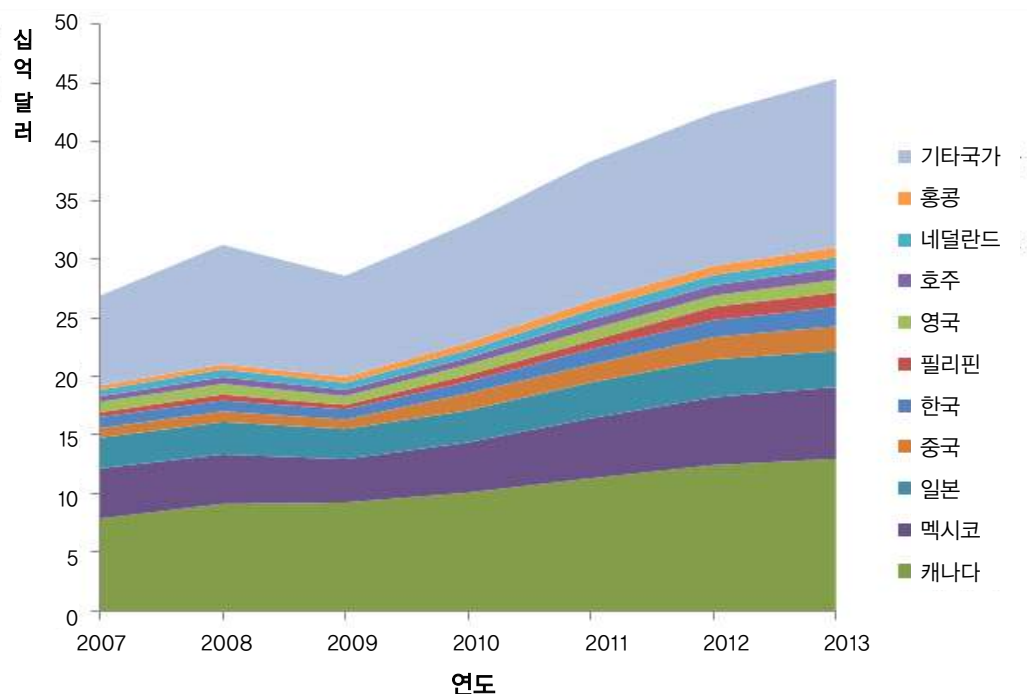
1. 미국 농식품 수출동향

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 2007년 269억 달러에서 2013년 454억 달러로 매년 평균 9.1%씩 증가하여 왔다.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제조식품들로서 식재료 및 조제 원료나 음료수 원료, 제빵 원료 및 밀가루 반죽 등이다. 이들이 전체 가공 농식품 수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크림과 가루우유, 치즈 등 유제품 수출액으로 전체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식품 및 재료가 2007년 이후 매년 2.9% 성장한 반면, 유가공 제품의 수출은 매년 18.6%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다음은 빵, 과자, 비스킷 등 과자류, 초콜릿, 포도주, 증류주, 애완동물 식품, 그리고 무알콜 음료, 주스 등 음료수로 이들 10가지 품목이 전체 가공 농식품 수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미국 가공식품 수출량의 급격한 성장은 주로 신흥국가들의 중산층의 소득 증대와 도시화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이 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USDA b, 2014).

미국 농식품 수출의 국가별 순위를 보면 캐나다가 전체의 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순이다. 특히 이 5개국이 전체의 54%로써 절반 이상

그림 3 미국 가공수출의 국가별 추세



자료: USDA a, FAS, 2014. (www.fas.usda.gov/GATS).

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캐나다와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의 증가율이 전체 평균 9% 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중국, 한국, 필리핀 등 신흥국가들로의 수출 증가율은 평균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의 4%에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2. 농식품 수출지원 동향²⁾

현재 미국 정부는 미국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지원청(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과 미국 무역 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미국 농무부 FAS는 시장 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과 외국시장 개척 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을 중심으로 하여 농식품 안전성 보장 사업 및 무역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미국 내 농식품 수출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FAS는 해외에 96개 사무실을 가지고 160여 개 국가에 미국 농식품의 수출을 위한 국가별 요구사항, 기회 및 제약들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농업 수출 프로그램³⁾은 상품신용공사를 통하여 자금이 지원된다. 상품신용공사 수출 신용보증 프로그램과 여타 해외시장 개척 프로그램들은 2018년까지 지속된다. 상품신용공사는 매년 55억 달러의 지원을 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제에 따라 미국 상품신용공사의 지원 내용은 다소 수정 되었으며, 상품신용공사는 매년 시장 접근 프로그램을 위해 2억 달러를, 외국시장개척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3,4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미국 농무부 해외 수출 부서들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이다. 전체적인 지원 금액은 2004년 31억 달러에서 2014년 58억 달러로 86% 증가하였고 연평균 6%씩 증가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GSM-102)은 2014년 현재 55억 달러로 전체 지원 금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 접근 프로그램(MAP)은 2006년 이후 줄곧 2억 달러 선에서 지원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시장 개발 프로그램(FMDP)은 2004년부터 줄곧 3,4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신흥국 시장 프로그램(EMP), 특수 작물 기술지원(TASC), 그리고 양

2) USDA d, 2014 에서 인용하였다.

3) Hanrahan, 2013에서 인용하였다.

질샘플프로그램(QSP)등이 지원되고 있다.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최근 특징적 현상은 인터넷을 통한 수출량의 증가이다.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적 온라인 식료품 산업은 420억 달러의 가치를 보이고 있다(USDA b). Paypal과 Nielsen의 공동연구는 2018년까지 전 세계 1억 3,000만 명의 구매자들이 3,000억 달러 이상을 구매할 것으로 보았다(Paypal, 2014). 해외농업지원청은 중국의 상하이와 같은 신흥국 대도시 시장에서의 폭발적 판매증가를 미국 농식품의 수출 증대와 연계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의 인터넷 판매회사와 파트너십 맺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표 1 연도별 농식품 수출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프로그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유제품 수출 장려 프로그램(DEIP) ⁴⁾	3	0	0	0	0	100	2	0	0	0	0
시장 접근 프로그램(MAP)	125	14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외국시장 개발 프로그램(FMDP)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24.6
신흥국 시장 프로그램(EMP)	10	10	10	4	10	10	9	10	10	10	10
특수 작물 기술지원(TASC)	2	2	2	1	4	7	8	9	9	9	9
양질샘플프로그램(QSP)	2	2	2	1	1.4	2	2	2	3	3	3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	2,926	2,170	1,363	1,445	3,115	5,357	3,090	4,123	5,400	5,400	5,500
전체	3,102	2,358	1,611	1,685	3,364	5,710	3,345	4,378	5,656	5,656	5,703

자료: USDA c, Annual Budget Summaries, 2014.

4) 2014 농업법은 유제품 수출 장려 프로그램(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제품 수출 장려 프로그램은 미국 유제품 수출 증가를 위해 1985년 농업법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미국 유제품이 타 국가들의 보조 상품들(특히 유럽연합)로 인해 경쟁력을 갖지 못한 국가들로의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지원 품목들은 분유, 유지방 및 치즈 등이다. 유제품 수출 장려 프로그램은 미국 내 유제품의 가격을 잠재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 농무부는 수출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외농업지원청의 보조금은 2004년에 3백만 달러였으나 이후 여러 해 동안 지급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낮은 가격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미국 낙농업자들의 이윤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9년에 1억 달러를 긴급 지원한 이후 WTO 협상과 함께 모든 정부 보조를 감축 및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폐지되어 가고 있다.

3. 미국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위 2장에서 살펴본 미국 농식품 수출지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농무부의 해외농업지원청(FAS)은 미국 농산물의 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각종 수출 프로그램들은 미국 농산물의 해외시장 접근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2014년 농업법은 가공식품 수출지원을 위해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 및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사항들과 관련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다(Johnson, R and J. Monke, 2014). 대부분의 프로그램 자금은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CC)를 통하여 조달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 지원 프로그램은 수출시장 개발, 수출 신용보증, 직접수출보조 등으로 요약된다(Hanrahan, 2013). 여기서는 시장 개척 프로그램, 수출 금융 지원, 국제 무역 협상, 검역 및 통관 지원 사업, 원료 및 가공 농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그리고 무역 박람회 개최를 살펴보았다.

3.1. 시장개척프로그램(Market Development Program, MDP)

해외농업지원청은 미국 농식품 산업의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3년 회계연도에 1,050여개의 미국 회사들과 기관들이 19개 국가들에서 개최된 29개의 미국 농무부 지원 무역 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4억 4,900만 달러를 판매하였고, 박람회 이후 12개월 이내에 14억 달러의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USDA c, 2014). 시장 개척프로그램들로 시장접근 프로그램, 신흥국시장 프로그램, 외국시장개발 프로그램, 특수작물 기술지원, 양질 샘플 프로그램, 그리고 무역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3.1.1. 시장접근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

시장접근 프로그램은 수출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장접근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농업지원청은 미국 농업무역협회, 협동조합, 주별 지역 무역 그룹들, 그리고 소규모 사업체들과 협력하여 해외 시장 개척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광고, 공공 관계, 매장 지원, 무역박람회 개최, 시장 연구와 기술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접근 프로그램 재원이 일반적 판매나 홍보 등에 사용 될 때는 최소 10%⁵⁾의 비용을 참여업자가 분담해야 하며, 브랜드 상품의 홍보에는 1대 1의 분

5) 시장 접근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국가 지원 비용의 최소 10%를 지원 대상 기관이 추가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추가 비용은 평균적으로 국가 지원액의 17%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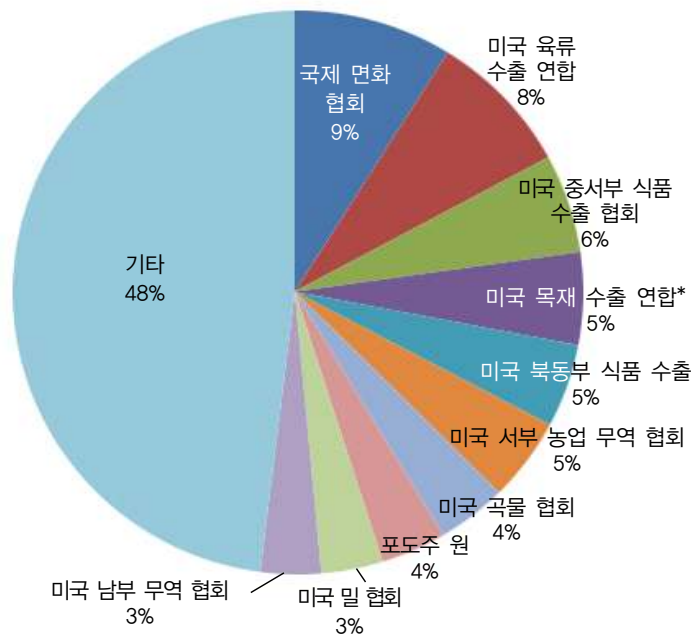
답을 요구하고 있다.

매년 해외농업지원청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시장접근 프로그램 지원 시기와 조건을 발표한다. 지원자는 통합 수출 전략(Unified Export Strategy, UES) 순서를 따라 지원하며, 여러 농무부의 시장개척 프로그램들에 자금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통합수출전략 온라인 지원 시스템(Unified Export Strategy online application system)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⁶⁾

2014년 농업법에 따라 현재 62개의 미국농업기관 중 비영리 조직 및 협동조합이 혜택을 받고 있다(USDA e). 2014년 시장접근 프로그램 총예산은 1억 7,190만 달러로써 지원 자금의 52%가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4 참조>. 국제면화협회, 미국육류

그림 4 2014년 시장접근 프로그램 지원 자금 현황

시장접근 프로그램 총예산: 171.9백만 달러



자료: USDA e, 2014.

6) 인터넷 주소는 www.fas.usda.gov/unified-export-strategy이다. 또는 이메일(podadmin@fas.usda.gov)이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e of Trade Program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Room 6512-S, Washington, D.C. 20250). 지원자는 반드시 덤스 아이디(Dun & Bradstreet(DUNS) number)를 입력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http://fedgov.dnb.com/webform>)이나 전화(1-866- 705-5711)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수출연합, 미국중서부식품수출협회, 미국목재연합, 미국북동부식품수출, 미국서부농업 무역협회, 미국곡물협회, 포도주원, 미국밀협회, 미국남부무역협회 등의 순으로 전체 예산의 3~9%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투자된 매 달러당 35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Kaiser, H etc, 2010).

3.1.2. 신흥국시장 프로그램(Emerging Markets Program, EMP)

신흥국시장 프로그램은 신흥국 시장에서의 미국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활동에 비용 분담 형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주요 지원활동은 수출 가능성 조사, 시장연구, 부문별 평가, 현장 초기 답사 방문, 전문 훈련, 사업 세미나 등이다. 여기서는 특정 회사나 브랜드 상품의 지원은 불가능하고 전반적인 미국 농산물 및 가공 농식품의 수출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해외농업지원청은 신흥국 시장 프로그램 지원 시기와 기준을 연방관보에 발표한다. 미국 비영리, 영리 및 정부기관은 통합수출전략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신흥국가로 별도 지정된 국가군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식량 및 농산물의 시장 중심적 경제를 지향하면서 미국 농산물 및 농식품에 대한 상당한 잠재적 시장을 갖는 모든 국가들을 가리킨다.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14년 관보를 다음의 온라인 주소에서 참조할 수 있다.⁷⁾

그러나 2000년 무역제재 및 수출증진법에 의해 쿠바⁸⁾, 이란, 북한 및 수단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외농업지원청은 신흥국시장 프로그램 사업을 일인당 소득이 1만 1,455달러 이하이고 인구가 백만을 넘는 나라들로 한정한다. 2014년 현재 연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3.1.3. 해외시장개발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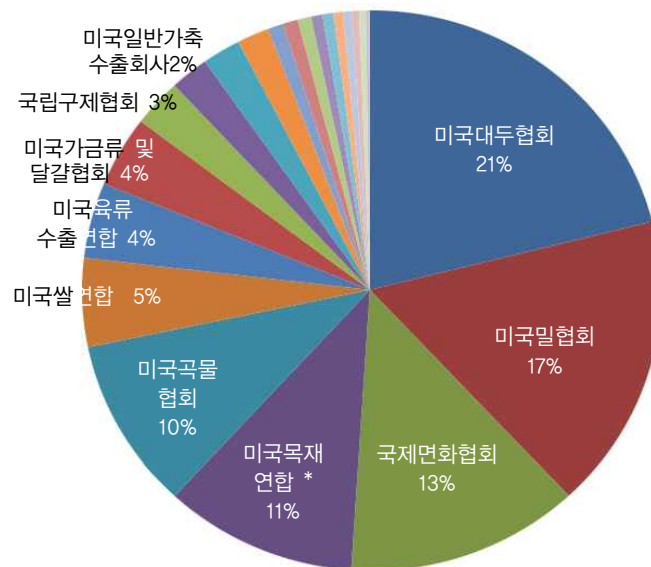
해외시장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농식품에 대한 미래의 국제적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나 단체에 비용 공동 분담 차원의 재원을 지원한다. 2014년도에는 2,460만 달러를 미국 농업생산자들을 대표하는 22개 무역 기관들에 지원했다. 평균적으로 이들 지원 대상 기관들은 지원받은 액수의 3배 정도의 농산물 무역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기관들 중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배분의 지나친 집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과를 크게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기관들은

7)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4/04/17/2014-08823/no-notice-of-funds-availability-inviting-applications-for-the-emerging-markets-program>).

8) 쿠바의 경우 2014년 12월 17일을 기점으로 1962년 이후 53년 만에 양국 관계 정상화로 경제봉쇄가 해제될 전망이다.

미국대두협회, 미국밀협회, 국제면화협회, 미국목재연합, 미국곡물협회, 미국쌀연합, 미국육류수출연합, 미국가금류 및 달걀협회, 국립구제협회, 미국일반가축수출회사 등으로 전체 예산의 2~21%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5 2014년 해외시장개발프로그램(FMDP) 지원 현황



자료: USDA f, 2014.

3.1.4. 특수작물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for Specialty Crops, TASC)

미국 농식품의 수출을 저해하는 위생검역 및 기술 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지원 가능한 활동으로는 세미나, 연수, 연구 여행, 현장조사, 병원균 및 질병 연구, 사전 제거 프로그램 등이다. 2014년 농업법은 2008년 농업법이 오직 위생검역 만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그 범위를 기술 장벽까지로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작물 기술지원은 위생검역과 무관한 기술 장벽 해결에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상품 질이나 포장과 관련된 문제, 환경 지속 가능한 상표 요구 사항 등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가능 품목으로는 밀, 곡물 사료, 유지종자, 목화, 쌀, 땅콩, 설탕, 그리고 담배를 제외한 미국 내 생산된 모든 농산물과 관련 제품을 포함한다. 특정 브랜드 상품이나 회사보다 전반적인 산업이나 상품들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어느 대상 국가나 일정 지역의 국가군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해외농업지원청은 제안서들 중 어떻게 그들의

연구 계획서가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지정 농산물 및 농식품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계획서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연구계획서 당 연간 최대 50만 달러에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2014년 농업법에 의하여 2014년에는 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3.1.5. 양질 샘플 프로그램(Quality Samples Program, QSP)

양질 샘플 프로그램은 미국 농산물 및 농식품 무역 기관들의 상품 샘플을 해외의 수입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는 해외의 최종 소비자 보다는 제조업이나 공업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로 하여금 미국 농식품이나 섬유제품을 시험평가 해 보도록 한다. 우선 지원 대상 국가는 연간 일인당 평균소득 1만 725달러 이하이고 10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들이다. 또한 미국 농산물 시장 비율이 10% 미만인 국가들에 대해 수출 기회를 늘리는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 1948년의 상품 신용공사 승인 법에 따라 해외농업지원청은 2014년에 200만 달러까지 지원했다.

3.1.6. 무역박람회 개최⁹⁾

해외농업지원청은 미국 수출업자들의 상품들을 해외의 구입 가능한 구매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역 박람회를 국내나 해외에서 개최하여 준다. USDA g 웹사이트에서 2014년도의 국내 및 해외 박람회 일정을 볼 수 있다.

3.2. 수출금융지원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GSM-102)과 시설 보증프로그램(Facility Guarantee Program)을 통하여 미국 농무부의 상품신용공사는 용자를 보증해주어 민간 미국 금융기관들이 해외 신흥국 시장의 수입업자들에게 금융을 연장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수출 신용 보증 프로그램은 1978년 농업 수출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는 의무 규정으로 재정긴축상황에서도 계속된다(Hanrahan, 2013).

3.2.1.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GSM-102)¹⁰⁾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은 신용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농식품 수출 금융을 원활하게 해 주고 수입업자들에게 좋은 신용조건을 제공한다. 은행들의 낮은 대출 위험과 신

9) (<http://www.fas.usda.gov/topics/exporting/trade-shows>)에서 인용되었다.

10) USDA, (<http://www.fas.usda.gov/programs/export-credit-guarantee-program-gsm-102/about-export-credit-guarantee-program-gsm-102>, 2014).

용보증은 개발도상국 수입업자들의 수입을 촉진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1) 냉동 식품, 육류, 양념류, 포도주나 맥주 등 고부가가치 소비자 중심 가공 식품류, 2) 밀가루나 종이 등 중간재, 3) 곡물류, 유지종자, 쌀 등 대량의 상품 등의 수출에 적용된다.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은 해외 수입업자들이 미국산 농식품의 구입 신용장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인정된 외국 은행들에게 미국 은행에 의해 연장된 신용을 보증한다. 해외농업지원청은 신용보증을 담당하는 상품신용공사를 대신하여 이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은 최고 3년까지 신용기간을 연장하나 그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상품신용공사는 수출업자나 미국 금융기관에 승인된 외국 은행으로부터의 지불만을 보증한다. 반면에 금융지원은 보통 상업 은행들로부터 받아야 한다. 대개 98%의 원금과 이자가 보증된다. 지불이 보증되기에 미국 금융기관들은 좋은 신용조건들을 리보 금리(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LIBOR)에 근거하여 외국 은행들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외국 은행과 수입업자간에 어떤 추가적인 신용거래는 마련될 수 있으나 상품 신용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는 없다. 해외농업지원청은 특정 국가나 상품 분배, 신용 연장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수출업자, 외국 수입업자, 은행 등 이해 당사자들은 상품신용공사에 한 국가나 지역에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각 국가와 그 은행들이 상품신용공사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신규 은행들이 더해 질 수도, 승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수출업자는 반드시 미국 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미국 정부 프로그램에서 정지당했거나 거부당했다면 안 된다. 상품신용공사는 승인 외국 은행들에게 한계를 설정하여 지원 최대 규모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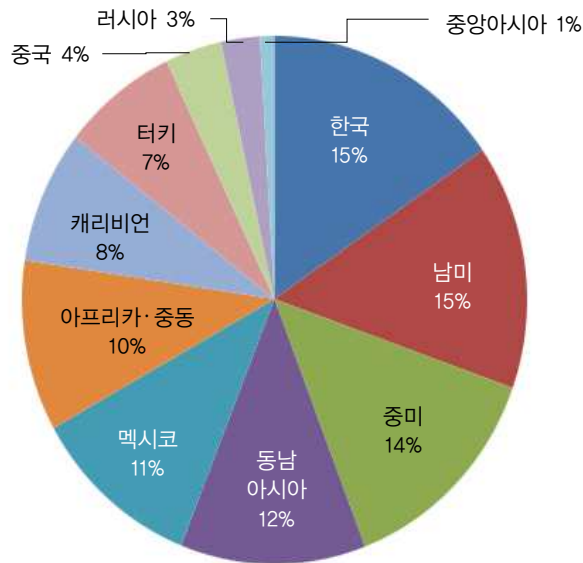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와 수출신용판매의 조건을 협상한다. 수출업자는 주로 선적과 동시에 지불 받기를 원하므로 선적 즉시 지급받고 외국 은행에게 신용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국내 은행과의 긴밀한 협상이 요구된다. 일단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승인된 미국 수출업자는 수출 전에 지불보증을 신청하고 국가별 위험 정도나, 지불 기간, 지불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014년도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의 수출 신용 지원 국가별 지역별 현황을 <그림 6>에서 보면 총 지원액 55억 달러 중 한국이 15%인 8억 5,000만 달러로 가장 높이 나타나 한국으로의 미국 농산물 식품 수출이 5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지원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남미, 중미 순이고 멕시코와 카리브 해 국가들까지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총 비중은 47.8%로 전체 신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인 접근성으로 인한 높은 수출입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시아, 아

프리카와 중동, 터키, 중국, 러시아 순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2014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양국 간 모든 수출신용프로그램은 중단되어 있다.

그림 6 2014년 수출신용보증 프로그램 국가별 지원 현황

총 지원 55억 달러 국가별 구성비



자료: USDA h.

지원 가능 품목으로는 기본 품목과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나뉘지는데 기본 품목에는 옥수수 상품(가루, 전분), 유제품(버터, 버터유, 분유, 우유, 치즈 등), 생선 통조림, 소금·건조·훈제 생선, 마른 과일, 과일 주스, 중화곡주, 꿀, 레시틴, 냉동·냉장육, 건강음료, 팝콘, 단백질 식품, 콩 단백질식품, 식물성기름, 채소통조림 등이 있고, 고부가가치 품목으로는 맥주, 주류, 유 가공품, 과일 통조림, 가공어류, 꿀 제품들, 아이스크림, 가공육, 혼합반죽, 냉동음식, 과자류, 음료수 등이 있다.

상품신용공사 신용 용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수준이 0~4까지는 2년이고, 위험수준이 5이면 1.5년, 위험수준이 6이면 1년까지만 가능하다. 한국은 위험 수준이 2로, 2년까지 가능하다. 관련 자료는 해외농업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¹¹⁾

11) (<http://www.fas.usda.gov/programs/export-credit-guarantee-program-gsm-102/country-risk-ratings>).

3.2.2. 시설보증프로그램(Facility Guarantee Program, FGP)¹²⁾

시설 보증프로그램은 상품신용공사 신용 용자 중에서 2014년부터 전체의 1.8%인 1억 달러를 신흥국 시장의 농업·식품 관련 시설 신설 및 보관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 농식품의 수송, 판매, 저장 및 분배와 관련된 시설들의 개선을 주안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시설들이 미국산 농산물 및 농식품을 위해 사용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 미국 농무부 장관은 그 시설들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필요한 20년을 넘지 않은 한도에서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3.3. 국제무역협상

해외농업지원청은 타 정부기관과 개인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 무역 협상을 통해 투명하고 과학적인 무역 표준을 세우고자 노력한다. 또한 해외농업지원청은 보건위생이나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건의사항들을 받아들여 대응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¹³⁾과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력(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¹⁴⁾의 체결을 통해 수출시장개척과 동식물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그리고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고 있다. 이 두 협력을 통해 미국은 세계경제의 2/3에 달하는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

3.3.1.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무역촉진권한은 무역협상을 위해선 매우 결정적인 수단이다. 무역촉진권한은 미국 농식품 수출업자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나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력(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등을 통해 이익을 얻게 해 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 GDP의 39%를 차지하는 국가들과의, 그리고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력은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장벽을 해소해 준다. 이는 미국의 무역 활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농산물 수입관세가 평균 12%인 반면, 유럽은 30%, 일본은 4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12)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ww.fas.usda.gov/excredits/facility-new.asp>).

13) (<http://www.fas.usda.gov/sites/default/files/2014-06/tpa-tpa.pdf>).

14) (<http://www.fas.usda.gov/sites/default/files/2014-06/tpa-ttip.pdf>).

3.3.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경제적으로 세계의 가장 활기찬 곳이고 세계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들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외에 11개국(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

3.3.3.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력(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미국과 유럽연합간의 무역협상은 2013년 7월 12일 시작되었다. 유럽은 미국 농식품의 최대 수입처이다. 그러나 이 시장에서 미국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환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력은 미국산 농식품의 비중을 다시 회복 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3.3.4.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독립적인 국제 무역 조직이다. 159개 회원국들이 무역 협상에 참여하여 일괄적이며 강제적인 규칙에 의하여 높은 관세장벽이나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고자 한다. 상호 무역 증진을 통하여 각 국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미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에 적극 참여하여 미국 농식품 수출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이외에도 한미 간 자유무역 협상(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을 포함한 다자간·쌍방간 무역 협정들이 진행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다.

3.4. 검역 및 통관 지원 사업, 원료 및 가공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해외농업지원청은 여러 농식품 수출의 규제들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과학적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온라인 체계를 통해 수출업자들에게 해외의 규제 사항과 변동 사항을 알려주고 미국과 유럽연합, 국제식품규격(CODEX)위원회 등의 살충제나 수의 약품의 최대한계치 등 여러 자료를 제공한다.¹⁵⁾

해외농업지원청 이외에도 규제와 관련된 부서들은 다음과 같다.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는 동식물의 무역을 규제한다.¹⁶⁾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는 미국 농식품을 병충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수입국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근거 없는

15) 자세한 자료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mrlidatabase.com/>).

16) (<http://www.aphis.usda.gov/wps/portal/aphis/ourfocus/importexport>).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unjustified sanitary or phytosanitary) 수입 장벽들을 제거 해 줌으로써 미국 농식품 수출의 길을 열어 준다.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에서는 과학자, 수의학자, 병리학자, 곤충학자들이 협력하여 외국의 규제 당국에 미국 농식품의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식품안전 및 검사 서비스(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는 육류와 가금류 무역의 포장, 상표 및 특별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¹⁷⁾ 최근에 추가된 국가별 수입요구사항과 식물 목록 중 일본의 경우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다.¹⁸⁾

곡물 검사, 포장 및 저장 관리(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는 곡물의 수출에 관계한다.¹⁹⁾ 곡물 수출 관련 기준은 미국 곡물 표준법(United States Grain Standards Act, USGSA) 또는 1946년 농산물 판매법(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AMA)에 따른다. 가공된 곡물 가루 및 두유, 채소류 식품들은 농산물 판매법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다.

식물 위생 규제에 있어서는 수출업자들은 수입국이 식물위생 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병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 등이 있다. 퍼듀 대학의 EXCERPT 프로그램²⁰⁾은 대부분 국가들의 식물위생 요구사항에 대한 전산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식물위생 증명서는 미국 농무부 동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APHIS)에서 발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외농업지원청의 해외농업정보망(Global Agriculture Information Network, GAIN)의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인 혹은 기타 이유들로 인해 특정 국가에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다. 해외 재산 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서 보면, 현재 이란, 우크라이나 관련국가, 시리아, 쿠바 및 테러관련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각 주의 농업부(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자유판매 증명서등 수출증명서를 발급한다.²¹⁾

17)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ing-products>).

18) (<http://www.fsis.usda.gov/wps/portal/fsis/topics/international-affairs/exporting-products/export-library-requirements-by-country/japan>).

19) (<http://www.gipsa.usda.gov/fgis/international/exportgr.html>).

20) (<http://ceris.purdue.edu/ceris/>).

21) (<http://www.fas.usda.gov/certificate-free-sale-point-contact-list>).

4. 시사점

미국과 세계 농식품 무역은 인구증가와 도시화, 소득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 및 신흥국가들의 가공식품 증가는 확실히 예상되는 현상이다. 세계 농식품 수출액은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입증가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6,727억 달러에 이르며 그 중 미국의 수출이 전체의 7%로 국가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계 농식품 무역의 증가와 함께 한국의 농식품 수출 증가를 위해 미국 농식품 수출에 대한 현황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미국 농식품 수출량은 매년 평균 9.1%씩 증가하여 왔으며, 그 중 식재료 및 조제 원료나 음료수 원료, 제빵 원료 및 밀가루 반죽, 크림과 가루우유, 치즈 등 유제품, 빵, 과자, 비스킷 등 과자류, 초콜릿, 포도주, 증류주, 애완동물 식품, 그리고 무알콜 음료나 주스 등 음료수 등의 상위 10가지 품목이 전체 가공 농식품 수출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전체의 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멕시코, 일본, 중국, 한국 등의 순이다. 특히 이 5개국이 전체의 54%로써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으로의 미국 수출량 또한 전체의 4%로 연평균 10%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농식품 수출에 있어서 최근 특징적 현상은 인터넷을 통한 수출량의 증가이다. 2013년 전 세계적 온라인 식료품 산업은 420억만 달러의 가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전 세계 1억 3,000만 명의 구매자들이 3,000억 달러 이상을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지원청은 해외의 96개 사무실을 통해 160여 개 국가의 가공식품 수출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시장 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 MAP)과 외국시장 개척 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FMD)을 중심으로 하여 농식품 안전성 보장 사업 및 무역 박람회 등을 통해 국내 가공식품 수출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환 대서양 무역 및 투자 협력의 체결을 통해 수출 시장개척과 비관세 위생 검역,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유럽에서는 높은 관세를, 그리고 일본, 베트남,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비관세 위생 검역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하여 대통령의 무역촉진권한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농업 수출 프로그램은 상품신용공사를 통하여 자금이 지원된다. 상품 신용공사 수출 신용보증프로그램과 여타 해외 시장 개척 프로그램들은 2014년 농업법에 따라 2018년까지 지속 되고 있다. 상품신용공사는 매년 55억 달러의 지원을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규제에 따라 상품신용공사는 다소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매년 시장 접근 프로그램을 위해 2억 달러, 외국시장 개척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3,4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투자된 달러당 35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미국 농무부의 농식품 수출 증진 정책들에 대한 효과여부 및 세금 투자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시장접근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미국 농식품의 수출증대에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 한때 미국 의회는 2010년과 2011년도 시장접근 프로그램 예산의 20% 감축안에 대해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개인 및 회사의 가공 농산물에 대한 해외 시장 개척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회의도 일어났었다.²²⁾ 또한 이 프로그램들이 외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 자금을 국내 수출업자 교육에 쓰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타국 정부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상황 하에서는 미국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990년 대 초 몇몇 연방 국회의원들은 시장접근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효율성과 영향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소규모 수출업자들의 배제와 개인 시장개척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였다. 이러하여 의회는 미국 농무부에 시장접근 프로그램에 상당한 방향전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도에 미국 의회는 해외농업지원청이 소규모 업자들이 아닌 회사에 상품 판매를 위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97년도에는 대규모 회사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금지시켰다. 또한 1997년도부터는 소규모 업자들의 시장접근 프로그램지원 비중을 상당 부분 증가시켰다.

해외농업지원청은 1998년에 시장접근 프로그램 자금의 지원을 회사별, 국가별 5년 이내로 한정시켰으며, 또한 각 지원 대상 회사는 시장접근 프로그램 지원이 당 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 비용을 보완하거나 대체 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외농업지원청은 시장접근 프로그램 자금이 지원되지 않을 시 각 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1999년도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연구들이 여전히 시장접근 프로그램의 경제적 유익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았다.²³⁾ 2009년도에 회계감사원은 미국 수출 증진 프로그램들의 성과 관리 조직이 강

22) 이러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http://www.fpi.org/articles/corporate_welfare_and_foreign_policy; <http://councilfor.cagw.org/site/News2?page=NewsArticle&id=11742>).

23) U.S. General Accounting Office(GAO), Changes Made to Market Access Program, but Questions Remain on Economic

화되어야 한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²⁴⁾ 2010년 미국 농무부의 지원을 받은 IHS Global Insight 보고서는 미국 농무부 해외 시장 개척 비용들이 미국 농업 무역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임을 보여준다.²⁵⁾ Global Insight는 2002~2009년 동안 시장접근 프로그램과 외국 시장 개척 프로그램의 증가된 예산이 미국 농산물 수출 비중을 18.6%에서 19.9%로 증가시켰으며 수출액도 905억 달러에서 961억 달러로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의 농식품 수출 지원현황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성장을 위한 지원의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중소형 농식품 수출 기업 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이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서 중소규모 지방 농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개발 및 농가 소득증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정부 및 각 농식품 기관들의 인터넷 홍보 지원 및 수출 박람회 지원 등을 통해 수출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농식품 수출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중소규모의 농식품 수출 기업들은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 매우 제한적임을 볼 때 이는 적극 권장할 여지가 많다고 본다. 셋째,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최근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 접근 및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 지원의 수출 증대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mpact, NSIAD-99-38, Washington, DC, April 1999, <http://www.gao.gov/archive/1999/ns99038.pdf>.

24) L. Yager, "International Trade: Observations on U.S. and Foreign Countries' Export Promotion Activities," GAO testimony to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Global Competitivenes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December 2009.

25) IHS Global Insight, A Cost-Benefit Analysis of USDA's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Programs, submitted to FAS, March 10, 2010, viewed at <http://www.wheatworld.org/wp-content/uploads/trade-global-insight-map-report-march-2010-20100423.pdf>.

참고문헌

- 임정빈, 안동환. 2010.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향과 정책과제”. 「식품유통연구」 제27권 제4집. 한국식품유통학회.
- Chite, R.. 2014. “The 2014 Farm Bill (P.L. 113-79): Summary and Side-by-Sid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Frederick, Chris. 2014. “Processed Product Spotlight: Confectionery”. (<http://www.fas.usda.gov/data/processed-product-spotlight-confectionery>,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port).
- Hanrahan, C.. 2013. Agricultural Export Programs: Background and Iss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Johnson, R and J. Monke. 2014. What Is the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IHS Global Insight, Inc., March.
- Kaiser, H, R. Keeney, S. Ramsey, T. Jackson and R. Fullenbaum. 2010. A Cost Benefit Analysis of USDA's International Market Development Programs, IHS Global Insight, Inc., March.
- NSIAD-99-38, Washington, DC. April 1999. (<http://www.gao.gov/archive/1999/ns99038.pdf>).
- Paypal. 2014. Modern Spice Routes: The Cultural Impact and Economic Opportunity of Cross-Border Shopping. (www.paypal.com/spiceroutes)
- USDA a. FAS. 2014. (<http://apps.fas.usda.gov/gats/BICOREport.aspx?type=pfood>).
- USDA b. 2014. US Processed Food Export: Growth & Outlook, FAS. (www.fas.usda.gov/GATS).
- USDA c. 2014.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http://www.obpa.usda.gov/budsum/15budsum.pdf>).
- USDA d. 2014. Statement of Phil Karsting, Administrator Before the Subcommittee on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Related Agencies, 2014 . (http://www.fas.usda.gov/sites/default/files/2014-04/15_karsting_final.pdf).
- USDA e. 2014. (<http://www.fas.usda.gov/programs/market-access-program-map/map-funding-allocations-2014-0>).
- USDA f. 2014. (<http://www.fas.usda.gov/programs/foreign-market-development-program-fmd/fmd-funding-allocations-fy-2014>).
- USDA g. 2014. (<http://www.fas.usda.gov/topics/exporting/trade-shows>)
- USDA h. 2014. (<http://www.fas.usda.gov/programs/export-credit-guarantee-program-gsm-102/about-export-credit-guarantee-program-gsm-102>).
- USDA i. FAS. 2014. “Dairy: World market and trade”. (<http://apps.fas.usda.gov/psdonline/circulars/dairy.pdf>).
- Yager, L. 2009. “International Trade: Observations on U.S. and Foreign Countries’ Export Promotion Activities,”. testimony to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Customs, and Global Competitivenes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December, GAO.

일본 농산물 수출추진체제 *

이 헤 은 · 윤 성 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연구원)

1. 들어가면서

최근 일본은 출생률 감소 및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이나 식료품의 국내 시장 축소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세계 식품시장은 신흥국의 경제발전 등과 더불어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을 제외한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340조 엔으로, 2020년에는 2배인 68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는 2009년 82조 엔에서 2020년 229조 엔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액을 현재 상황보다 배수 이상의 규모인 1조 엔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출확대정책을 강화한다고 공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농산물수출 현황과 확대되고 있는 해외시장 수출정책 관련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flaubert@krei.re.kr 02-3299-4244). 본고는 本田伸彰의 “農産物輸出の現状と課題” (2014)와 農林水産省의 “農産物の輸出に関する資料” (2014)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2. 농산물 수출 현황

2.1. 수출의 개황

일본의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497억 엔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0.3% 감소하였다.¹⁾ 수출액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아시아 72.8%, 북미 16.5%, 유럽 5.9%이었으며, 국가별로는 홍콩 21.9%, 미국 15.3%, 대만 13.6%, 중국 9.0%, 한국이 7.8%를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농림수산물의 수출상대국·지역(상위 10개국·지역, 2012년)

순위	국가·지역명	TPP	수출액 (억 엔)	구성비 (%)	주요수출품목(억 엔)
1	홍콩		986	21.9	진주(112), 건조해삼(93), 담배(48), 돈피(36), 밀가루(33)
2	미국	O	688	15.3	방어(69), 가리비(58), 알코올음료(46), 소스혼합조미료(46), 진주(31)
3	대만		610	13.6	담배(172), 산호(41), 소스혼합조미료(35), 사과(27), 알코올음료(23)
4	중국		406	9.0	가리비(50), 연어·송어(32), 청량음료수(23), 채종용 종자 등(21), 오징어(21)
5	한국		350	7.8	알코올음료(36), 소스혼합조미료(20), 명태(16), 도미(16), 담배(14)
6	태국		265	5.9	가다랑어·참치류(77), 돈피(23), 고등어(21), 연어·송어(15), 소스혼합조미료(12)
7	베트남	O	215	4.8	정원수 등(43), 오징어(26), 고등어(17), 가리비(15), 돈피(15)
8	싱가포르	O	145	3.2	알코올음료(12), 밀가루(9), 소스혼합조미료(9), 녹차(8), 담배(7)
9	호주	O	65	1.4	소스혼합조미료(11), 청량음료수(7), 가리비(7), 알코올음료(5), 간장(4)
10	필리핀		56	1.2	제재가공재(11), 고등어(8), 소스혼합조미료(4), 가다랑어·참치류(3), 과자(쌀과자 제외)(3)
	합계		4497	100.0	담배(249), 알코올음료(207), 소스혼합조미료(195), 가리비(189), 진주(165)

주: 합계는 모든 수출처를 포함한 수치. TPP란의 'O' 는 2013년 12월 기준 TPP교섭참가국을 나타냄.
 자료: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2年 確定値」 (2013년 3월 25일)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농림수산물 각각의 수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농산물 59.6%, 임산물 2.6%, 수산물이 37.8%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의 수출총액 2,680억 엔의 내역 가운데 가공식품 1,305억 엔, 축산물 295억 엔, 곡물 196억 엔, 채소·과일 등이 133억 엔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품목별로는 수출액이 많은 순서대로 담배, 알코올음료, 소스혼합조미료, 가리비, 진주, 가다랑어·참치류, 청량음료, 건조해삼, 돈피, 과자, 파종용 종자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비율 가운데 많은 품목은 유통하기 용이하고 신선식품과 비교

1)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2年 (平成24年) 確定値」 (2013년 3월 25일)
 (http://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df/yusyutu_gai_kyo_12.pdf).

하여 수입국의 검역을 통하기 쉬운 것 등이다.²⁾

한편, 쌀이나 채소 등 일반적으로 농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에 대하여 최근 수출 동향을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2012년에는 구제역 발생에 의해 중지되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재개되어³⁾ 쇠고기 수출액을 전년부터 크게 늘리고 있다.

표 2 주요 농산물 수출량과 상대국·지역의 변화(2010~2012년)

품목	연도	수출량	수출액	단가(注)(엔/kg)	상위 상대3국·지역
쇠고기	2010	541,045kg	34.0억 엔	6,279	베트남, 홍콩, 마카오
	2011	570,417kg	34.6억 엔	6,068	캄보디아, 홍콩, 마카오
	2012	863,428kg	50.6억 엔	5,865	캄보디아, 홍콩, 라오스
쌀 (원조미 제외)	2010	1,898t	6.9억 엔	364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1	2,129t	6.8억 엔	321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2	2,202t	7.3억 엔	330	홍콩, 싱가포르, 대만
사과	2010	21,075t	64.1억 엔	304	대만, 홍콩, 중국
	2011	18,205t	65.0억 엔	357	대만, 홍콩, 중국
	2012	9,107t	33.1억 엔	364	대만, 홍콩, 태국
딸기	2010	101,830kg	1.9억 엔	1,820	홍콩, 대만, 싱가포르
	2011	95,253kg	1.8억 엔	1,854	홍콩, 대만, 싱가포르
	2012	94,644kg	1.8억 엔	1,919	홍콩, 대만, 싱가포르
양배추 (쌈양배추 제외)	2010	196,510kg	2,542만 엔	129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1	187,024kg	1,940만 엔	104	홍콩, 싱가포르, 대만
	2012	278,236kg	2,654만 엔	95	홍콩, 싱가포르, 대만
참마 등	2010	5,334t	20.0억 엔	374	대만, 미국, 싱가포르
	2011	5,035t	14.6억 엔	291	대만, 미국, 싱가포르
	2012	4,289t	17.5억 엔	409	대만, 미국, 싱가포르
농산물 합계 (임수산물 제외)	2010	—	2,865억 엔	—	홍콩, 대만, 미국
	2011	—	2,652억 엔	—	홍콩, 대만, 미국
	2012	—	2,680억 엔	—	대만, 홍콩, 미국
농림수산물 합계	2010	—	4,920억 엔	—	홍콩, 미국, 대만
	2011	—	4,511억 엔	—	홍콩, 미국, 대만
	2012	—	4,497억 엔	—	홍콩, 미국,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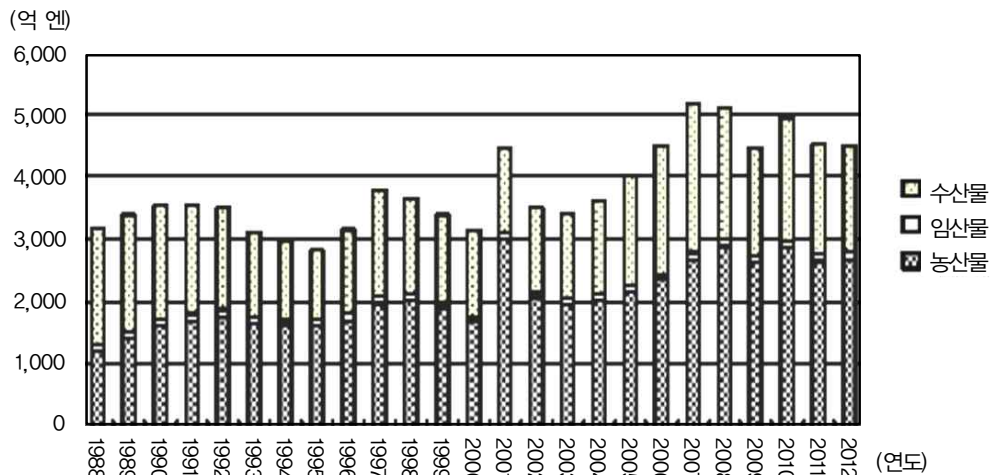
주: 단위는 시장단가 등이 아닌 단순히 수출액을 수출량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農林水産省「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각 연도 추정치를 바탕으로 작성.

2) “農産物輸出 食用、農業産出額の0.2% 過大な期待は禁物”, 『日本農業新聞』2012.12.15.; 長谷川直行, “今なぜ農林水産物・食品輸出か?—輸出を巡る状況とジェトロの支援”, 『農家の友』64(10), 2012.10, pp.20~23.
 3) 農林水産省, 「プレスリリース 米国向け牛肉の輸出再開について」(2012년 8월 3일)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20803.html>).

2.2. 수출액 변화

<그림 1>은 일본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액은 2000년경부터 증가 경향에 있었지만, 2008년의 리먼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엔고 현상 및 2011년 3월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등의 영향에 의하여 최근에는 5,000억 엔 전후로 침체되고 있다.

그림 1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액 변화(1988~2012년)



자료: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각 연도 확정치 등을 바탕으로 작성.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식물검역에 대한 대응이나 거래업자 선정, 현지에서의 판로개척이나 판촉 활동 등의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⁴⁾ 또한 이웃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의 저렴한 농산물이, 일본이 목표로 하는 수출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도 최근 수출액이 침체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품질은 종래와 비교하여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어 일본산 농산물의 가격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품목으로는 ‘청주(日本酒)’나 ‘녹차’ 등을 들 수 있다. 두 품목 모두 고가격대 상품의 인기가 많으며, 청주는 상위 수출국인

4) 下渡敏治, “Ⅲ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 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 『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2013, pp.51-54.

5) “九州の「農」力4 アジア展開 輸出課題山積み”, 『朝日新聞』(西部本社版) 2013.1.10.; 下渡敏治, “今や待ったなし農産物輸出戦略の構築”, 『AFC フォーラム』 58(10), 2011.1, pp.3-6.

미국이나 홍콩에서는 다이진쵸(大吟醸), 진쵸(吟醸), 준마이슈(純米酒)와 같은 고품질 주류의 인기가 고조되고 있다. 녹차도 건강을 위한 목적이나 일식식당의 증가에 따라 미국 등에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⁶⁾

2.3. 목표액 변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자주 농림수산물의 수출에 관한 목표액을 제시하여 왔다.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한 2006년 ‘21세기 신농업행정 2006’⁷⁾에서는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을 2009년에 6,000억 엔으로 하는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제1차 정권 시 아베 총리는 제165회 국회 연설(2006년 9월 29일)⁸⁾에서 “일본산 품목의 수출을 2013년까지 1조엔 규모로 한다”고 표명하고, 2007년 ‘21세기 신농업행정 2007’⁹⁾에도 반영하였다.

2010년 3월 민주당 정권 하에서 책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¹⁰⁾에서는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액을 1조엔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2012년 12월 정권교체 후, 재취임한 아베 총리는 경제 재생을 위한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액을 1조 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재차 표명하였다. 동 목표액은 2013년 6월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성장전략 ‘일본 재흥 전략·JAPAN is BACK’¹¹⁾, 정부의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본부’(본부장은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에 결정한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계획’¹²⁾에도 제시되어 있다.

6) 日本貿易振興機構, “総論 2012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と輸出促進への取組み”, 『ジェトロ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3』 2013, pp.2-22; 長谷川直行, “日本食品の輸出 日本酒、日本茶が伸長”, 『ジェトロセンサー』 63(746), 2013.1, pp.80-81.

7) 農林水産省, 「21世紀新農政2006」(平成18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6.pdf).

8) 第165回国会衆議院會議録第3号 平成18年9月29日 p.2.

9) 農林水産省, 「21世紀新農政2007」(平成19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7.pdf).

10) 農林水産省,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平成22年3月30日閣議決定)
(http://www.maff.go.jp/j/keikaku/k_aratana/pdf/kihon_keikaku_22.pdf).

11) 首相官邸,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2013년 6월 14일)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

12) 首相官邸,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2013년 12월 10일)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3. 수출확대정책

3.1. 수출액 1조엔 목표

일본 정부는 ① 세계 요리계에서의 일본식재료의 활용 추진(Made FROM Japan), ② 일본의 ‘음식문화·음식산업’의 해외전개(Made BY Japan), ③ 일본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Made IN Japan) 등 세 방향의 대처를 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세계 식품시장을 점유를 목표로 삼고 있다.¹³⁾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수출추진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① 상대국이 추구하는 인증이나 기준에 대한 대응 등 수출 환경 정비(ENTER), ② 상품 유통의 확립 지원(ESTABLISH), ③ 상품 유통의 확대 지원(EXPAND) 시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¹⁴⁾ 또한 아베 총리가 내세운 농림수산물 수출액 1조 엔

표 3 농림수산물의 수출액 실적과 정부가 내건 목표액

품목	2012년 실적	2020년 목표	배율	수출전략 개요 등
가공식품	1,299억 엔	5,000억 엔	3.8배	목표액 5,000억 엔의 내역은 조미료류 1,600억 엔, 과자류·청량음료수 1,400억 엔, 레토르트식품 등 2,000억 엔임.
쌀·쌀 가공품	130억 엔	600억 엔	4.6배	정미만이 아닌 포장쌀밥, 쌀과자, 일본주 등 가공품 수출에 주력함.
청과물	80억 엔	250억 엔	3.1배	산지간 연계나 도매시장 활용 등에 의하여 일본산 청과의 다품목 주년 제공 실현을 목표로 함.
쇠고기	51억 엔	250억 엔	4.9배	고도의 위생조건을 만족하는 수출인증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함.
화훼	83억 엔	150억 엔	1.8배	수출의 역사가 짧아, 분재나 절화의 프로모션 실시함.
차	51억 엔	150억 엔	3.0배	다기나 화과자 등 일본음식이나 음식문화와 조화를 이룬 매매를 시행함.
임산물	123억 엔	250억 엔	2.0배	전략 중점국은 중국과 한국. 일본산 목재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과제임.
수산물	1,700억 엔	3,500억 엔	2.1배	원전사고에 의하여 수입규제 철폐를 위한 접촉이나 품질관리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함
합계	약 4,500억 엔	1조엔	2.2배	

자료: 農林水産省, 2013, 「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 (平成25年8月29日 公表)」,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e/export/kikaku/kunibetsu_hinmokubetsu_senryaku.html).

13) 동 전략은 FROM, BY, IN 의 머리글자를 따서 「FBI 전략」으로 불리고 있음(「農相 輸出拡大へ戦略披露 鍵は「FBI」」『日本農業新聞』2013.5.17; 農林水産省, 「特集1 ニッポンの“おいしい”をもっと世界へ! 農林水産物と食品の輸出、最前線レポート」農林水産省, 44(9), 2013.9, pp.4-13)。

14) ENTER, ESTABLISH, EXPAND の頭文字から, 「3Es」と呼ばれている(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参考資料)」(平成25年8月) (<http://www.maff.go.jp/e/export/kikaku/pdf/souron.pdf>))

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일본 정부는 2013년 8월 ‘국가별·품목별 수출 전략의 확정판¹⁵⁾을 공표하였다<표 3 참조>.

동 전략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농림수산물 8개 품목에 대하여 현상 분석이나 수출확대책을 정리하였다. 2012년 수출액이 1,299억 엔이었던 가공식품은 수출 환경을 정비하는 것 등에 의하여 2020년까지 수출액을 5,000억 엔으로 수출에 주력한다고 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로서 원재료 국산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¹⁶⁾ 또한 쇠고기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등에 대응한 시설 정비나 ‘할랄(Halal)인증¹⁷⁾ 취득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 등으로 수출액을 약 5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쌀 및 쌀 가공품’의 목표액을 보면, 2012년 수출액 130억 엔이 8년 후인 2020년에 600억 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율로 수출액이 늘리는 것으로 매년 20%를 초과하는 수출액 증액이 필요하다.¹⁸⁾

3.2. 수출추진체계

농림수산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직으로는 2003년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주도하여 발족한 ‘농림수산물 일본 브랜드 수출촉진 도도부현(都道府縣)협의회’가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정부가 관여하는 형태로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¹⁹⁾가 설립되었다. 동 협의회는 농림수산물단체와 경제단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지사, 관계부처 등 156명의 회원(2013년 11월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민이 일체가 되어 농산물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²⁰⁾ 이 외에 각 지방 농업행정국 등이 사무국이 되어 지역수출촉진 협의회나 도도부현 단위의 수출촉진협의회도 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5)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 (平成25年8月29日公表)」 (更新日: 25年11月6日)
(http://www.maff.go.jp/e/export/kikaku/kunibetsu_hinmokubetsu_senryaku.html)

16) “加工品の原材料は国産に 食品輸出拡大「国別・品目別戦略」確定版”. 『日本農業新聞』2013.8.31.

17)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며, 아랍어로 ‘하용된 것’이라는 뜻. 과일·야채·곡류 등 모든 식물성 음식과 어류·어패류 등의 모든 해산물과 같이 이슬람 율법 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18) 예를 들어, 매년 쌀과 쌀 가공품의 수출액이 21%씩 증가한다면 2016년에는 287.7억 엔, 2020년에는 597.3억 엔이 됨.

19)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等輸出促進全国協議会」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

20) 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促進対策の概要」 (平成26年1月)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01.pdf>).

3.3. 정부의 사업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 ‘수출의 확대 등 글로벌 「식품시장」의 획득」을 위한 다양한 사업(217억 4,900만 엔 내)을 포함하고 있다.²¹⁾

◦ 수출전략실행사업(1억 5,200만 엔)

2014년의 신규 사업이다. 농림수산물 등 수출촉진전국협의회 하에 수출전략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는 전략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

◦ 수출배증프로젝트(17억 9,900만 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제휴 강화를 도모하면서 사업자 발굴에서 상담 지원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확대에 필요한 조사 등도 실시한다. 수출배증프로젝트 가운데, 10억 200만 엔을 차지하는 ‘수출종합지원프로젝트’에서는 수출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나 수출 프로모터(promoter)의 설치, 농림수산물·식품에 특화한 국내외에서의 상담회 실시, 국제식품 상품전시회에 출전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또한 9,700만 엔이 계상된 ‘수출확대추진 위탁사업’에서는 국가별의 마케팅 조사와 수입규제완화 활동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정비한다.

◦ 식품산업 글로벌 전개 기반시설 정비 사업(1억 9,800만 엔)

식품산업이 글로벌화 전개 시 장벽이 되는 식품의 규격기준 등에 대한 대응이나 인재확보를 한다.

◦ 수출 대응형 시설 정비(133억 9,000만 엔)

이슬람권에 적합한 할랄(Halal) 대응형 육류처리시설이나 청과물을 장기보존 가능하게 하는 저온저장 설 등의 정비, HACCP 기준을 만족시키는 화물 처리장 등을 구비한 고도위생관리형 어항(漁港)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 일본음식·식문화 보급 추진 증압대책(11억 4,000만 엔)

2014년의 신규 사업이다. 요리학교나 해외급식 사업자 등과 제휴하여 메뉴 개발에 의한 일본산 식재 활용 촉진 등에 대한 대처가 포함되어 있다.

21) 農林水産省, 「平成26年度予算概算決定(輸出促進関連)」(平成25年12月),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gaisann_kettei.pdf).

◦ 기타

이 외에 수출촉진을 위한 식물방역대책이나 가축위생종합대책, 2015년에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로의 정부출전위탁사업 등의 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4.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

4.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하여 방사성 물질이 일본 전 국토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동북에서 기타칸토(北關東)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에 규정된 잠정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농수산물들이 확인되어 출하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와 동시에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일본에서의 농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원전사고 후 2년 반이 지나고 규제가 해제된 국가도 있지만, 2013년 12월 기준으로 41개 국가 및 지역에서서 규제 강화는 계속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일본 농수산물 수입관련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2013년 12월 기준)

일본의 일부 식품에 한해 수입정지/기타 식품에 증명서 첨부 요구(5개국)
한국, 중국, 브루나이, 뉴칼레도니아, 레바논
일본 전체 식품에 증명서 첨부 요구(14개국 및 지역)
인도네시아, 태국,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이라크,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모로코
일본 일부 식품 수입정지 또는 증명서 첨부 요구(14개국 및 지역)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 필리핀, 미국, 볼리비아, 브라질, EU,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검사강화(8개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호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란, 모리셔스
참고: 규제조치 완전해제(12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자료: 農林水産省, 「諸外国・地域の規制措置」 (2013년 12월 12일 기준)
(http://www.maff.go.jp/j/export/e_info/pdf/kisei_all_131224.pdf).

또한 2013년 8월 밝혀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해양으로의 오염수 유출을 이유로 한국

이 9월부터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치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일 양국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규제는 해제되지 않았다.

원전사고의 영향 등에 의하여 일본에서의 농수산물 수입이 줄어든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²²⁾ 이것은 하나의 중대 사고가 판로의 유지 및 확대에 있어 지금까지 축적한 관계자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식품관련의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동 일본 대지진에 따르는 원전사고 등이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큰 손실’이 62.4%, ‘약간의 손실’이 25.6%로 전체 약 90%가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회답하였다.

이러한 영향에 대하여,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식품을 수출할 때 각국이 요청하는 산지나 방사성 물질의 검사 결과 등 증명서를 국가가 일원화하여 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²³⁾ 종래에는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증명서를 발행해 왔지만, 2011년의 발행 건수가 약 5만 7,000건에 이르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운용면에서도 통일성이 없다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²⁴⁾

4.2. 안전·품질관리 체계 정비

농산물이나 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HACCP이나 ISO 규격,²⁵⁾ GLOBAL G.A.P.²⁶⁾에 대한 대응, 식품이력추적제 정비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안전·품질관리와 관련한 일본 국내의 체제정비가 필요불가결하다. 하지만 일본에서 대응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ACCP은 담당기관이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등록 실무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수행하는 등 수속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다.

22) 日本貿易振興機構, 「総論 2011 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 『ジェトロ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2』 2012, pp.2-18.

23) 農林水産省, 「食品等に係る諸外国への輸出に関する証明書発行について」 (http://www.maff.go.jp/j/export/e_shoumei/index.html); 「国力輸出証明書発行へ円滑化、県の負担軽減」, 『日本農業新聞』 2013.2.4.

24) “放射性物質検査 輸出食品、国力証明書”, 『日本経済新聞』 2013.3.2.

25) 식품관련 규격으로서 ISO22000(식품안전매니지먼트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음.

26) 농산물생산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인증의 하나임. 유럽을 중심으로 111개국(2012년말 기준)에서 실시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GAP란 Good Agricultural Practice의 약자로 ‘농업생산공정관리’로 번역됨. (農林水産省, 「農業生産工程管理(GAP)に関する情報」(更新日:平成25年9月4日) (<http://www.maff.go.jp/j/seisan/gizyutu/gap/index.html>)).

4.3. 산지간 보조의 혼란

각 도도부현이 각 농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지만, 보조가 맞지 않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²⁷⁾ 해외 시장에서도 현별 및 산지별 상품이 경쟁을 하고 있어 일본 브랜드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한정된 산지에서는 농산물의 연중공급이 어렵고, 한 번에 수출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수송비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²⁸⁾ 타산지의 농산물도 취급하는 것에 의하여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연간 수출할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선행 사례도 있지만, 전국적인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농산물 물류 효율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항이나 공항까지 운송비용을 경감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4.4. 엔화 연상의 영향

농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엔시세가 주는 영향도 크다.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엔화 가치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의 구입을 억제하는 움직임과 함께 향후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²⁹⁾

단,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의 수출에는 제동이 걸린다. 일본무역진흥기구가 식품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림수산물이나 식품 수출에 있어서 엔화 상승의 영향은 ‘큰 손실’이라는 응답이 47.0%, ‘약간의 손실’이라는 응답이 34.2%로 약 80%의 기업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는다고 회답하였다.

5.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5.1. 상대국의 특성 파악

해외에서는 농산물이 요구되는 형태가 국내 시장과 다른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저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큰 사이즈의 참마가 대만 시장에서는 수입되고

27) 浅川芳裕, “第3章 日本農業、大躍進へのシナリオ 農産物を「商品」として売り込むマーケティング”, 『TPPで日本は世界一の農業大国になる一ついに始まる大躍進の時代』KKベストセラーズ, 2012, pp.145-147; 「時事深層 点検アベノミクス 農産物輸出, 「倍増計画」の隘路」『日経ビジネス』1720, 2013.12.16, pp.12-13.

28) “けいざい解説 農業再生輸出は切り札か 物流コスト抑制課題”, 『日本経済新聞』2013.4.7.

29) “円安の影響 農産物輸入を抑制 輸出増期待も「まだ先」”, 『日本農業新聞』2013.1.31.

있다. 잉여 농산물을 수출로 전환한다는 사고방식이 아닌 수출처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춘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급 농산물을 수출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성공 여부가 상대국의 경기에 좌우되기 쉽고, 시장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 포화 상태가 될 위험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수출되는 쌀은 해외 시장에서 극히 고가로 취급되고 있으며 품질의 우위성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수량이 급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³⁰⁾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며,³¹⁾ 어떻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외에 수출상대국의 검역 체제 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인정되는 농산물은 사과, 배, 차, 쌀 등 4개 품목만이며, 기타 농산물은 식물검역 제도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³²⁾ 또한 이슬람권으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할랄(Halal)인증을 취득해야하는 등 대응이 요구된다.

5.2. 네덜란드와 덴마크 모델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가 세계시장을 지향하며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성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재배나 식물공장에서의 생산 등 시설형 농업을 특화하고, IT 기술 등에 의한 생산관리나 유통의 효율화를 높이는 것으로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³³⁾ 덴마크는 국토면적이 규슈(九州)와 거의 같고 평탄한 농지의 특성을 살린 대규모 농업이 경영되고 있다. 1개 경영체당의 평균 농지면적은 62.9ha(2010년 기준)³⁴⁾로, 생산성이 극히 높은 편이다.³⁵⁾ 또한 축산업과 식품제조업과의 제휴에 의하여 치즈, 베이컨이나 햄 등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공통점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무역이 왕성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

30) 藤野信之, “米輸出の動向と展望”, 『農林金融』 63(12), 2010.12, pp.730-743.

31) 下渡敏治, “Ⅲ.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 『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2013, pp.51-54.

32) 植物防疫所, 「諸外国に植物等を輸出する場合の検疫条件一覧(早見表): 物編」 (平成25年10月17日 기준) (http://www.maff.go.jp/pps/j/search/pdf/ex_quickhelp201310.pdf); 輸出障壁は関税より植物検疫 安全認証の標準化にも注意を”, 『週刊ダイヤモンド』 101(14), 2013.4.13, p.53.

33) 貞清栄子, “農業、輸出産業化の可能性—欧州事例に学ぶ”, 『月刊金融ジャーナル』 54(2), 2013.2, pp.64-67; 「経済地球便 オランダ野菜 科学で耕す センサーで作物監視 種をX線検査」 『読売新聞』 2013.4.28.

34) 일본의 1개 경영체당 평균 농지면적은 2012년에 2,32ha이었음.

35) 農林水産省, 「海外農業情報 デンマークの農林水産業概況」 (更新日: 2013年7月29日)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den.html).

본이 이 두 개 국가를 모델로 할 경우 과제도 있다. 네덜란드는 수출처의 80% 이상이 EU권내로 일본과 비교하여 수출에 대한 장벽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식물공장 등 시설형 농업은 기반시설 정비 등 초기비용 규모에서부터 도입처가 한정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덴마크와 같은 규모의 이익(scale merit)을 살리는 농업을 목표로 할 경우, 농지 면적 집약 등 새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5.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활용

네덜란드와 같은 수출형의 농업국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을 활용하고,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³⁶⁾ 또한 고소득층이 많은 TPP 교섭 참가국은 잠재적인 수요를 개척할 여지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 단, 현시점에서 TPP 교섭 참가국에의 수출액은 전체의 4분의 1정도에 머무르고 있다<표 1 참조>. 농산물 수출이 유망한 수출처 가운데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경우로 미루어보아 TPP와 수출 확대와의 관계는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지적도 있다.³⁷⁾

6. 맺음말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과 식품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 엔으로 상향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일본식(和食)’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는 수출 확대의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목표 실현을 위하여 남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의 수출액을 대폭으로 늘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자와 2차 산업, 3차 산업을 결부시키는 소위 6차 산업화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쌀이나 쌀 가공품의 수출 확대의 향방은 향후 쌀 정책의 동향에 의하여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정부는 농업·농촌전체 소득을 향후 10년간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3년 12월에 종합한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플랜’³⁸⁾에서는 ① 수요 프런티

36) 川島博之, “TPPを機に ‘選択と集中’ 日本はオランダ型農業輸出国になれる”. 『エコノミスト』 89(12), 2011.3.8, pp.97-99.

37) 田代洋一, “攻めの農業で日本は生き残れるか?”. 『農業と経済』 77(5)臨時増刊号, 2011.5, pp.122-130; “核心 TPP 交渉参加へ懸念 描けぬ攻めの農業”. 『東京新聞』 2013.4.4.

38)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平成25年12月10日)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어의 확대(국내외의 수요확대), ② 수요와 공급을 잡는 가치사슬 구축(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향상), ③ 다면적 기능의 유지 및 발휘, ④ 생산 현장의 강화 등을 4개의 기둥으로 하여 정책을 재구축한다고 하고 있지만, 수출의 촉진은 ① 수요 프런티어의 확대의 중심이 되는 대처이다.

일본 농업이 다양한 과제를 극복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농업·농촌의 소득 증가에 실질적으로 결부시킬 수 있는 것인지 향후 동향이 주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 農林水産省. 2013.3.25. 「農林水産物輸出入概況 2012年(平成24年)確定値」.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tokei/kouhyou/kokusai/pdf/yusyutu_gaikyo_12.pdf).
- _____. 2014. 「農産物の輸出に関する資料」. 農林水産省.
- _____. 2012. 8. 「プレスリリース 米国向け牛肉の輸出再開について」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press/syouan/douei/120803.html>).
- _____. 2006. 「21世紀新農政2006」(平成18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6.pdf).
- _____. 2007. 「21世紀新農政2007」(平成19年4月4日食料・農業・農村政策推進本部決定).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in_nousei/2007/pdf/2007.pdf).
- _____. 2010. 「食料・農業・農村基本計画」(平成22年3月30日閣議決定).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keikaku/k_aratana/pdf/kihon_keikaku_22.pdf).
- _____. 2013.8. 「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参考資料)」.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e/export/kikaku/pdf/souron.pdf>).
- _____. 2013.8.29. 「農林水産物・食品の国別・品目別輸出戦略」.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e/export/kikaku/kunibetsu_hinmokubetsu_senryaku.html).
- _____.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e_conf/).
- _____. 2014.1. 「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促進対策の概要」.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01.pdf>).
- _____. 2013.12. 「平成26年度予算概算決定(輸出促進関連)」.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shokusan/export/pdf/26gaisann_kettei.pdf).
- _____. 「食品等に係る諸外国への輸出に関する証明書発行について」.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export/e_shoumei/index.html).
- _____. 2013.9.4. 「農業生産工程管理(GAP)に関する情報」.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seisan/gizyutu/gap/index.html>).

-
- _____. 2013.7.29. 「海外農業情報 デンマークの農林水産業概況」. 農林水産省.
(http://www.maff.go.jp/j/kokusai/kokusei/kaigai_nogyo/k_gaikyo/den.html).
- _____. 2013.9. “特集1 ニッポンの“おいしい”をもっと世界へ！ 農林水産物と食品の輸出、最前線レポート”. 農林水産省.
- 首相官邸. 2013.6.13. 「日本再興戦略—JAPAN is BACK」.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saikou_jpn.pdf).
- _____. 2013.12.10.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 _____. 2013.12.10. 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本部「農林水産業・地域の活力創造プラン」.
首相官邸. (<http://www.kantei.go.jp/jp/singi/nousui/pdf/plan-honbun.pdf>).
- 日本貿易振興機構. 2012. 「総論 2011 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ジェトロ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2』. 日本貿易振興機構.
- _____. 2013. “総論 2012 年の日本の農林水産物・食品貿易動向と輸出促進への取組み”.
『ジェトロ アグロトレード・ハンドブック2013』. 日本貿易振興機構.
- 長谷川直行. 2013.1. “日本食品の輸出」日本酒、日本茶が伸長”. 『ジェトロセンサー』
63(746). 日本貿易振興機構.
- _____. 2012.10. 「今なぜ農林水産物・食品輸出か？—輸出を巡る状況とジェトロの支援」
『農家の友』64(10). 北海道農業改良普及協会.
- 下渡敏治. 2013. “Ⅲ. 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 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 『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
- _____. 2011.1. “今や待ったなし農産物輸出戦略の構築”. 『AFC フォーラム』58(10). 農林水産事業 AFCフォーラム.
- 浅川芳裕. 2012. 「第3章 日本農業, 大躍進へのシナリオ 農産物を「商品」として売り込むマーケティング」『TPPで日本は世界一の農業大国になる—ついに始まる大躍進の時代』. KKベストセラーズ.
- 藤野信之. 2010.12. 「米輸出の動向と展望」『農林金融』63(12). 農林中金総合研究所.
- 下渡敏治. 2013. 「Ⅲ. 特集 農産物の輸出促進に向けて 2. 農産物輸出におけるマーケティングの重要性」『農産物流通技術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年報』. 農産物流通技術研究会.
- 植物防疫所. 2013.10.17. 「諸外国に植物等を輸出する場合の検疫条件一覧(早見表): 貨物編」.
植物防疫所. (http://www.maff.go.jp/pps/j/search/pdf/ex_quickhelp201310.pdf).
- 貞清栄子. 2013.2. 「農業、輸出産業化の可能性—欧州事例に学ぶ」『月刊金融ジャーナル』
54(2). 日本金融通信社.
- 川島博之. 2011.3.8. 「TPP を機に“選択と集中” 日本はオランダ型農業輸出国になれる」

- 『エコノミスト』 89(12). 毎日新聞社.
- 田代洋一. 2011.5. 「攻めの農業で日本は生き残れるか?」 『農業と経済』 77(5) 臨時増刊号. 昭和堂. 第165回国会衆議院会議録第3号 平成18年9月29日 p.2.
- ダイヤモンド社. 2013.4.13. “輸出障壁は関税より植物検疫 安全認証の標準化にも注意を” 『週刊ダイヤモンド』 101(14). ダイヤモンド社.
- 読売新聞. 2013.4.28. “経済地球便 オランダ野菜 科学で耕す センサーで作物監視 種をX線検査”. 読売新聞.
- 日経ビジネス. 2013.12.16. “時事深層 点検アベノミクス 農産物輸出, 「倍増計画」の隘路”. 日経ビジネス 1720.
- 日本経済新聞. 2013.4.7. “けいざい解説 農業再生輸出は切り札か 物流コスト抑制課題”. 日本経済新聞.
- 日本農業新聞. 2013.1.31. “円安の影響 農産物輸入を抑制 輸出増期待も「まだ先」”. 日本農業新聞.
- 日本農業新聞. 2013.2.4. “国が輸出証明書発行へ円滑化、県の負担軽減”. 日本農業新聞.
- 日本経済新聞. 2013.3.2. “放射性物質検査 輸出食品、国が証明書”. 日本経済新聞.
- 日本農業新聞. 2013.8.31. “加工品の原材料は国産に食品輸出拡大「国別・品目別戦略」確定版”. 日本農業新聞.
- 日本農業新聞. 2012.12.15. “農産物輸出食用、農業産出額の0.2%過大な期待は禁物”. 日本農業新聞.
- 朝日新聞. 2013.1.10. “九州の「農」力4アジア展開輸出課題山積み”. 朝日新聞(西部本社版).
- 日本農業新聞. 2013.5.17. “農相 輸出拡大へ戦略披露 鍵は「FBI」”. 日本農業新聞.

한국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동향 및 개선 과제 *

김 경 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

현재 농식품 수출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구조이다.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은 aT의 지원 사업 종합안내서, 홈페이지, 지원 사업 예산자료 등에서 소개되고 있다. 수출지원 사업은 자료 출처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대체로 수출단계별로 5개 부문, 29개 세부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단계별 5대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면 1) 가공식품 생산·수출조직 부문 2) 수출농식품의 안전성관리 부문, 3) 수출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 4) 가공식품 수출 물류·검역·통관 부문, 5) 수출 금융·보험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농식품 부문별 세부 수출지원 사업은 총 29개 세부 지원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원 부문별로는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이 국제박람회참가, 해외관측행사지원 등 총 12개의 가장 많은 세부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조직 부문은 수출상품화사업 등 4개 세부지원 사업이, 안전성관리 부문에는 잔류농약검사비 등 5개 지원 사업이, 물류·검역·통관 부문은 수출물류비지원 등 6개 지원 사업, 금융·보험 부문에는 우

* (kkphil@krei.re.kr 02-3299-4312).

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등 2개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 수출지원 부문별 주요 사업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산·조직 부문의 수출 상품화 사업은 수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발굴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상품화 및 해외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생산에서부터 수출단계까지 일관되게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안정성관리 부문의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의 안전성관리 강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잔류농약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시장개척·해외마케팅 부문의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은 해외 주요 식품 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K-FOOD FAIR 사업은 해외 수출현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수출홍보를 종합적으로 전개하여 농식품 수출을 증대시키는 사업이다. 해외안테나숍 운영지원은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진입하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지 여건에 맞는 해외안테나숍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브랜드 지원 사업은 대규모로 수출을 확대하여 해외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농식품 스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개별 브랜드의 해외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기적으로 수출확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물류·검역·통관 부문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 농식품의 물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포장 및 수송비용 부담을 일부 감축시켜주는 사업이다. 수출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은 해외 주요 수출국에 냉장·냉동 물류인프라 및 마케팅, 연구조사 등 복합전진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은 해외 냉장·냉동 물류서비스 지원,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금융·보험 부문의 농수산물수출보험가입지원은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수출경영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이다.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지원 사업은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지원사업 부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에는 29개 모든 사업이 지원 가능하며,¹⁾ 전체 지원 사업들 중에서 신선농산물이나 가공식품 어느 한 부문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 29개 세부지원 사업 중 신선농산물 수출 및 원료사용에 지원하는 대표

1) 단, 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 브랜드지원 사업은 농산물 유자차 품목에만 해당됨.

적인 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육성사업, 안전성관리 지원부분의 세부사업, 수출농산물공동브랜드사업, 수출물류비지원 사업 등이다. 나머지 세부사업들 중에도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일 경우에는 대체로 관련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표 1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종류 및 개요

분야(5)	사업종류(29)	지원 사업 개요
생산·조직 (4)	원예전문 생산단지육성	• 정부 지정 원예생산단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체계 구축
	수출상품화 사업	• 수출유망 고부가가치상품 발굴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에 기여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수출협의회 활성화지원	• 수출업체간 자율협력기구를 구성·지원하여 수출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공동마케팅, 수출 질서 확립 등
안전성 관리 (5)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일본의 PLS 시행('06.5.29), 대만의 안전성관리제도 시행('09.1.1) 등에 따라 잔류농약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농식품의 안전성 확보
	일본채소류 ID관리	• 일본정부의 식품안전성 강화에 대응하여 대일수출 채소류의 생산·출하 단계에서 법정부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한국산 채소류의 일본 통관 원활 수행 조성.
	대만사과 안전성 관리	• 한국산 사과의 대만 통관시 잔류농약 검출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 기관별 검사물량 배정 및 검사비용 지원을 통한 대만 수출용 사과의 안전성 확보
	러시아 수출업체 관리	• “對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164호, 2011.10.4)” 제7조에 따라 러시아 식용농산물 수출업체의 등록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수출용유자차 품질인증 브랜드사업	• 국내 유자농가, 생산자, 수출업체 및 해외소비자를 위해, 품질브랜드 인증을 통한 공신력 있는 보호제도 마련
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12)	국제박람회 참가	•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
	해외판촉 행사지원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식품 입점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 해외 aT 추천 우수바이어 일괄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BKF)’ 개최로 수출 거래알선
	글로벌 K-FOOD FAIR	• 해외 수출현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수출홍보를 종합한 글로벌K-FOOD FAIR 개최로 수출상담 전개 및 우리 농수산물 수출홍보(신규사업)
	해외안테나숍 운영	•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솜인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해외안테나숍운영사업비 지원
	개별브랜드 지원 사업	• 대규모 수출 확대로 해외시장을 리드할 글로벌 농식품 스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개별 브랜드의 해외 홍보 마케팅 집중 지원으로 장기적 수출확대 발판 마련
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12)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 (휘모리) 관리	• 수출 농산물 공동브랜드 'Whimori' 육성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고급화·규격화 추진
	해외시장정보 인프라구축	•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물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수출컨설팅 (수출기반조성)	• 농수산물 수출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출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숙지·예방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 시장개척 및 확대를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
	해외 aT 지사화사업	• 농수산물식품 개별 수출업체에 대하여 해외 aT센터가 해외지사 역할 수행

표 1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종류 및 개요 (계속)

분야(5)	사업종류(29)	지원 사업 개요
시장 개척· 해외 마케팅 (12)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 해외 신규 시장 및 신규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 수출시 소요되는 통관·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선 다변화 및 수출확대 도모
	수출농식품 인증지원	• 특정 국가 수출시 필요한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도모
물류· 검역· 통관 (6)	수출물류비 지원	• 수출물류비지원한도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물류비를 합산하여 수출업체지원
	선도유지제 지원	• 수출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품위유지 통한 상품성제고 및 수출확대 도모
	수출해외 전진기지 건축사업	• 해외 주 수출시장에 냉장·냉동 물류인프라 및 마케팅, 연구조사, 홍보 등 복합전진기지 구축 활용
	해외물류기반 구축사업	• 해외 냉장·냉동 물류서비스 지원,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개척 지원
	공동물류활성화지원 사업	• 공동물류를 담당할 물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물량 확보에 따른 수출 운송비 절감 유도 및 물류 경쟁력 제고
금융 · 보험 (2)	수출물류 효율화컨설팅	• 물류컨설팅 전문업체가 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단계별 현황진단을 통해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최적화 솔루션 제공
	농수산물수출 보험가입지원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 자금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주: 안전성관리부문에 신선농산물 안전지도 및 교육을 지원하는 '안전지킴이육성' 이 포함되며, 수출용유자차품질인증브랜 드 사업은 유자차수출협의회 자체사업임.

자료: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종류는 2014 농식품·외식기업 지원 사업 종합안내서(aT, 2014.4)와 농수산물 수출전략 및 지원 사업(aT, 2014.3)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2. 수출지원사업 종류와 예산 동향

2.1. 세부지원사업 변화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은 크게 융자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조사업은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이 있으며 융자사업에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자금사업이 있다.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경우,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물류비지원을 지원하고 안전성과 검역 등의 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상의 큰 변화가 없다. 반면 해외시장개척사업의 경우에는 세부 지원 사업이 해마다 변화하고 있어 해당 시장상황과 수출업체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²⁾.

세부 수출지원 사업의 변화를 보면, 2000년과 2005년, 2010년과 비교하여 2014년까지

2) 농식품 수출 세부지원 사업 변화 <표 3>은 지원기능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 자료 및 담당자 면담에 근거하여 분류하였기 때문에 수출지원 사업 예산변화 <표 4>의 사업 분류와는 다소 상이하다.

지 계속해서 진행 중인 사업은 국제박람회참가, 해외관측행사지원, 해외 우수바이어 알선, 해외시장정보구축 사업 등 비교적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평가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유망품목 선정 및 상품화, 전문생산단지 조성, 해외매장 운영사업등도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시대적인 여건에 따라 지원 사업 명칭이 달라지거나 변형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장디자인개발, 지자체 수출 인센티브 지원,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 지리적표시 특산물 수출활성화, 중국진출 한국계 유통업체 지원, 한국식품 로드쇼 등의 사업은 정책수요나 정책방향에 따라 폐지되거나 타 사업 분야로 일부기능이 이전되고 있다.

최근에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고 중국 등 아세안 수출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유망시장에 대한 유망품목 발굴의 필요성, 중소수출업체들이 부담하기 쉽지 않은 수출물류부문 지원강화, 수출시장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신규 지원사업 종류는 수출용 유자차 품질 인증 브랜드사업, 샘플 통관운송비지원, 수출농식품 인증지원, 개별브랜드지원 사업, 해외 aT지사화 사업 등이 있다.

표 3 농식품 세부수출지원 사업 변화

과거 지원 사업				현재 지원 사업		
지원 사업명	' 00	' 05	' 10	지원 사업명	' 14	신규
□ 해외시장개척사업	○	○	○	□ 해외시장개척사업	○	
• 수출활성화 사업	○	○	○			
– 포장디자인개발	○					
– 현지화적응수출상품개발	○					
– 수출유망품목 개발지원		○	○	– 수출상품화사업	○	
– 농산물 수출컨설팅	○	○		– 수출컨설팅(수출기반조성)	○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운영			○	– 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운영	○	
– 고품질 안전생산지원		○				
– 전문생산단지 평가		○		– 원예전문생산단지육성	○	
– 신선농산물신속적기운송지원			○			
– 수출선도조직육성			○	–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	
– 수출전문인력육성			○			
– 수출안전성관리(GAP)			○	–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지원	○	
– 지자체 수출 인센티브 지원			○			
–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			○			
– 지리적표시특산물수출활성화			○			
– 한국우수농산물수출상담회		○				

표 3 농식품 세부수출지원 사업 변화 (계속)

과거 지원 사업				현재 지원 사업		
지원 사업명	' 00	' 05	' 10	지원 사업명	' 14	신규
• 대형유통업체직수출	○	○				
- 시장개척단 파견	○		○			
- 현지유통업체연계 판촉	○	○	○	- 해외판촉행사지원	○	
- 지자체연계 판촉행사			○			
- 우수바이어 초청	○	○	○	- 해외바이어거래알선	○	
- 중국진출한국계유통업체지원			○			
• 수출홍보사업	○	○	○			
- 한국농산물 해외홍보	○	○	○			
- 한국 식문화 홍보	○	○				
- 한국식품 로드쇼		○				
- 과실류 해외홍보행사		○				
- 해외상설매장 설치	○	○		- 해외안테나숍운영	○	
- 국내 수출의욕 고취			○			
- 공동대표브랜드 관리운영	○		○			
• 해외시장정보사업	○	○	○	- 해외시장정보인프라구축	○	
- 심층조사	○	○				
- DB구축	○	○				
- 인터넷 거래알선		○				
				- 수출용유자차품질인증브랜드사업	○	■
				- 샘플통관운송비지원	○	■
				- 수출농식품인증지원	○	■
				- 해외물류기반구축사업	○	■
				- 개별브랜드지원 사업	○	■
				- 수출협의회활성화지원	○	■
				- 공동물류활성화지원	○	■
				- 수출물류효율화컨설팅	○	■
				- 해외eT지사화사업	○	■
				- 글로벌K-FOOD FAIR	○	■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	○	□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	
- 수출물류비지원			○	- 수출물류비지원	○	
-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	- 농수산물수출보험가입지원	○	
- 수출농산물 검역 지원			○			
□ 농식품 운영활성화 자금	○	○				
□ 수출관련 융자예산			○	□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융자)	○	
- 수출자금 지원			○			
- 농식품수출 전진기지구축			○	- 수출해외전진기지구축사업	○	

주: ○는 해당년도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을, ■는 2014년도 신규지원 사업을 의미함.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a)와 지원 사업 담당자 면담을 토대로 재작성.

2.2. 수출지원사업 예산 동향

2.2.1.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예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기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총 예산은 5,081억 원이다. 그 중에서 해외시장개척사업예산은 321억 원으로 전체 보조사업예산의 36.4%,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423억 원으로 48.0%를 차지한다.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은 K-POP 등 한류 확대의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해외 마케팅 콘텐츠를 전파하고 소비자

표 4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 및 비중 변화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9		2014		증감(%)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총계	377.4	-	508.1	-	34.6	-
1. 해외시장개척사업	24.0	36.7	32.1	36.4	33.9	-0.3
□ 수출성장동력 확충	7.3	11.3	12.7	14.5	73.3	3.2
수출유망품목육성 사업	1.2	1.8	0.9	1.0	-23.7	-0.8
수출정보 인프라 구축	1.3	2.0	4.4	5.0	244.0	3.0
국내 수출의욕 고취	-	-	0.2	0.2	-	-
공동브랜드 관리운영	0.9	1.4	0.3	0.3	-67.2	-1.1
품목별 공동마케팅 지원	0.5	0.7	2.0	2.3	343.5	1.6
개별브랜드 홍보	-	-	1.8	2.0	-	-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	-	1.6	1.8	-	-
수출확대 전문가컨설팅	-	-	1.5	1.7	-	1.7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1.7	2.6	-	-	-	-2.6
수출전문인력 육성	0.4	0.6	-	-	-	-0.6
수출안전성관리(GAP)	0.1	0.2	-	-	-	-0.2
식재료 수출활성화 사업	1.3	2.0	-	-	-	-2.0
□ 해외 수출거래선 발굴	16.6	25.5	19.4	22.0	16.5	-3.5
국제박람회참가	7.0	10.7	7.8	8.9	11.8	-1.8
해외판촉행사지원	2.4	3.6	5.4	6.1	126.3	2.5
지자체 연계 판촉행사	0.4	0.7	1.0	1.1	127.3	0.4
해외안테나숍운영	-	-	4.1	4.7	-	-
해외바이어거래알선	0.3	0.5	1.1	1.2	237.4	0.7
해외 홍보마케팅	6.5	10.0	-	-	-	-10.0
2.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41.3	63.3	42.3	48.0	2.4	-15.3
□ 수출물류비지원	39.7	60.9	32.9	37.4	-17.2	-23.5
□ 수출인프라 강화	1.5	2.4	9.4	10.6	510.3	8.2
3. 글로벌K-FOOD프로젝트사업	-	-	13.7	15.6	-	-
소계	65.3	100.0	88.1	100.0	35.0	0.0
4.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융자)	312.2	-	420.0	-	34.5	-

주: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융자사업별도 예산이며, 예산 비중 및 비중변화는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구분하였음.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의 체험활동과 현지시장 판촉행사 등을 추진하여 농식품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37억 원이 편성되었고, 전체 보조사업의 15.6%를 차지한다. 한편,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은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에 원료농산물 구매와 가공을 위한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년 기준 지원예산은 4,200억 원으로 2009년 3,122억 원 대비 34.5% 증가하였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주요 사업은 수출성장동력확충 부문과 해외수출거래선발굴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예산은 각각 127억 3,000만 원과 193억 7,000만 원이며, 전체의 14.5%와 22.0%의 비중을 차지한다. 2009년 예산에 비해서는 수출성장동력 확충 부문이 73.3%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해외 수출거래선 발굴 부문은 16.5%만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았다.

수출성장동력확충 사업의 주요 세부지원 사업은 수출정보인프라구축사업과 수출유망품목육성사업(수출상품화사업), 품목별 공동마케팅지원사업 등이다. 해외수출 거래선 발굴 사업은 국제박람회참가, 해외판촉행사지원 등의 세부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과 수출인프라강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가 2014년에 3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7.2% 감소하였다.

2.2.2.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예산비중 추이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2014년 총 농식품 수출지원 예산은 2009년 대비 34.6% 증가했다. 수출지원사업 예산은 2000년

표 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부문별 예산 동향

단위: 십억 원, %

지원사업 부문	2000	2005	2009	2013	2014	증감률 ¹⁾ 14/ 09
1.해외시장개척사업	8.7	12.9	24.0	30.2	32.1	33.9
수출성장동력확충	1.6	2.5	7.3	12.2	12.7	73.3
해외수출거래선발굴	7.0	10.4	16.6	18.0	19.4	16.5
2.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19.1	28.9	41.3	41.2	42.3	2.4
수출물류비지원	19.1	26.3	39.7	31.0	32.9	-17.2
수출인프라 강화	-	2.6	1.5	10.2	9.4	510.3
3.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	-	-	-	15.4	13.7	-
4.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	272.4	312.2	350.0	420.0	34.5
계	27.7	314.2	377.4	436.7	508.1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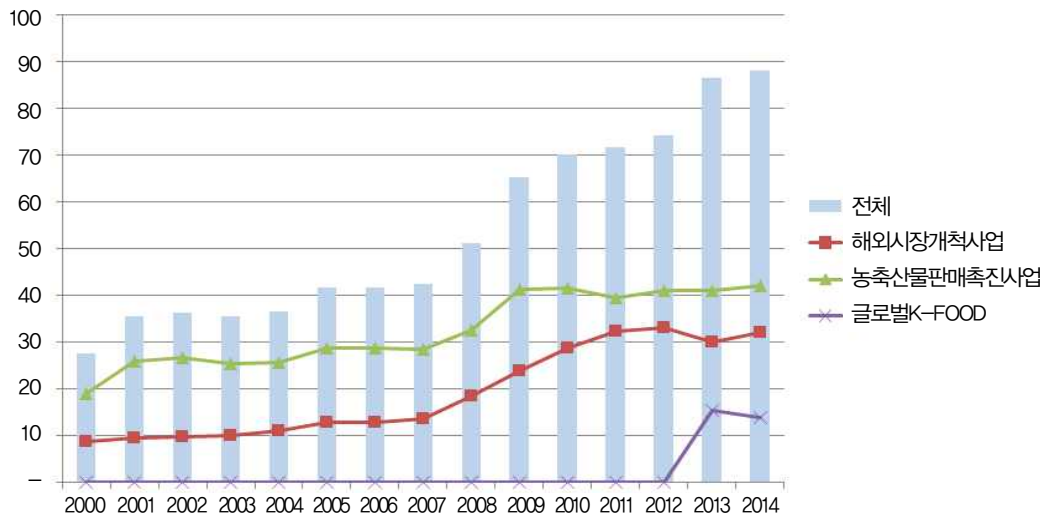
주: ¹⁾ 09~ 12년은 정산기준, ²⁾ 13~ 14년은 예산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

대 초 중반까지 정세 내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정부가 적극적인 수출 정책을 추진한 2008년부터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농특회계, 계속, 보조)이 추가되어 전체 수출지원사업 예산이 더욱 상승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림 1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예산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내부자료 참조 작성.

지원 사업 분야별로는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을 포함한 보조 사업 예산이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융자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의 예산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9년과 비교해서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의 세부지원 사업인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의 예산이 510.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성장동력 확충사업 또한 73.3%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체 지원예산 중 세부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2009년 대비 2014년 예산비중), 수출성장동력 확충 사업과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이 각각 3.2% 포인트와 8.3% 포인트 상승하였다. 반면,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부문 중에서 특히 수출물류비 지원 비중이 23.5% 포인트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해외수출거래선발굴지원 사업도 3.5% 축소되었다. 이는 2013년에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이 포함된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수출물류비 지원비중이 축소되고 수출인프라 지원부분이 강화되

는 추세는 최근의 국제협상이나 보조금지금에 대한 논란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5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비중은 31.2%이지만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비중은 69.0%로 높아 두 지원 사업 부문 간에 격차가 컸었다. 하지만, 2009년에는 36.7%와 63.3%로 격차가 다소 줄어들어 해외시장개척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부터는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사업을 제외한 해외시장개척사업과 농축산물판매촉진 사업비중이 각각 42.3%와 57.7%로 나타나 예산액 기준 사업비중은 비슷해지는 경향이다.

표 6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분야별 예산비중 변화

단위: %, %p

지원 사업분야	2000	2005	2009	2013	2014	증감('14/'09)
1.해외시장개척사업	31.2	31.0	36.7	34.8	36.4	-0.3
수출성장동력확충	5.9	6.1	11.3	14.1	14.5	3.2
해외수출거래선발굴	25.3	24.9	25.5	20.7	22.0	-3.5
2.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68.8	69.0	63.3	47.4	48.0	-15.3
수출물류비지원	68.8	62.8	60.9	35.7	37.4	-23.5
수출인프라 강화	0.0	6.3	2.4	11.7	10.6	8.3
3.글로벌 K-FOOD 프로젝트	-	-	-	17.8	15.6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1) '09~'12년은 정산기준, '13~'14년은 예산기준임.

2) 융자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 예산은 금액의 단위가 보조사업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 비중변화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비중에 포함하지 않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부자료를 토대로 재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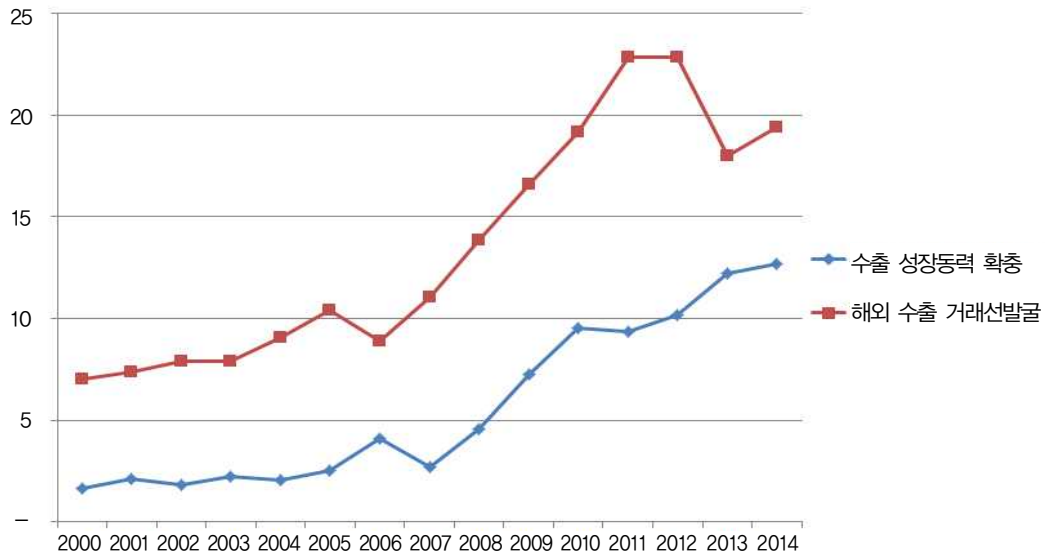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주요 사업인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 부문과 해외 수출거래선 발굴사업 부문의 예산은 2000년대 중반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수출성장동력확충사업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해외수출 거래선 발굴 부문의 예산은 2013년에 감소하다 2014년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2 참조>.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의 두 축인 수출물류비지원과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 비중이 2007년 98%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수출물류비지원이 축소되고 수출인프라 강화사업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7:3 비중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 두 지원 사업은 2012년에 지원비중이 감소되어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글로벌 K-FOOD 프

로젝트 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어 17.8%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비중이 다소 감소한 15.6%의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2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부문별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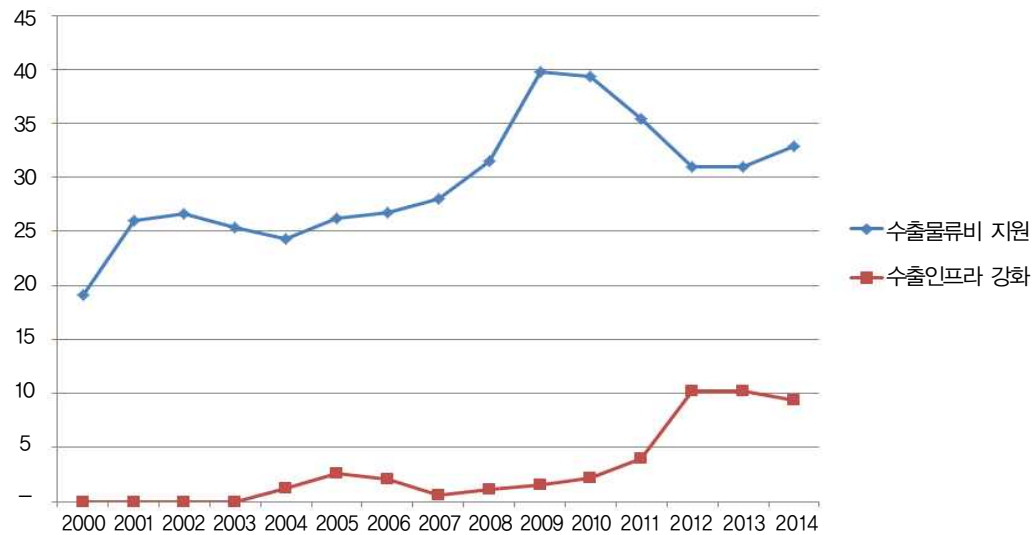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내부자료.

그림 3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분야별 예산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재작성.

2.2.3. 수출지원사업 지원계획³⁾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후 수출 분야 지원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13년 대비 2017년 예산은 24.7% 감소될 계획이다. 예산이 감소하는 원인은 예산액 규모면에서 가장 많은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이 2013년 대비 2017년 예산이 41.1%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조사업 예산은 2013년 845억 원에서 2017년 1,270억 원까지 50.3%

표 7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지원계획

단위: 억 원, %

주요 전략	연도별 소요예산			합계		증감률 (' 17 / ' 13)
	2013	2015	2017	예산	비중	
총계	4,716	3,310	3,550	18,109	-	-24.7
수출확대와 농가소득연계 강화	79	194	307	917	17.8	288.6
수출단지 지원 육성	50	160	270	750	14.6	440.0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	28	30	32	150	2.9	14.3
제2의 파프리카 찾기	-	2	3	9	0.2	-
가공식품수출과 농업연계 강화	1	2	2	8	0.2	100.0
농식품수출 중소기업 육성	353	467	473	2,198	42.7	34.0
공동물류이용 지원	41	41	41	205	4.0	0.0
수출물류비지원	260	370	370	1,710	33.2	42.3
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	32	34	36	170	3.3	12.5
품목별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20	22	26	113	2.2	30.0
새로운 농식품 해외수요 창출	398	358	465	1,934	37.5	16.8
신규시장 개척 지원	198	220	280	1,138	22.1	41.4
시장다변화 추진	46	48	60	252	4.9	30.4
신개념 종합박람회 개최	134	65	90	412	8.0	-32.8
관련 기관·부처간 협력사업 (재외공관 홍보사업)	20	25	35	132	2.6	75.0
수출 위기대응 체계 마련	15	21	25	103	2.0	66.7
환변동보험 지원	15	17	19	85	1.6	26.7
상시모니터링반 운영	-	2	3	9	0.2	-
비상대처시스템 구축	-	2	3	9	0.2	-
소계(보조)	845	1,040	1,270	5,152	100.0	50.3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융자)	3,871	2,270	2,280	12,957	-	-41.1

주: 융자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은 비중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원자료에는 제2전략에 포함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식품 수출 희망찾기 플랜(2013~2017)」.

3) 농림축산식품부(2013) 내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늘어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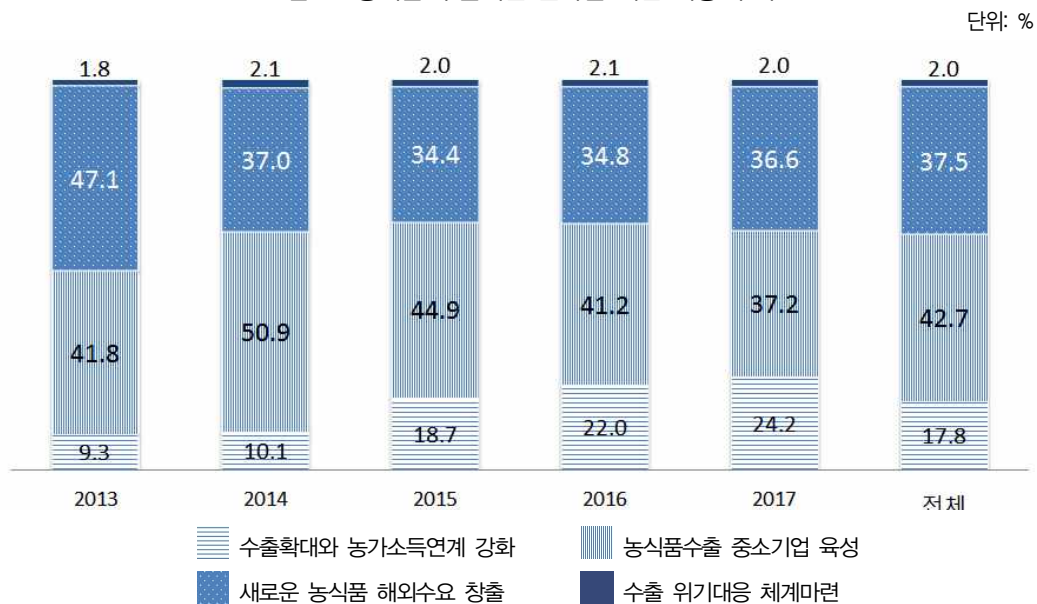
수출확대와 농가소득연계 강화전략의 예산은 2013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 288.6% 증가한 3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수출 위기대응 체계 마련 전략 예산이 66.7% 늘어날 계획이며,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육성전략과 새로운 농식품 해외수요 창출 전략에는 기존예산 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34%와 16.8% 증가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증대와 농가소득 연계를 위한 예산 증가율이 다른 전략보다 훨씬 높은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5개년 계획의 예산 중 농식품 수출중소기업육성전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42.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사업예산의 집중화가 예상된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농식품 해외수요창출전략 부문이며, 2013년에 가장 많은 47.1%의 비중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감소될 예정이다. 수출확대와 농가소득연계 강화전략은 2013년 9.3% 수준에서 2017년에는 24.2%까지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 강화되는 사업 분야이다.

세부 지원 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수출물류비지원 사업(33.2%)과 신규시장 개척지원(22.1%), 수출단지 육성 사업(14.6%)이다. 수출 단지 육성 사업예산 투

그림 4 농식품 수출지원 분야별 예산 비중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농식품 수출 희망찾기 플랜(2013~2017)」.

입을 2013년 대비 2017년에 440%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므로 정부가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식품 지원을 포함하는 지원 사업은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연계강화 사업, 공동물류이용 지원 사업, 신규시장개척사업, 환변동보험 모니터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신규시장개척사업을 제외하면 가공식품 수출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은 낮은 편이다.

3. 개선해야 할 과제

현재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종류 및 예산 지원 체계는 국제협상과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되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DDA 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수출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수출보조금 지원비중이 높으며 수출업체는 수출보조금 의존경향이 강한 편이다. 중장기적으로 수출보조금 지원 비중을 축소하고 생산기반 구축과 수출조직화, 비관세장벽 완화 등 수출인프라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수출인프라 부문 강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안전성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검역 및 통관단계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공식품 유형별 수출지원체계 차별화가 필요하다. 수출지원 대상 품목 유형은 신선농식품, 전통가공식품, 일반가공식품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지원 사업은 주로 신선농산물 및 신선가공식품에 맞추어져 있고 전통가공식품과 일반가공식품 분야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은 많지 않다. 그리고 수출지원사업 지원체계도 오랜 기간 동안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사업발굴이 미흡한 편이다. 일부 개별 지원 사업들이 축소·통합·폐지되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원예산 비중이 미미하거나 기존 지원 사업과 최종목적은 유사한 경우가 있다. 전통가공식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입되어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비중이 높지 않은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단계에서부터 수출시장 진출 및 정착단계까지 일관된 맞춤형 상품화 지원 사업이다. 수출상품화 지원 사업은 파일럿플랜트 및 공동실험실 운영,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농민,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수출시장 및 판

로개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수출증대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산 원료 사용비중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가공식품 중 식음료제조업체의 국내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29.7%(물량기준)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배추, 인삼, 주요 과실 등의 국내산 원료 사용비중은 90% 이상으로 높지만, 건고추, 마늘, 생강 등은 50~70% 수준, 고춧가루, 다진 마늘 등은 20~50%로 낮다. 가공식품 주요 수출품목이기도 한 과자류(10.9%)와 면류(4.0%), 주류(15.8%),

표 8 가공식품 원재료별 국내산 이용 비율

단위: %

	품 목	전체 투입비중	국내산 비율		품 목	전체 투입비중	국내산 비율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		
과자류	밀가루	38.1	0.0	장류	대두	37.9	12.3
	변성전분	21.3	0.0		물엿	15.2	45.8
	올리고당류	9.3	0.0		밀가루	14.2	0.0
	쌀	3.6	89.8		정제소금	8.2	85.2
	대두	3.5	1.6		쌀	5.5	100.0
	감자	3.1	89.4		밀	3.9	0.9
잼류	딸기	50.0	100.0	드레싱	계란	34.3	100.0
	백설탕	31.4	0.0		대두유	33.9	0.0
	사과	3.9	100.0		백설탕	18.8	0.0
면류	밀가루	56.9	0.0	김치류	배추	67.3	99.9
	팜유	14.7	0.0		무	17.7	99.9
	밀	13.8	0.0		천일염	3.7	90.1
	건조야채	2.9	26.0		고춧가루	2.5	56.5
	고구마전분	2.3	14.6	주류	주정	76.5	14.1
커피류	원유	44.5	100.0		보리	8.8	19.2
	백설탕	29.8	0.0		쌀	5.9	50.7
	커피원두	20.4	0.0		옥수수전분	3.0	0.0
	인스턴트커피	1.9	0.0	유가공품	원유	95.9	100.0
음료류	과당	27.6	36.1		탈지분유	0.9	37.7
	원유	24.5	100.0		백설탕	0.7	0.0
	백설탕	14.3	0.0		농축과채즙	0.3	35.7
	감귤	13.0	100.0	설탕	변성전분	0.1	0.0
	대두	7.1	33.9		원당	99.9	0.0

자료: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3.

장류(27.4%) 등도 국내산 원료 사용비중이 낮은 실정이다⁴⁾.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수출업체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의 지원 사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산 원료 사용비중을 높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 수출을 늘려 국내 농가소득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자금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가공식품 원료공급단지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필, 문한필, 한정희. 2011.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R63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4. 「국민행복 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안)」.
- _____. 2013. 「농식품 수출 희망 찾기 플랜(2013~2017)」.
- 조운희. 2013.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NABO.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각 연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농림축산식품부.
- _____. 2014a. 「농식품·외식기업 지원 사업 종합안내서」.
- _____. 2014b. 「농수산물 수출전략 및 지원 사업」.
- _____. 2013a. 「경영실적평가보고서」.
- _____. 2013b. 「식품산업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참고사이트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http://www.kati.net>).

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3)를 참조하였다.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농기계산업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 | 강창용

2015년 2월호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기획주제로 「**농기계산업**」을 선정하고,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소개한다.

세계농업 HISTORY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와인산업 세계 와인산업 동향 EU 와인산업 동향 북·남미 와인산업 동향 신흥 와인 생산국의 와인산업 동향
	2월	전분산업 세계 전분산업의 동향 세계 전분의 유형별 소비 동향
	3월	사료산업 세계 사료산업의 동향과 전망 일본 사료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중국 사료산업의 동향
	4월	곡물수송 미국 곡물 수송 전망
	5월	면화산업 세계 면화산업 현황 및 전망 중국 면화산업의 동향과 전망 미국 면화산업 동향 브라질 면화 생산과 정책 동향 곡물수송 해외농업개발의 현황과 확보곡물의 비상시 해상운송(안) 세계 곡물 유통, 물류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
	6월	낙농산업 EU의 낙농정책 변화와 영국의 낙농정책 미국 낙농산업 수급 현황 및 자조금제도 구조 호주와 뉴질랜드의 낙농산업 동향 일본 낙농 근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
	7월	화훼산업 네덜란드 화훼산업 현황과 특징 중국 화훼산업 현황 케냐 화훼산업 동향 북미지역 화훼산업 동향
	8월	유지증자산업 세계 유지증자산업 동향 브라질 유지증자산업 동향 인도 유지증자산업 동향 미국 유지증자산업 동향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9월	양돈산업 미국 양돈산업 동향 중국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 EU 양돈산업 동향 칠레 양돈산업 동향과 시사점 일본 양돈산업 동향
	10월	담배산업 세계 담배산업 동향 세계 잎담배 생산 동향 세계 담배가공산업 동향
	11월	곤충산업 곤충산업 현황과 전망 농업부문 곤충자원 활용현황과 시사점 중국 곤충산업 동향
	12월	주류산업 세계 주류시장 동향 독일 주류시장 동향 미국 주류시장 동향 일본 주류시장 동향 중국 주류시장 동향
2014년	1월	종자산업 세계 종자시장 동향과 전망 미국 종자산업 동향 EU 종자산업 동향 일본 종자산업 동향
	2월	바이오매스 영국·독일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성화 정책 현황 일본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정책 국내 바이오매스 이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3월	카카오산업 가나 카카오 생산 동향
	4월	펄프제지산업 유럽 펄프제지산업 동향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동향 북미 펄프제지산업 동향

□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5월	열대과일산업 미국 오렌지산업 동향 칠레 포도산업 동향 필리핀 바나나산업 동향
	6월	양념채소산업 세계 견고추산업 동향 세계 마늘산업 동향 세계 양파산업 동향
	7월	양봉산업 세계 및 국내 양봉산업 동향 호주 · 뉴질랜드 양봉산업 동향
	8월	외식산업 세계 외식산업 현황과 전망 세계 외식산업 성장과 트렌드
	9월	식품제조업 세계 식품제조업 동향과 산업구조 주요국 식품제조업 현황과 트렌드
	10월	제분산업 세계 제분산업 동향
	11월	제당산업 세계 설탕 수급 및 주요국 동향 브라질 설탕 및 에탄올산업 동향 태국 설탕산업 동향
	12월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 동향 중국 유지종자산업 동향 아르헨티나 유지종자산업 동향
2015년	1월	농업기술 네덜란드 시설원에 산업 동향

세계농업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5>

세계 농기계 시장의 변화와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 *

강 창 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세계 농기계시장과 무역

1.1. 미래 농기계시장의 규모

미래 세계 농기계 시장은 과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계 농기계 시장은 2013~2018년 800만대에서 1,000만대로 연평균 4.5%의 증가를 예측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금액으로 환산된 농기계 시장의 규모는 약 1,500억 달러에서 2,100억 달러로 연평균 6.9%성장을 기대하고 있다<표 1 참조>.

농기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비중이 큰 농기계는 트랙터이다. 세계 트랙터 시장의 규모는 연간 5,500만대에서 5년 후에는 7,700만대로, 금액으로 보면 현재 550억 달러 시장에서 5년 후에는 7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는 전체 농기계 성장의 규모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랙터 다음으로 중요한 기종은 수확기계이다. 수확기계는, 비록 대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당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액 기준 시장규모는 트랙터 다음이다. 2013년 수확기계 시장의 규모는 272억 달러지만 2018년에 가면 약 4,000억 달러,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다. 물량이나 금액 모두 농기계 시장의 평균 성장

* (cykang@krei.re.kr 02-3299-4273).

를을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시장은 이식 및 시비기인데, 2013~2018년 약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식 및 시비기 시장의 성장세 역시 수확기계와 마찬가지로 농기계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농기계는 아니지만 농기계 공급과 보유가 증가하면서 농기계 부품시장이 중시된다. 그 규모는 농기계 시장의 성장과 비례적으로 커지고 있다. 단순히 금액만을 비교할 경우 수확기계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세계 농기계 부품시장의 규모는 현재 260억 달러인데 2018년에 가면 3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표 1 세계 농기계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천대

구분	2008		2013		2018		CAGR (2013~2018)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농용트랙터	44,850	2,280	54,500	2,550	76,800	3,180	7.1	4.5
수확기계	21,200	335	27,200	380	39,750	495	7.9	5.4
이식기및시비기	8,520	555	10,650	610	15,150	770	7.3	4.8
건초기계	7,630	960	9,200	1,030	12,850	1,285	6.9	4.5
축산기계	7,390	1,660	8,690	1,740	11,900	2,140	6.5	4.2
경운기계	5,700	585	7,570	690	10,800	875	7.4	4.9
기타농기계	4,210	935	5,190	1,030	7,100	1,255	6.5	4.0
부품	20,500	-	26,000	-	33,650	-	5.3	-
계	120,000	7,310	149,000	8,030	208,000	10,000	6.9	4.5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세계 농기계 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2000년대 초반의 경우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시장이 비슷하였다. 2003년도 북미와 서유럽의 농기계 시장은 각각 약 170억 달러였으며, 기타지역은 130억 달러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이들의 약 2배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농기계시장의 기본적인 구도는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도 권역별 농기계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북미와, 서유럽, 그리고 기타지역이 각각 210.%, 22.5%, 22.9%였다. 그러나 2013년 북미와, 서유럽의 비중이 모두 20%이하인

약 18% 수준을 보였으며 2018년에는 1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비중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2008~2018년 사이 33.6%에서 46.0%로 12.4% 포인트가 증가할 것이다. 북미와 서유럽의 감소분을 모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흡수하게 되는 것이다.

표 2 권역별 세계농기계시장 예측

단위: 백만 달러

항목	2003	2008	2013	2018	CAGR(2013~2018)
세계농업기계수요	70,700	120,000	149,000	208,000	6.9
북미	16,780	25,230	27,700	34,400	4.4
미국	15,000	22,100	23,900	29,500	4.3
캐나다와 멕시코	1,780	3,130	3,800	4,900	5.2
서유럽	16,800	27,000	26,800	33,600	4.6
아시아·태평양	24,550	40,300	63,700	95,600	8.5
중국	6,000	12,800	26,600	43,600	10.4
인도	4,760	7,270	10,800	15,900	8.0
일본	5,070	5,260	6,120	7,490	4.1
기타	8,720	14,970	20,180	28,610	7.2
기타지역	12,570	27,470	30,800	44,400	7.6
중미/남미	4,990	9,950	11,850	17,500	8.1
동유럽	4,200	11,750	10,100	14,000	6.7
아프리카/중동	3,380	5,770	8,850	12,900	7.8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2018년도 북미와 서유럽 농기계 시장은 각각 약 3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기타지역은 이보다 큰 440억 달러가 넘는 농기계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농기계 시장은 무려 960억 달러로 서유럽 시장의 거의 3배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농기계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 도상 국가들의 강력한 농기계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 농기계시장은 매 5년마다 2배 정도의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13년~2018년에도 과거보다 그 속도가 느리지만,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서 2018년에는 단일시장으로서 서유럽과 북미 시장의 크기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무려 440억 달러를

예측하고 있다. 이는 세계 농기계 시장의 20%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다. 인도 역시 2018년 160억 달러를 기록하여 단일국가로서 세계 3위의 대규모 농기계 시장국가가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기타국가(중국과 인도, 일본 제외 국가들)의 규모 역시 2013년~2018년 사이에 연평균 7.2% 성장세를 보여 약 29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미국 농기계 시장에 버금하는 수준이다.

1.2. 농기계 수출입

농기계는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장치산업을 통해 생산된다. 달리 말하면 어느 정도 소재와 기계 기술, 그리고 주변의 기반시설이 지원되어야 농기계를 생산,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록 개발 도상 국가들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농기계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선진 국가들이 많은 권역에는 농기계의 수출이 많다. 반대로 개발도상 국가들이 많은 지역은 비록 농기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만, 필요한 농기계를 수입에 의존하여 농기계 순 수입이 많다.

권역별 농기계의 순 수출을 보면, 역시 서유럽과 북미가 정(+)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기계의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의미이다. 반면 기타지역을 보면 농기계

표 3 권역별 세계 농기계 순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북미	-80	1,770	1,700	2,600	4,100
미국	310	2,450	2,300	3,350	5,000
캐나다/멕시코	-390	-680	-600	-750	-900
서유럽	3,600	8,850	8,600	11,700	15,100
아시아·태평양	-550	-500	-700	600	2,500
중국	90	1,050	1,200	2,700	4,700
인도	40	130	400	850	1,600
일본	770	1,930	1,230	1,690	2,100
기타	-1,450	-3,610	-3,530	-4,640	-5,900
기타	-2,970	-10,120	-9,600	-14,900	-21,700
중미/남미	-60	-1,000	-850	-1,800	-3,400
동유럽	-830	-5,460	-3,360	-5,020	-6,700
아프리카	-2,080	-3,660	-5,390	-8,080	-11,600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수입이 수출을 훨씬 많이 초과하여 순 수출은 부(-)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곡지의 농기계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독일과 이태리, 화란 등지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세계적인 농기계 수출이 많다보니 순수출금액이 80억 달러를 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후에는 120억 달러, 10년 후에는 15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북미 역시 4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순수입국가로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점차 수출이 증가해서 순수출국가로 되겠지만 순수출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인도, 일본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인 이들 기타 국가의 순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기타 지역인 중미와 남미,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의 농기계 생산은 미미하다보니 필요한 농기계를 서유럽과 미국,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갈수록 농기계 무역수지가 적자, 순수입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주력 농기계시장의 변화

2.1. 트랙터 시장

2013년 현재 트랙터의 세계 연간 수요대수는 255만대인데 5년 후가 되면 320만대로 증가할 것이다. 10년 후 2023년에는 연간 약 4백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증가하는 13,000대는 우리나라의 연간 판매량(12,000대 수준)보다 많다. 자주형인 바퀴·궤도형 트랙터는 전체에서 약 60%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40%는 보행형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랙터는 보행형과 자주형으로 양분되는데, 자주형이 보다 많다. 보행형이란 사람이 걸으면서 트랙터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운기를 연상하면 된다. 후자인 보행형은 자주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격도 작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사용된다. 2013년도 대당 가격을 보면 자주형은 2.5만 달러인데 반해 보행형은 1,000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와 같은 가격의 차이로 인해 금액으로 본 트랙터 시장에서 자주형의 비중은 98%에 이른다. 2013년도 자주형 트랙터 시장의 규모는 530억 달러이다. 반면 보행형은 11억 달러에 불과하다.

표 4 트랙터 시장의 규모변화

단위: 천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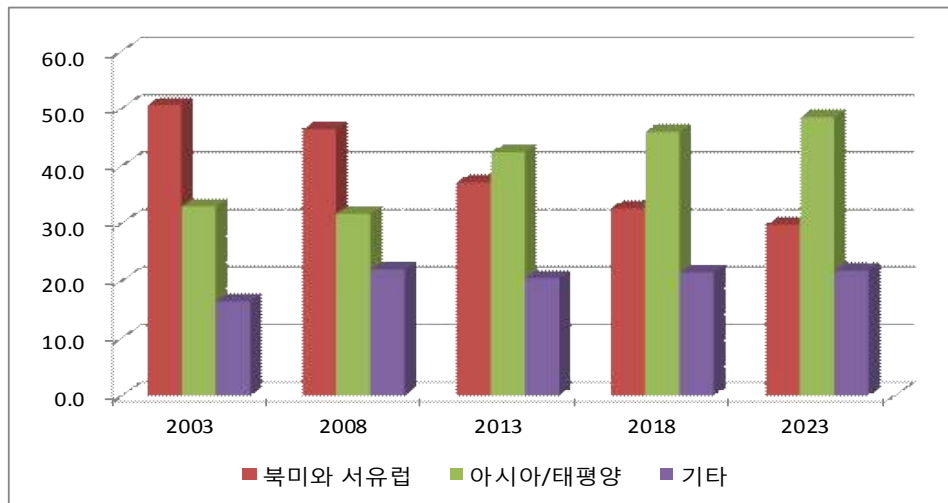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수요대수 (천대)	바퀴/궤도형	910	1,380	1,530	1,930	2,410
	보행형	570	900	1,020	1,250	1,510
	총대수	1,480	2,280	2,550	3,180	3,920
수요금액 (백만 달러)	바퀴/궤도형	25,800	43,950	53,400	75,300	104,600
	보행형	500	900	1,100	1,500	2,000
	총금액	26,300	44,850	54,500	76,800	106,600
대당가격 (달러/대)	바퀴/궤도형	28,350	31,850	34,900	39,000	43,400
	보행형	880	1,000	1,080	1,200	1,320
	평균	17,750	19,650	21,350	24,150	27,200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내용 편집.

권역별 트랙터 시장의 분포를 보면, 2003년까지만 해도 북미와 서유럽의 세계 트랙터 시장에서의 비중이 50%를 상회하였다. 하지만 갈수록 이 비중은 줄어들어 2008년 30%수준 대에서 2023년에 가면 30%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달리 아시아·태평양의 세계 트랙터시장에서의 비중은 점점 증가해서 2023년에는 거의 50%수준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금액으로 보면 2023년 52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며,

그림 1 권역별 트랙터 시장의 구조 변화

단위: %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단일 국가로 최대시장이던 미국을 2013년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나아가 5년 후에는 북미와 서유럽 전체 시장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25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물론 인도 역시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3위 트랙터 시장을 형성할 것인데, 이 규모는 중남미,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의 시장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2.2. 수확기 시장

세계 농기계 시장의 18.3%(2013년 금액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수확기의 연간 수요대수는 2013년 38만대에서 2018년에는 약 5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대수 면에서 트랙터의 1/7 수준으로 매우 작지만 대당 가격이 7만 달러를 넘고 있기 때문에 시장규모는 연간 272억 달러, 트랙터의 절반정도 가까이 된다.

권역별 수확기 시장의 구조변화는 그 속도 면에서 약간의 차이, 즉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트랙터와 매우 유사하다. 북미와 서유럽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 세계 수확기시장에서 북미와 서유럽의 비중은 48%,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31%이었다. 이것이 2023년이 되면 전

표 5 권역별 수확기 시장의 규모변화

단위: 천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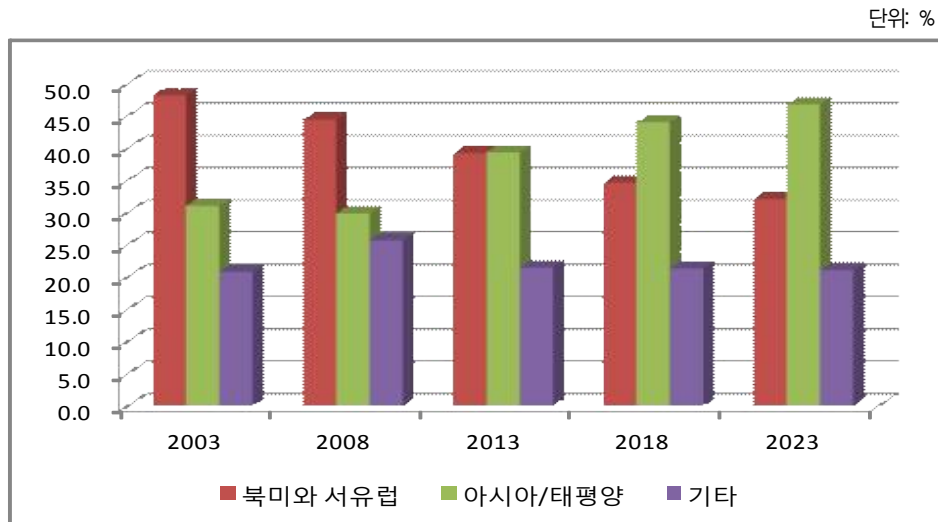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총수요대수	205	335	380	495	620
대당 가격(달러)	55,600	63,300	71,600	80,300	90,300
총 소요금액	11,400	21,200	27,200	39,750	56,000
북아메리카	2,960	5,100	6,270	8,170	11,000
미국	2,630	4,490	5,450	7,060	9,510
캐나다/멕시코	330	610	820	1,110	1,490
서유럽	2,530	4,320	4,390	5,600	6,980
아시아·태평양	3,540	6,330	10,700	17,500	26,200
중국	660	1,830	4,490	8,560	13,600
인도	890	1,370	1,850	2,670	3,860
일본	720	760	990	1,230	1,470
기타	1,270	2,370	3,370	5,040	7,270
중미/남미	910	1,900	2,160	3,190	4,560
동유럽	890	2,550	2,010	2,740	3,580
아프리카/중동	570	1,000	1,670	2,550	3,680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내용을 편집.

자가 32%, 후자가 47%로 역전이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역의 비중은 21% 수준으로 안정적일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수확기 시장의 성장도 중국과 인도와 같은 국가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2008년 중국 수확기 시장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이미 서유럽시장의 수준을 넘어 45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8년에 이르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140억 달러에 가까운 수확기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역시 2013년 20억 달러 이하의 시장이었지만, 2023년경에는 거의 40억 달러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 권역별 수확기 시장의 구조 변화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2.3. 이식·시비기 시장

이식·시비기의 시장은 전체 농기계 시장의 7.1%(2013년, 금액기준)를 차지하였는데, 연간 수요대수는 2013년 61만대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는 약 77만대, 2023년에는 거의 1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의 규모는 대수의 증가, 그리고 대당 가격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13~2023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식·시비기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 확대 역시 괄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 이미 서유럽 전체와 미국시장을 넘어섰고, 2018년경이 되면 서유럽과

표 6 권역별 이식·시비기 시장의 규모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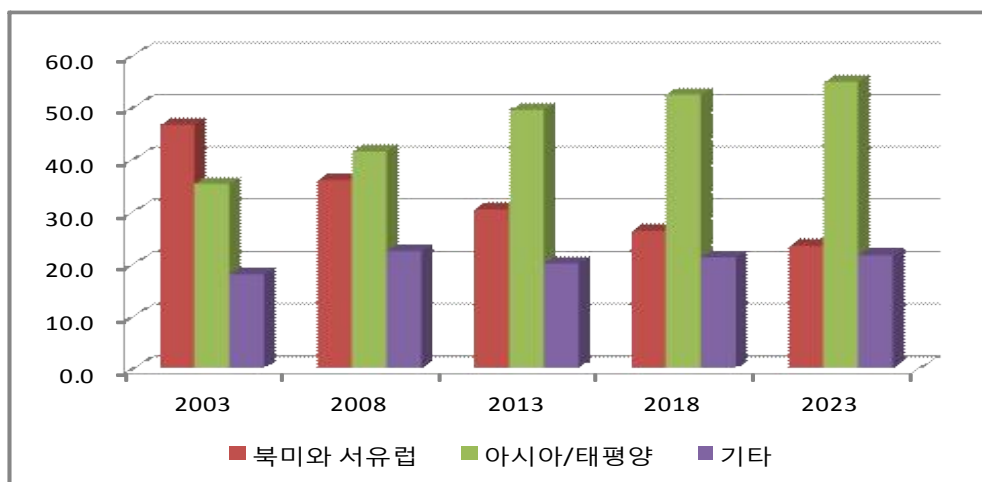
단위: 천대, 백만 달러

구분	2003	2008	2013	2018	2023
총수요대수	315	555	610	770	960
대당가격(달러)	13,400	15,350	17,450	19,700	22,400
총수요금액	4,220	8,520	10,650	15,150	21,500
북아메리카	1,210	1,610	1,650	2,000	2,580
미국	1,110	1,440	1,420	1,700	2,190
캐나다/멕시코	100	170	230	300	390
서유럽	760	1,460	1,590	1,990	2,460
아시아·태평양	1,490	3,540	5,270	7,940	11,800
중국	340	1,660	2,660	4,230	6,630
인도	350	500	680	950	1,330
일본	230	250	330	420	510
기타	570	1,130	1,600	2,340	3,330
중미/남미	340	740	890	1,350	1,990
동유럽	260	840	720	1,040	1,430
아프리카/중동	160	330	530	830	1,240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내용을 편집.

그림 3 권역별 이식·시비기 시장의 구조변화

단위: %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미국을 합한 시장보다 큰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연간 약 43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세계 이식·시비기 시장의 28%에 이르는 규모이다. 당연히 아시아·태평양 이식·시비기 시장은 세계 시장의 1/2을 넘게 된다.

이식·시비기의 권역별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이 구조 역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하는 구조와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트랙터와 수확기보다 빠르고 강하다. 즉 2003년도 북미와 서유럽의 세계 이식·시비기 시장에서의 비중이 47%에 이르렀는데 2018년에는 26%, 2023년에는 23%로 떨어진다.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2003~2023년 사이에 35%에서 55%로 20%포인트 가량 증가한다.

3. 세계 농기계기업

세계 농기계 메이저 5대 대기업의 연간 농기계 총매출은 620억 달러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세계 농기계 시장의 40%를 웃도는 규모인데, 이를 확대해서 10대기업의 농기계 매출액은 720억 달러로 전체에서의 비중이 거의 50% 수준에 육박한다.

가장 규모가 큰 농기계 기업은 ‘Deere’인데 연간 무려 257억 달러(28조원, 환율 1,100 원/달러 기준)의 농기계를 팔고 있다. 국내에서 농기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 기업 ‘Kubota’가 세계 랭킹 4위이며, 연간 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인 대동공업은 21위에 놓여 있다. ‘Kubota’는 ‘대동’의 10배가 넘는 농기계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다.

농기계 기업들의 총매출에서 농기계 매출의 비중은 41.4%로 낮다. 이는 기업별 포트폴리오 전략의 결과이다. 일부는 전문화로 일부는 다각화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대 기업 가운데 비교적 농기계에 전문화된 회사는 Deere(67.9%), AGCO(85.3%), CLAAS(97.0%) 등이다. 이와 달리 CNH Industrial(Fiat)(46.5%)와 Kubota(39.9%)는 상대적으로 덜한 전업적 농기계 생산, 다각화를 고려한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인 제휴, 합병 등을 통해 자신의 시장을 확장해오고 있다. 강력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합작투자인데 현지 국가와 수요자들로부터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방법이다. 최근 이러한 합작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두 번째 대기업인 CNH의 최근 합작투자를 보면 매우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기업, 그리고 포괄적인 내용의 합작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세계 주력 농기계 기업의 매출

단위: 백만 달러

회사명	회사총매출액	농기계매출액	농기계/전체(%)
Deere	37,795	25,650	67.9
CNH Industrial(Fiat)	34,225	15,900	46.5
AGCO	10,787	9,200	85.3
Kubota	15,056	6,000	39.9
CLAAS	4,946	4,800	97.0
(5대기업 소계)	(102,809)	(61,550)	(59.8)
Yanmar	6,494	2,600	40.0
Mahindra & Mahindra	12,232	2,250	18.4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37,444	1,950	5.2
Foton Lovol International Heavy	3,654	1,740	47.6
SAME DEUTZ-FAHR	1,609	1,600	99.4
(10대기업 소계)	(164,242)	(71,690)	(43.6)
Bucher Industries(Kuhn Group)(	2,903	1,400	48.2
Iseki	1,688	1,260	74.6
Tractors and Farm Equipment	1,600	1,150	71.9
Tetra Laval International	17,851	1,100	6.2
Valmont Industries	3,304	880	26.6
Exel Industries	957	680	71.1
AMAZONEN-Werke	684	620	90.6
ARGO	637	600	94.2
Escorts	801	590	73.7
Netafim	700	550	78.6
Daedong Industrial	561	500	89.1
합계	195,928	81,020	41.4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합작투자 이외에도 기술협력과 공유, 유통망 공유, 제조와 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기업 간 일부의 사업영역을 인수·합병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Alamo Group의 경우에는 영국과 호주 농기계 기업으로부터 일부, 즉 자체 동력이동 분무기, 다용도 운반 트랙터, 제조와 관련 제품 부분만을 인수하였다. 새로운 기업들의 세계 시장진출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전개이다.

표 8 CNH 의 합작투자 현황

협정대상회사	해당분야
OJSC KAMAZ(러시아)	Production of NEW HOLLAND agricultural, 유통과 농업관련서비스, 건설장비
Quimmco(Mexico)	NEW HOLLAND 트랙터, 트랙터 부품 & 교환분야 & CASE IH & NEW HOLLAND 농업장비
Shanghai Automotive Industry(Shanghai Tractor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중국)	트랙터 & 트랙터 부품
Uzelhoz mash-holding(우즈베키스탄)	트랙터, 콤바인 & 채면기
Uz agromash service association(우즈베키스탄)	농업장비수리 & 정비업무 & 예비 부품 등
Shibamoto & company(일본)	NEW HOLLAND & 농업장비
Koc Holdings(터키)	트랙터

주: Fiscal years for total corporate sales may vary.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에서 발췌.

표 9 선택적 합병/인수(매각과 매입)

회사	인수
Alamo Group(미국)	Kellands Agricultural (영국-자체추진 분무기 & 다용도 운반 트랙터)
	Superior Equipment Australia (agricultural mowing equipment & 부가장치 관련)
CLAAS(독일)	majority interest in Shandong Jinyee Machinery Manufacture (중국-곡물 & 밀 수확기)
Deere & Company(미국)	Bauer Built 제조(미국-파종기)
Exel Industries(프랑스)	Agrifac Machinery (네덜란드-농약분사기, 사탕무 수확기, 감자 수확기 & 배수관 청소기)
	Holmer Maschinenbau (독일-사탕무 수확기, 클리닝 로더 & 배수관 청소기)

자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에서 발췌.

또한 세계 굴지의 농기계 회사들은 자신들의 농기계 판매확대를 위해 판매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농기계 시장에서의 예를 들면, 미국 내 트랙터 판매 시 도매와 소매금융이 활용되고 있다. 도매금융이란 법인과 딜러(Dealer)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이며 소매금융은 딜러와 트랙터 구매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Deere사와 Kubota가 가장 적극적으로 신용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전략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볼 수 있다.

4. 국내 농기계산업의 수출입

4.1. 국내 농기계시장

우리나라 농기계 시장은 1990년대 후반 연간 약 30만대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감소의 길을 걷기 시작해 현재는 연간 5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감소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수요의 감소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농기계의 성능이 다목적·고성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농기계 시장은 용자기종을 중심으로 보면 약 1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농기계 시장은 정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시장의 성장정체와 달리 수출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시장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0 국내기업 당면 농기계시장

단위: 억 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내수	4,523	9,064	10,561	6,363	10,506	9,252
수출	104	329	1,698	3,751	4,770	9,188
계	4,627	9,393	12,259	10,114	15,276	18,440

주: 내수는 정부 용자를 받는 기종을 기준한 수치임.

자료: 강창용 외, 「농기계산업의 발전 및 수출확대 방안 토론회 자료집」, D383, 2014. 10, p.7.

우리나라 국내시장에서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문제는 일본의 주력 농기계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이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일본 농기계 기업들에게 우리의 농기계 시장을 모두 내줄 판이다.

한국 진출 초창기인 1990년 전후만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의 한국 시장 확대전략은 조심스러웠었다. 10% 이하의 시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예를 들면 트랙터의 경우 오랫동안 같은 수준이었던 10% 시장 점유를 넘어선 13% 수준으로 진입하였고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양기는 조만간 50%에 이를 것이며 콤파인 역시 30%를 넘길 것이다. 국내 기업으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의 전개이다. 내수기반이 약할 경우 장기적인 수출 성장도 어렵기 때문이다.

표 11 국내시장 일본제품의 시장점유

단위: 대,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트랙터	1,284	1,196	1,249	1,450
(%)	9.2	9.2	10.2	12.4
트랙터총수요	13,891	12,992	12,246	11,688
이앙기	1,391	1,328	1,437	1,524
(%)	26.0	30.3	36.6	43.0
이앙기총수요	5,354	4,387	3,921	3,543
콤바인	623	690	652	735
(%)	17.5	23.1	26.2	27.4
콤바인총수요	3,565	2,992	2,490	2,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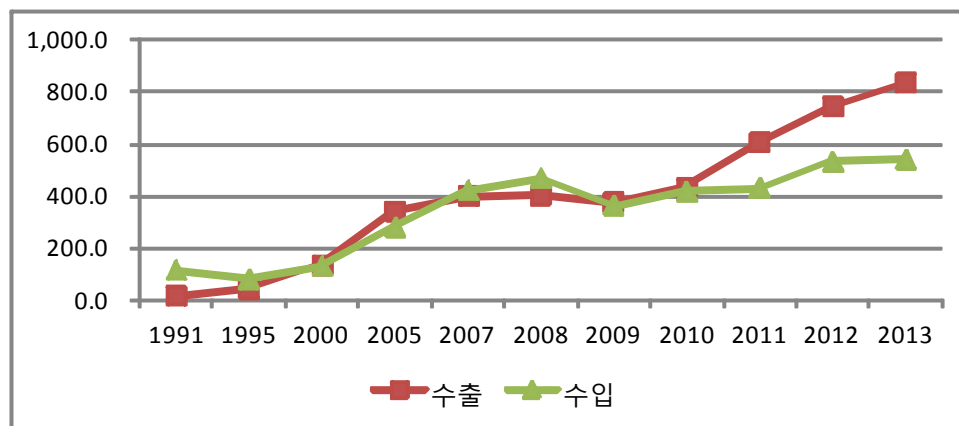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연감」, 해당년도.

4.2. 농기계 수출입

과거 우리나라 농기계 수출은 미미하였다. 내수에 치중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수시장이 정체현상을 보이자 국내 기업들은 수출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도 1억 달러 이하이던 수출규모가 이제는 8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한국 농기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제공.

가장 선두에 있는 수출 기종은 트랙터로 4억 2,000만 달러이다. 다음으로 부품수출 규모가 1억 4,000만 달러에 이른다. 각종 작업기가 8,700만 달러, 다음으로 양수기와 이앙기, 콤바인의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로 농기계 수출 규모를 보면 미국이 전체의 33%, 2억 7,00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과 호주, 태국, 일본 등이 7,000만~2,600만 달러 범위에서 수출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 주변의 비중이 22.9%이지만 소규모 수출(기타국가)을 고려하면 25% 이상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점차 이 지역의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기업별 수출 금액을 보면 5대 기업이 전체 수출의 70%를 중소기업이 30%를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주로 미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일본과 중국 등의 견제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 일부, 예를 들면 동양의 경우 Mahindra, LS 엠트론의 경우 CNH의 OEM 제품들이 적지 않아서 장기적인 자사 브랜드 가치제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5. 미래 농기계 시장과 시사

5.1. 시장 확대 및 억제 요인

다양한 농기계 수요 증대 요인 가운데 다음의 변수들은 대체로 농기계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식량수요 증대와 생산성 증대요구, 두 번째, 농촌 노동력의 부족, 세 번째, 정밀농업에 대한 수요 증대와 강도 높은 육체 노동기피 현상 심화, 네 번째, 세계적인 경제회복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이다.

농기계 수요 증대 요인과 대책점에서 수요를 억지하는 요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환경 친화적 농기계 요구 증대, 두 번째, 안전성과 편의성 강화 요구 증대, 세 번째, 스마트 농업대응 정밀, 로봇화 농기계 수요 등이다.

5.2. 미래시장 전망

세계 농기계 시장에 대한 성장요인과 제한 요인을 종합할 경우 성장 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농기계 시장의 성장은 7% 가까운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 한마디로 세계 농기계시장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기종별로 보면 트랙터와 수확기 중심으로 농기계 시장이 성장할 것이며 이들 기종의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특히 용도가 다양하고 국가 간 사용차이가 크지 않은 트랙터가 전체시장의 1/3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즉 미래 농기계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역별로 보면 역시 아시아·태평양과 기타지역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개별 국가로는 과거 미국과 서유럽 중심에서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규모는 아직 미미하지만 중남미와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이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농기계 무역시장에서 유럽과 미국의 비중은 크게 유지될 것이다. 가장 먼저 기계화가 된 지역이고 동시에 이곳에 세계 굴지의 농기계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메이저 다국적 주력 기업들의 시장장악과 합종연횡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10대 농기계기업들의 시장 지배율이 50% 수준대로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모습의 전략적인 제휴가 성행하고 있다. 중소회사에 대한 합자투자, 기술협력과 마케팅 공유 등과 함께 선택적 생산 부분별 흡수, 인수 등이 일반화되고 있다.

5.3. 국내 산업에 대한 시사

현재 우리 농기계 기업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기업들의 한국시장 잠식에 대비하면서 당면한 시장을 수출을 통해 확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나름대로의 노력의 결과 조만간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과 맞먹는 규모가 될 것이다.

내외외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농기계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국제 농기계 생산과 기업들의 행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한 다음 분산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 간 정보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콤팩트는 남부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늪지와 같은 토질에서 사용이 어렵다. 물론 중량이 많이 나가는 트랙터는 바퀴가 아닌 궤도식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 적용해서 현지화 농기계를 생산, 수출해야 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현지 금융지원이다. 금융과 실물이 결합된 현지 진출과 수출

증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몫을 확대하는 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금융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다.

기술적인 면과 판매망의 확보 면에서 기존 세계적인 메이저 농기계 기업들과의 연대가 당분간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OEM 수출이 중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현지 기업을 OEM 파트너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권역 내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시 경험자금(EDCF)와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들도 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동 판매 및 국내 굴지의 기업과의 연대 판매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 7.

강창용·한혜성. 2013. 12. 「농기계산업의 발전방안」. R69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강창용 외. 2014. 「농기계산업의 발전 및 수출확대 방안 토론회 자료집」. D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2008~2013. 「농업기계 연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가별 농업자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농업현황 및 시사점 | 서강철

세계농업 HISTORY

□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3년	1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2월	프랑스 · 필리핀 프랑스의 농업과 농정 필리핀의 식량자금 정책
	3월	덴마크 · 캄보디아 덴마크 농업의 이해 -농업발전 과정의 도전과 대응사례 캄보디아 농업 잠재력과 정책 방향
	4월	인도 인도 농업의 개황 및 정책
	5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농업 현안과제와 한국의 투자진출 전략
	6월	스위스 스위스 농업 개황 및 농정개혁
	7월	러시아 · 호주 러시아 아무르주 농업 현황 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호주 서부지역 농업 현황
	8월	탄자니아 · 프랑스 탄자니아 농업 개황 프랑스 농작물 보험제도 동향
	9월	영국 · 우간다 영국 농업 동향과 시사점 우간다 농업 개황
	10월	르완다 · 칠레 르완다 농업 현황 칠레 농업 현황
	11월	태국 태국 농업 개황
	12월	네덜란드 · 인도 네덜란드 농업 현황 인도 농업·농정 동향

□ 국가별 농업자료 (계속)

연도별	월별	제 목
2014년	1월	라오스 · 스페인 라오스의 화전농업 스페인 농작물재해보험 현황 및 시사점
	2월	러시아 연해주 · 일본 러시아 연해주 농업현황과 한국의 진출 전략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3월	호주 · 베트남 호주 쇠고기 생산 동향 베트남 농업 개황
	4월	미얀마 · 필리핀 미얀마 농업 현황 및 농업부문 투자정책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5월	우즈베키스탄 ·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농업개황과 농업 진출 전략 스위스 농업경제 및 정책 동향
	6월	콩고민주공화국 ·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농업 현황과 과제 우간다 농업 현황
	7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농업 실태 및 전망
	8월	멕시코 · 페루 멕시코 농업 현황 페루 농업현황 및 시사점
	9월	이탈리아 · 덴마크 이탈리아 농업 현황 덴마크 농업 현황
	10월	모잠비크 모잠비크 농업 현황 및 주요 발전전략
	11월	독일 독일 유기농업 현황
	12월	터키 · 몽골 터키 농업 현황 및 시사점 몽골의 농림업 현황

□ 국가별 농업자료		
연도별	월별	제 목
2015년	1월	이스라엘·파라과이 이스라엘 농업 개황 및 농업정책 파라과이 농업 현황 및 시사점

세계농업 「국가별 농업자료」 원문자료 <http://worldagri.krei.re.kr/web/worldagri/6>

나이지리아 농업현황 및 시사점 *

서 강 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세계 7위, 아프리카 1위의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¹⁾는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차드와 카메룬, 서쪽으로는 베냉, 북쪽으로는 니제르, 그리고 남쪽으로는 기니 만(Gulf of Guinea)에 접한다. 기후는 해안지대는 열대우림에 속하는 반면, 내륙부는 열대 사바나에 속한다. 그러나 넓은 국토만큼이나 다양한 지형과 기후가 나타나며, 습도가 매우 높고 장마철이 거의 1년 내내 계속된다. 연평균 기온은 31~34℃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강수량은 1,800~3,000mm로 북쪽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나이지리아의 전체 국토 면적은 9,230만 ha로 대한민국 면적(990만 ha)의 10배에 달한다. 이 중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8,400만 ha로 전체 면적의 91%를, 산림은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비옥하여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데 유리하며, 크게 동부, 서부, 북부의 세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북부가 농업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기니 만을 따라 이어진 853km의 해안 지대는 광대한 대양으로의 통로로서 니

* (softvalue@krei.re.kr 02-3299-4257).

1) 2013년 기준 약 1억 7,4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나이지리아의 명칭은 국민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니제르 강(Niger river)'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제르(Niger)강과 베누에(Benue)강의 충분한 수자원은 어업 및 양식업에 상당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나이지리아는 과거에 이러한 이점들을 잘 활용하여 1960대까지도 농업강국(agricultural powerhouse)으로의 명성을 확고히 하였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61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는 세계 땅콩기름과 코코아 무역량의 42%, 18%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세계 팜유 산업의 27%를 점유하기도 하였다. 즉, 원유가 발견되었던 1956년 이전까지는 자급자족하였던 식량 생산국이었던 것이다(National Agricultural Resilience Framework, 2014)).

그림 1 나이지리아 지리적 위치



주: 구글 (<https://www.google.co.kr/images>)를 활용하여 재구성함.

오늘날에는 연방정부가 재정 수입의 2/3 이상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²⁾,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농업으로, 전체 노동력의 약 70%를 차지한다. 농업은 경제학적으로 많은 산업 부문과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국가 발전에 필요한 광범위한(broad-based)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2013년에 측정된 실질 GDP 성장률은 7.4%로 2012년의 6.7%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상적인 성과

2)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 보유량은 각각 1, 2위 수준이다.

는 주로 농업, 건설업, 호텔 및 외식업 부문 등의 산업에 힘입은 것으로 원유산업 이외 산업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1~2013년에 5.4%, 8.3%, 7.8%이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첫째로 농업 부문에 있어 양호한 수확, 홍수와 적절한 강우량을 예측 가능한 조치방안(corrective measures) 도입 등에 따른 작물의 생산량 증가이다. 둘째는, 현재 농업 부문에서 진행 중인 농업개발아젠다(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da, ATA)³⁾가 실효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나이지리아는 자국 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산업이 다양화되며 복잡해짐에 따라 GDP 산정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⁴⁾

<표 1>을 보면 2013년 산업 부문별 GDP 비중은 2008년 비중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농·림·어업, 석유업, 광업 등의 GDP를 합치면 전체에서 차지

표 1 산업 부문별 GDP 비중

단위: %

구 분	2008	2013
농업, 수렵, 임업, 어업	32.9	22.0
원유업, 광업, 채석업	37.6	14.5
제조업	2.4	6.8
전기, 가스, 수자원업	0.2	1.3
건설업	1.3	3.1
도매 및 소매업, 호텔, 외식업	14.8	17.5
운송, 저장, 통신	3.0	12.2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업	6.0	14.6
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0.7	3.6
기타 서비스업	1.2	4.4
총 국내 생산 (기본 가격(basic prices)/요소 비용(factor cost))	100.0	100.0

3) 2011년에 시행된 아젠다로 쌀, 카사바, 수수, 코코아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안되었다.

4) 나이지리아는 2014년 초 GDP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GDP 기준연도를 지난 1990년에서 2010년으로 조정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GDP 산정 방식을 바꾼 결과 2013년 명목 GDP가 5,090억 달러(약 535조 1626억 원)로 집계되었다. 이는 기존 방식을 적용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규모(2,920억 달러)보다 89% 늘어난 것으로 경제 규모 기준 세계 26위다. 반면 1999년 이후 역대 경제 규모 1위를 지켜오던 남아공은 2013년 GDP가 3,720억 달러(약 391조 6,200억 원)에 그쳐 역대 2위로 밀려났다. 이는 경제관련 통계집계가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남아공 인구의 3배에 달하는 나이지리아 인구의 증가세가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산정방식 이용을 위해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승인이 뒷받침되었으며, 남아공을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주요국은 이미 2010년을 기준으로 GDP를 계산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경제(2014.04.07), 엔하위키미러(<https://mirror.enha.kr/wiki/>)).

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35%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원유업, 광업, 채석업 등의 부문은 2008년 37.6%에서 2013년 14.5%로 50% 이상 감소하였다.⁵⁾

반면, 도매 및 소매업, 호텔, 레스토랑, 운송, 금융, 부동산 등의 서비스업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산정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GDP를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 정보기술(IT), 음악, 전자상거래, ‘놀리우드(Nollywood)⁶⁾’로 불리는 영화 산업 등 급성장하는 신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나이지리아에서 GDP 생산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농업(기타 수렵, 임업, 어업 포함)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경제 개황을 비롯하여, 농업의 전반적 현황(주요생산 작물, 수출입 현황 등), 농업 발전의 장애요인,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2. 농업 연왕

들어가기에 앞서 농업 여건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나이지리아는 생태계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후대별로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하다. 남부 지역의 아열대 기후의 숲에서는 서류(root and tuber crops), 요리용 바나나(plantain bananas), 쌀 등을 주로 생산하며, 북부 지역의 건조 기후에서는 주로 수수, 기장, 쌀 등의 곡물을 재배한다. 기타 중부의 반습윤기후(semihumid)에서는 서류와 곡물류를 혼합하여 재배하며, 기계화 농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 대부분(80~90%)은 소농으로 평균 경작 면적은 1~2ha 수준이며 농기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농가들은 좀 더 나은 장비를 이용하여 50ha 정도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산업 기관(agro-industrial organization)과 나란히 생업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특히 중부 지역에는 이러한 대규모 농가가 많으며 주로 사업가나 고위 공무원에 속한다.

이 파트에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주로 재배되고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 포함)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절은 주요 농작물의 생산 및 재배 현황에

5) 여기에는 2013년 원유 절도 사건의 기습과 파이프라인(pipeline) 파손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 상류 부문(upstream activities)의 고부가가치 창출 실패에 따른 투자 약화 등도 한 몫 한 것으로 간주된다.

6) 나이지리아의 'N'에 할리우드를 붙여 '놀리우드' (Nollywood)라는 명칭이 붙었다. 놀리우드는 1980년대 나이지리아 독재정치의 종말과 더불어 탄생했다. TV에서 외국 프로그램 검열이 강화되자 자체 프로그램 제작이 늘면서 영화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나이지리아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화를 많이 만드는 나라로서, 연간 2천편 가량의 영화가 제작되고 총수입은 2억 5,000만 달러에 이른다.

관하여, 둘째 절은 주요 축산물의 생산 현황에 대해 다루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절에서는 농작물과 축산물을 전체적으로 다룬 교역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1. 주요 농작물

주요 생산 작물에는 카사바, 양, 옥수수, 수수, 기장, 쌀, 고구마, 땅콩, 두류, 사탕수수 등이 있으며<표 2 참조>,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곡물로 해당 작물에는 팔수수(guinea corn), 기장, 옥수수, 쌀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서류로 여기에서 카사바, 고구마, 양, 코코야(cocoyam), 감자, 생강 등이 있다.

그 밖에 곡실용두과작물(grain legume)⁸⁾ 및 콩과 작물에는 동부콩(cowpeas), 로우커스트 콩(locust bean), 대두, 땅콩, 나무콩(pigeon pea) 등이 있으며, 유지작물에는 멜론, 콜라콩(kolanut), 커피 등이, 나무류 작물에는 코코아, 팜유, 고무 등이 있다.

표 2 생산량 기준 주요 10대 작물

단위: 천 톤

순위	구 분	생산량
1	카사바(Cassava)	54,000
2	양(Yams)	38,000
3	옥수수(Maize)	9,410
4	수수(Sorghum)	6,900
5	기장(Millet)	5,000
6	쌀(Rice)	4,833
7	고구마(Sweet Potatoes)	3,400
8	땅콩(Groundnuts)	3,070
9	두류(Pulses)	2,560
10	사탕수수(Sugarcane)	1,450

자료: Growatrica(2014).

아래 <표 3>은 주요 작물의 생산량 및 재배면적을 정리한 것으로, 우선 최근 5년간

7) 카사바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다년성 작물로, 높이는 1.5~3미터이고 지름은 2~3센티미터이다. 덩이뿌리가 사방으로 처져 고구마와 비슷하게 굵으며 겉껍질은 갈색이고 속은 하얀색이다. 이 덩이뿌리에는 칼슘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20~25%의 녹말이 들어있다. 양은 전 세계에 약 600 종이 있고, 주로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분포하는데, 온도가 높고 비가 많은 지역에서 흔히 재배한다. 이 가운데 두류, 카사바, 옥수수 등은 과거 유럽인들에 의해 전래된 작물들로, 특히 카사바는 15세기 유럽인 최초로 나이지리아에 상륙하였던 포르투갈인들이 들여온 것이다.

8) 곡실용으로 생산되는 콩과 작물을 뜻한다.

생산량을 살펴보면 서류와 곡물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서류의 전체 생산량은 '09년 대비 '13년에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4~13년 중 2009년에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하여 최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곡물류 또한 동기간 생산량이 30% 가량 증가한 작물류로 이는 옥수수와 쌀 생산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주요 유지작물'의 전체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2009~2013년 주요 작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천 ha, 톤/ha, %

구분	서류			곡물류			주요 채소류			주요 유지작물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2009	73,248	7,738	9.47	33,654	19,199	1.75	10,399	1,536	6.77	3,078	7,989	0.39
2010	84,052	8,231	10.21	38,316	22,853	1.68	11,830	1,844	6.42	3,059	7,846	0.39
2011	97,185	8,441	11.51	37,528	25,388	1.48	11,440	1,869	6.12	2,790	7,588	0.37
2012	100,000	8,627	11.59	42,126	25,489	1.65	11,941	1,896	6.30	2,887	7,726	0.37
2013	100,050	8,629	11.59	43,600	25,299	1.72	-	-	-	2,662	6,446	0.41
'09/'13 증감률	36.6	11.5	22.5	29.6	31.8	-1.7	14.8	23.4	-7.0	-13.5	-19.3	7.2

주: 주요 채소류의 2013년 자료는 파악되지 않아 '09/'12 증감률 수치를 대신 사용하였다.
자료: <http://knoema.com/atlas/Nigeria/topics/Agriculture>.

한편 '09년 대비 '13년의 ha당 생산량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류, 주요 유지작물은 증가한 반면, 곡물류 및 주요 채소류는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곡물류는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a당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점과, 주요 유지작물은 재배면적이 19.3% 감소하였지만 오히려 ha당 생산량은 7.2%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는 주요 생산 작물 중 서류와 곡물류만 간단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2.1.1. 서류

서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 중 나이지리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작물들이 주식의 주요한 부분으로 주로 서민들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서류에는 카사바, 양, 감자, 생강, 코코야, 고구마 등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90% 이상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농업에서 서류 작물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서류 중에

서도 카사바와 얀은 통틀어 농가 소득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⁹⁾ 이 중 카사바는 총 36개 주(state) 가운데 24개 주에서 생산되며, 남부지역이 주 생산지로 재배면적과 재배농가 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카사바가 주로 생산되는 지역에는 남부 오니차 지역 근방의 아남브라(Anambra), 그리고 중부와 남동부에 각각 위치한 벤델(Bendel)과 베누에(Benue) 지역 등이 있다. 카사바는 연중 내내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다른 얀이나 두류와 같은 계절성 작물에 비해 재배가 선호된다. 그 밖에도 낮은 토양 비옥도에 잘 견디며, 가뭄이나 해충, 질병에 강한 특성이 있는 등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보인다.

다음으로 얀은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골고루 재배되는데, 그 중 재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베누에 주이다. 이곳에서는 얀의 재배규모나 생산량이 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는 베누에 주가 나이지리아의 곡창지대(흔히 빵바구니(bread basket)로 불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얀은 모종이나 수확 과정에 있어 상당한 노동력을 요하며, 종자는 한정된 공급으로 비싸기 때문에, 재배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작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따라서 농가들은 수확한 얀 종자 중 약 45% 가량을 다음 시즌을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가들이 판매하는 종자보다 비축하는 종자 물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얀 작물은 농업 소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1.2. 곡물

곡물은 주된 영양 공급원으로 상당한 양의 단백질, 미네랄(칼륨 및 칼슘), 그리고 비타민 A와 C를 제공한다. 곡물은 반죽, 국수, 케이크, 빵, 음료 등 인종이나 종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소비된다.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나이지리아의 인종 그룹들은 곡물 잔존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나이지리아의 곡물 생산량은 서아프리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곡물류에는 쌀, 옥수수, 수수, 밀, 기장, 사탕수수 등이 있다. 이들 곡물은 주로 사바나(savannah) 생태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후나 토양 조건 이외에도 잡초나 해충 및 질병, HIV/AIDS 재앙 등이 있다.

한편 주요 곡물 중에서도 수수와 옥수수는 그 생산량이 타 작물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이다.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의 주요 작물인 수수는 오늘날 자국 내에서 옥수수, 기장에 이어 3번째로 생산량이 많으며, 200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곡물 생

9) 나이지리아는 세계 최대의 카사바와 얀 생산국으로 각각 세계 생산량의 %, 2/3(66%) 정도를 차지한다. 위의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서류 생산량은 1억 톤을 넘어섰으며, 오늘날 다수의 서류 작물에 있어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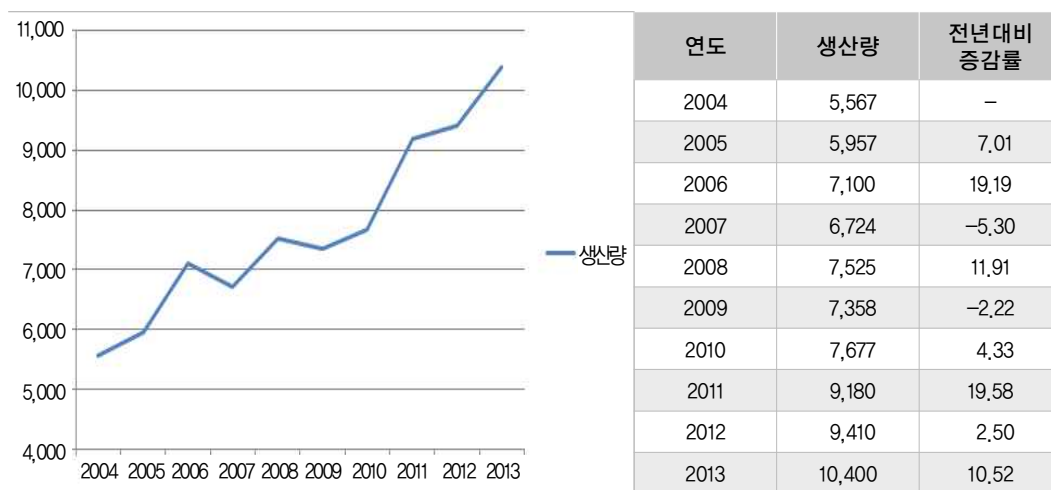
산량의 약 50%, 곡물 재배면적의 약 45%를 차지한 작물이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생산량 및 재배면적이 감소추세에 있긴 하였지만¹⁰⁾,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서아프리카 최대의 수수 생산국으로 서아프리카 생산량의 71%, 아프리카 총 생산량의 30~4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미국과 인도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다음으로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이라고 볼 수 있는 옥수수는 주로 중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곡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를 앞지른 옥수수의 생산 현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옥수수 생산량의 연평균 증감률¹¹⁾은 7.2% 수준으로 아래 <그림 2>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옥수수 생산량은 07년과 09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이후로 보면 '09년 대비 '13년 생산량 증가율이 약 41%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13년에 증가한 생산량은 앞에서 언급한 농업개발아젠다(ATA) 정책과 관련이 있는데, ATA 정책 하에 시행된 높은 옥수수 가격 유지와 비료의 유용성이 향상됨에 따라 옥수수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 2004~2013년 옥수수 생산량 변화 추세

단위: 천 톤, %



자료: <http://knoema.com/atlas/Nigeria/topics/Agriculture>.

10)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는 주로 옥수수와 대두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도 최근에는 조금씩 증가세로 변하고 있는데, 이는 품종 개량과 보다 나은 재배법의 도입 등으로 인해 재배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1) $\exp((\ln(A_n) - \ln(A_1)) / (n - 1))$ 공식을 활용하였으며 A_1 과 A_n 은 각각 첫째와 마지막 연도의 생산량 수치를 사용하였다.

2.2. 주요 축산물

축산업 규모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크며, 축산 부문의 생산액은 농업 전체 GDP의 1/3 수준으로 정부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 및 일자리, 식량 이외에도 비료, 연료 및 교통수단 등을 제공한다.

축산업은 농촌 가구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총생산액의 6%, 농업 총생산액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업 성장률 3.3%보다 더 높은 수치로 앞으로 향후 농업에 있어 축산업이 엔진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4>의 2004-12년 주요 축산물의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축종별 연평균 증감률은 '쇠고기'가 2.3%, 가금육이 4.1%, 그리고 돼지고기, 주요 알류, 우유가 각각 3.7% 수준으로 모든 축종의 생산량은 증가세에 있다. 특히 '돼지고기'와 '주요 알류'는 매년 양의 증가율을 달성하고 있으며, 육류생산을 선도하고 있는 가금육은 '04년 대비 '12년에 생산량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였다.

표 4 2004~2012년 주요 축종 및 품목별 생산 현황

단위: 톤, %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주요 알류		우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4	323,410	-	186,165	-	211,000	-	476,000	-	423,000	-
2005	305,610	-5.50	193,455	3.92	218,750	3.67	500,400	5.13	438,500	3.66
2006	259,457	-15.10	201,285	4.05	232,100	6.10	526,400	5.20	462,700	5.52
2007	327,984	26.41	209,250	3.96	243,300	4.83	552,800	5.02	468,240	1.20
2008	328,250	0.08	217,602	3.99	260,000	6.86	581,000	5.10	420,000	-10.30
2009	330,250	0.61	226,307	4.00	273,000	5.00	612,600	5.44	472,320	12.46
2010	325,000	-1.59	234,000	3.40	286,000	4.76	623,400	1.76	495,800	4.97
2011	383,500	18.00	243,000	3.85	300,000	4.90	636,000	2.02	563,000	13.55
2012	390,000	1.69	248,850	2.41	290,000	-3.33	640,000	0.63	566,000	0.53
'04' 12 증감률	-	20.59	-	33.67	-	37.44	-	34.45	-	33.81

주 1: 주요 축산물의 2013년 자료는 파악되지 않아 '04' 12 증감률 수치를 대신 사용하였으며, 쇠고기에는 '버팔로(Buffalo)' 종 이 포함되었다.

주 2: 알류는 일반적으로 조류의 알을 말하며, 우리가 먹는 알로는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이 있다.

자료: <http://knoema.com/atlas/Nigeria/topics/Agriculture>.

이러한 생산량의 증가는 주로 인구 및 도시화의 증가, 도시 거주자의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베이컨,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도 생산되고 있으며 점차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3. 수출입 동향

나이지리아는 몇몇 주요 품목에 있어 식량 순수입국으로, 해당 품목에는 밀, 쌀, 설탕, 수산물, 우유 등이 있다. 주요 수입 품목에 따른 수입국에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가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표 5 식품별 주요 수입국

식품	주요 수입국
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쌀	미국, 태국, 인도, 시리아, 브라질
수산물	아이슬란드, UAE, 노르웨이, 중국, 칠레
설탕	브라질,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유제품	네덜란드, 미국,

자료: Olusoji et al.(2014).

지난 20여 년간(1990~2011) 수입한 식품은 하루 평균 928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무역수지에 있어 흑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의 5배 수준

표 6 2014년 주요 수출입 작물 현황

단위: 천 톤

순위	수출		수입	
		물량		물량
1	밀(wheat)	600	밀(wheat)	4,750
2	분말당(centrifugal sugar)	200	백미(milled rice)	3,500
3	옥수수(corn)	100	분말당(centrifugal sugar)	1,470
4	면화(cotton)	85	팜유(palm oil)	525
5	팜핵박(palm kernel meal)	75	옥수수(corn)	200

주 1: 설탕을 제조법상으로 나누는 경우 분말당과 함밀당으로 대별하는데, 원심분리기 등을 사용하여 모액을 원심하여 설탕 결정물을 취한 것을 분말당이라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주 2: 팜핵박은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견과(堅果)의 핵에서 추출된 기름을 짜내고 남은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자료: <http://www.indexmundi.com/agri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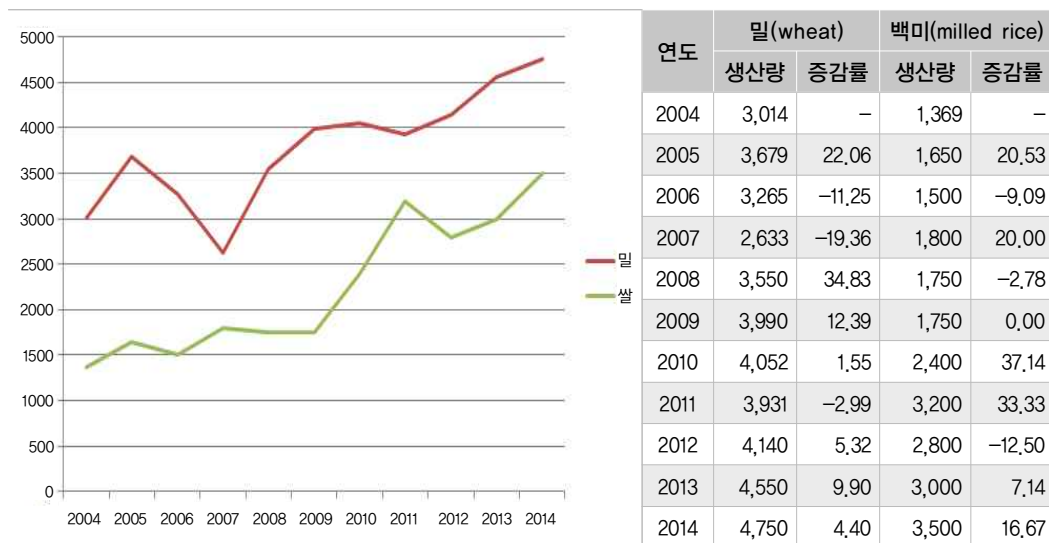
에 달하는 것과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축수산 부문을 제외한 주요 식량 작물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 좀 더 다루어 보고자 한다.

나이지리아는 농업하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 6>을 보면 주요 식량 작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밀은 20014년 기준으로 수입량뿐만 아니라 수출량도 가장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입 물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밀과 백미의 2004~2014년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들 두 품목의 연평균 증감률은 각각 4.7%, 9.8% 수준으로 그 수입량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밀과 쌀의 수요와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 밀의 수입이 많은 것은 빵, 국수, 파스타, 크래커나 비스킷 등 밀을 원료로 한 식품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림 3 2004~2014년 밀과 쌀의 수입량 추세

단위: 천 톤, %



자료: <http://www.indexmundi.com/agriculture/>

3. 농업의 문제점 및 최근 주요 정책

3.1. 문제점

크게 두 가지를 들면, 우선 국가적인 식량 안보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 자료에 따

르면 국가가 전략적 곡물 보유량(reserve capacity)을 2008년 20만 톤에서 2012년 1백만 톤으로 늘렸다. 그러나 2012년 국가가 실제로 보유한 양은 10만 톤에도 조금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 중 4만 톤은 2012년 홍수로 인해 방출하였고, 다른 2만 톤은 2013년 보코 하람(Boko Haram)¹²⁾ 폭동이 일어난 북서부 지역의 3개 주에 긴급 방출하였다. 결국 이것은 2014년 35,500톤 정도의 국가 식량 및 곡물 보유량을 남겼는데, 이는 당초 설비용량(installed capacity)의 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 생산성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식량수입국으로서의 지위는 농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관련이 높는데, ha당 생산량은 여타 개발 도상국가들의 20~5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농업 부문에 있어서 낮은 생산성은 근대화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평한다.

첫째, 낮은 농업 생산성은 불충분한 물 관리 및 관개 시설, 낮은 기계화 보급률과 비료 사용률 등의 기술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공식적으로 추정되는 관개 이용면적은 약 22만 ha로 전체 이용 가능한 관개 면적(200~250만 ha)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외에 <표 7>은 나이지리아의 주요 식량 수입국과의 투입 요소 중심의 생산 여건을 비교한 것이다. 토양 특성과 비료의 사용량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나이지리아의 단위면적당 평균 비료 사용량(2.2kg/ha)은 단위면적당 모두 100kg 이상 사용하는 주요 식량 수입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농업 생산성 증가에 있어 낮은 비료 사용률은 큰 제약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7 투입 요소 중심의 생산여건 비교

구 분	나이지리아	미국	태국	인도	브라질
트랙터보유대수 / 1만 ha	6.56	272.81	—	186.9	172.51
비료 사용량(kg/ha)	2.12	109.45	118.94	167.21	125.05
농가 평균 재배면적(ha)	0.75	180	3.6	1.33	73.1

자료: Olusoji et al.(2014).

둘째, 빈곤(poverty)이라는 요인으로 이것은 식량의 불안정, 낮은 생산성, 그리고 생산투입요소 증대에 대한 농업인의 무능력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성장률이 연간 3%에 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빈곤층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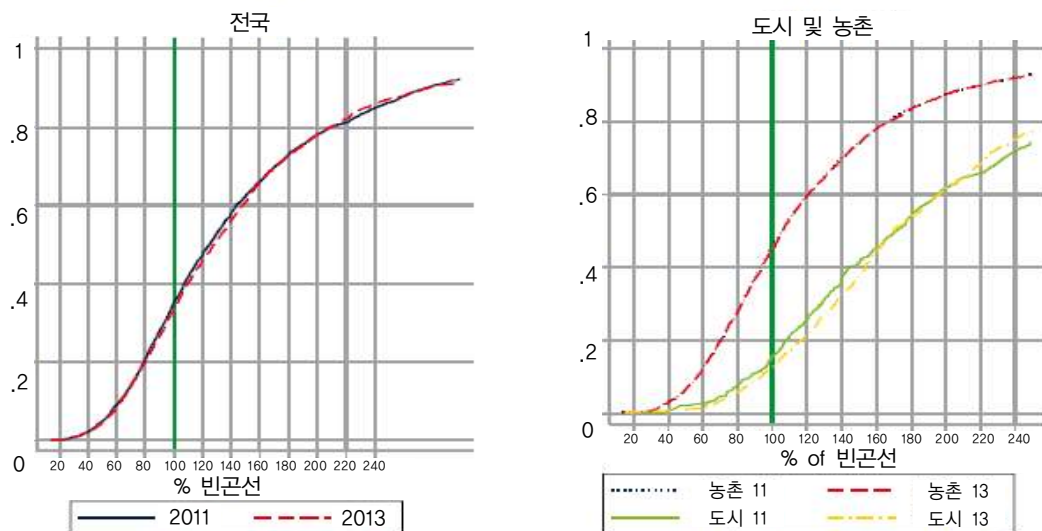
12) 전도와 지하드를 위해 선지자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사람들(Jama'atu Ahlis Sunna Lidda'Awati Wal-Jihad), 속칭 보코 하람(Boko Haram)은 2001년 결성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이다(위키백과 참고).

당되는 수치는 2010/2011년, 2012/2013년 모두 약 5,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빈곤층 비중은 특별히 농촌 지역에서 심한 편으로 농가의 약 80%는 최저 생계를 이어가는 소농으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4>는 생계 수준의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분포도는 2010/2011년과 2012/2013년이 매우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먼저 분포도의 가로축은 빈곤선의 비율로 측정된 소비 수준을 나타낸다. 반대로 세로축은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라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생계) 수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나라 전체를 볼 때 인구의 약 58%가 빈곤선 140%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는데, 특히 농촌 지역은 70%에 이른다. 반대로 도시지역은 30% 수준으로 2010/2011년 대비 2012/2013년에 조금 향상되었다. 빈곤선 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구매력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¹³⁾로 변환시키면, 빈곤선 140%는 하루 생계비 2달러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빈곤선(poverty line)에서 떨어진 정도



주 1: 빈곤선(poverty line)이란 요약하면 육체적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말한다. 생존에 필요한 최저 소득으로 보는 절대개념과 필요한 의, 식, 주 및 오락, 교육 등 기본수요 충족으로 보는 상대개념이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이 빈곤선을 하루 1.25달러 혹은 2달러로 정의하고 있다.

주 2: 위는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일반가구조사(General Household Survey, GHS)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자료: World Bank(2014).

13) 화폐의 구매력으로 GDP를 조정하여 상대적 실제구매력을 나타낸 것으로,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기준국가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비교국가의 화폐단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햄버거를 미국에서 2달러에 살 수 있고, 한국에서 2500원에 살 수 있다면 1달러당 1,250원(2,500원 2달러)이 되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셋째, 여성의 농업 활동 제한이다. 여성이 나이지리아의 수많은 지역에서 농업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농지 이용에 있어 제한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순회교육(extension service)과 용자 이용에 대한 권리도 낮다. 여성의 농업 활동 참여도는 종교에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푼투아(Funtua) 지역과 같이 무슬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그러한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언급한 제약 조건들은 농지 활용도를 낮춤으로서 낮은 생산성을 유발하게 된다.

마지막은 농업 연구 분야의 투자 감소이다. 예산 감축 문제로 농업 부문(특히 연구 분야)에 투자하는 낮은 공공 예산은 농업 생산성 증가율을 더디게 한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태만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 할당의 꾸준한 감소는 처음부터 개발을 방해하여 왔다는 증거처럼 간주되기도 한다.

표 8 2011~2014년 국가 총 예산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나이라(NGN)

	국가 예산(조)	농업부문 예산(십억)	농업부문 비중
2011	4.07	81.2	2.0
2012	4.69	78.9	1.7
2013	4.92	81.4	1.7
2014	4.6	66.6	1.4

주: KEB 외환은행 제공자료(2015.01.08.) 기준의 나이지리아 환율은 1나이라(NGN)당 5.89원이다.

자료: <http://www.opinionnigeria.com/2014-national-budget-the-wane-in-agricultural-sector-budget-allocation-in-nigeria/>

3.2. 시행 중인 정책

이 절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주요정책 농업개발아젠다(ATA)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2011년, ATA는 5개 주요 작목(쌀, 카사바, 수수, 코코아, 면화)의 생산량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량 수입을 크게 줄이고자 시행되었다. ATA 하에 농업은 어떠한 발전 프로젝트가 아닌,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농업부문에 투자를 촉진시키고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의 하위부문(sub-sector)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시정하고 있다.

ATA의 주요 목표는 연간 국내 식량 공급량에 2,000만 톤을 추가하고, 2015년까지 3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농업 성장을 위해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시도로 볼 수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쌀과 카사바 부문의 일

자리 목표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 두 품목을 합하면 60%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량이 많은 쌀과 밀에 대해 경쟁력 있는 자국 산업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연방정부 ATA 프로그램의 품목 및 부문별 목표 일자리 수

품목	생산 부문	가공 부문	합계 및 비중	
쌀	881,000	161,000	1,042,000	29.5
카사바	693,000	507,000	1,200,000	34.0
옥수수	300,000	300,000	600,000	17.0
코코아	390,000	42,000	432,000	12.2
면화	125,000	22,000	147,000	4.2
수수	90,000	18,000	108,000	3.1
합계	2,479,000	1,050,000	3,529,000	100.0

주: 품목은 농작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쇠고기, 가금류 및 수산물 등은 제외하였다.
자료: Olusoji et al.(2014).

ATA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무수한 수입대체(import-substitution)¹⁴⁾ 방안을 도입하였다. 그 중 한 목표는 카사바 분말을 밀가루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2012년의 카사바 분말 함유량 10%를 시작으로 2015년에 함유량 40%를 달성시키기 위해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다. 연방농업농촌개발부(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MARD)는 가공식품에 있어 카사바 활용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른 정책 목표는 쌀 수입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5년까지 쌀을 자급자족하고 자 국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다. 2013년 정부는 2015년부터 효과적으로 쌀 수입을 금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TA 프로그램의 영향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년 사이에 9백만 톤의 식량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였으며, 동시에 수입은 53억 달러 가량 줄었다. 농업 부문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 수는 270만 개로서 전체 목표치의 77% 수준에 달하였다.

세부적으로 주요 수입 품목과 관련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카사바의 경우 전체적인 가치사슬이 변화하고 있는데, 코기(Kogi) 주에서는 카사바 녹말을 생산하는 반면 수입은 줄이기 위해 카길(Cargill)사가 15,000ha 가량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다. 크와

14) 수입 감소 또는 역제를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생산용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보통 국내 고용증가와 경상수지(current account) 적자 감소를 동시에 기대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라(Kwara) 주에서는 설탕 수입을 줄이기 위해 'Flour Mills of Nigeria'사가 카사바 녹말을 감미료로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밀의 경우 최근 열대 기후에 강한 밀을 출시하였는데, 이 품종의 ha당 생산량은 5~6톤 수준으로 이전에 비해 5~6배 많은 수준이다. 2013~2015년 동안 이러한 새 품종이 북부의 45만 ha의 밀 생산 지대에서 재배될 것이며, 최소한 250만 톤의 밀을 더 생산하여 2015년까지 밀 수입량을 50% 감축시키고자 한다.

쌀의 경우 주로 수입되는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¹⁵⁾의 제조 조건에 우수한 FARO 44와 FARO 52와 같은 장립종(long grained varieties)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오늘날 농업인들은 우기에는 이 품종을 50%정도 이용하며, 건기에는 100% 모두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ATA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는 생산투입요소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이 보다 용이하게 투입요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3ha 미만의 경지면적을 가진 소농의 경우 고품질의 비료 두 포대에 한해 50%를 보조받게 된다. 시행 첫 해인 2012년에 120만 명의 소작농이, 그리고 2013년에는 450만 명의 농업인이 전자지갑(e-wallet) 바우처로 필요한 투입 요소를 구매하였다. 한편 초창기 2년(2012~2013년) 동안 농업인에게 제공된 비료와 개량된 종자는 각각 75만 톤과 5만 5,000톤에 달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입요소로 인해 증가된 작물 생산량은 1,550만 톤에 이르렀다.

끝으로 금융개혁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농업인이 생산적 자산을 마련하고 소득원을 다양화하며 회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Nigeria, CBN)은 농업인과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에 대한 대출의 위험을 줄이고자 3억5천만 달러를 들여 '농업투자 위험분산 촉진시스템'(Nigeria Incentive-based Risk Sharing System for Agricultural Lending, NIRSAL)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은행이 농업 부문에 35억 달러를 대출 가능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이 안고 있는 이자율의 부담은 18%에서 8%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역시 농협(Bank of Agriculture, BOA)¹⁶⁾이 농업인들에게 두 자리 수 이자율에서 한 자리 수 이자율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자본 구성을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

15) 벼를 물에 담갔다가 가볍게 찢고 건조시킨 후에 벼를 도정한 쌀. 파보일링은 도정 중에 쌀이 잘 부서지지 않고 정미의 병충해 방지,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뿐 아니라 처리 중에 쌀겨의 비타민 B군이 내부로 이동하여 비타민 함량이 높은 쌀이 얻어지므로 그 영양적 의의가 인정되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16) BOA는 나이지리아 제 1의 농업 및 농촌개발 금융 기관이며, 100% 정부 소유이다. 소유권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40%, 연방 재무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 FAF)가 60%를 차지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이지리아 경제에서 농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광대한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율도 70%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국민의 상당 비율은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들 중 대다수는 농업인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빈곤 감소와 나이지리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에 농업 부문에 특별히 정책적인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뿐 아니라 몇몇 주요 품목에 있어서 식량 순수입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는 농산물 원재료를 가공식품이나 포장식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음을 시사한다. 국민의 평균적인 구매력은 낮으나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소득 중 식품과 음료에 소비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63.5%에 이르며, 전체 인구 중 부유층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기에 식품 가공과 포장에 대한 여건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이지리아는 농업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식량 수입 지출액을 줄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농업개발아젠다(ATA)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ATA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인에게 비료와 개량된 종자를 제공하는 시도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시행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모든 지원 기반시설이 매우 불충분하여 아직은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실정이기에,¹⁷⁾ 아직은 정부가 좀 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정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수출하기 이전에 국내 식품 생산에 충분하도록 공급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에 가치를 부가하여 더 나은 수출 가격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 가공산업을 통해 주요 농산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할 때,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 대규모의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대체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미 동중 및 제조품 관련하여 자국 내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구축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17) 나이지리아 농업 및 농촌개발부 장관인 아킨무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장관은 2013년 10월 콜럼비아 대학 지구연구소의 '농업 및 식량안보 부서' 개설 기념일에, 정부가 지원하는 비료와 개량된 종자 등이 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농업인들에게 분배되어 농업인의 11% 미만만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http://agriculture.columbia.edu>).

인하여 처음에는 국내 생산자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 이러한 정책은 자국 내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¹⁸⁾를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나이지리아 농산품에 대해 잠재력 있는 시장임을 인식하게 된다면, 국내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 시설을 설비하도록 꺾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지역의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AFDB). 2013. Federal Republic of Nigeria Country Strategy AFDB.
- Af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AJAR). 2010. *Cereal Production in Nigeria: Problems,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 for Betterment*. AJAR.
- Asian Research Publishing Network(ARPN). 2014. *Contribution of Root and Tuber Crops in the 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da in Nigeria*. ARPN.
- Asian Research Publishing Network(ARPN). 2010. *A review on Root and Tuber Crop Production and Their Weed Management Among Small Scale Farmers in Nigeria*. ARPN.
- European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EJSD). 2012. *Food Security in Nigeria: An Overview*. EJSD.
- European Scientific Journal. 2014. *The Role of Agricultur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igeria*. European Scientific Journal.
- Federal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FMARD). 2014. *National Agricultural Resilience Framework*. FMARD.
- Global Researchers Journals(GRJ). 2014. *Efficiency and Livestock Production in Oyo State of Nigeria*. GRJ.
- Growafrica. 2014. *Agricultural partnerships take root across Africa(2013-2014)*. Growafrica.
-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IFPRI). 2009. *Constraints to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Nigeria: A Review*. IFPRI.
-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Policy. 2014. *The Impact of Rice Production, Consumption, and Importation in Nigeria: Th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 World Policy.
-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IJECM). 2014. *An Analysis of Nigeria Food Imports and Bills*. IJECM.
- Inter-réseaux Développement rural. 2011. *Staple crop production and consumption : Nigeria on the way to food self-sufficiency*. Inter-réseaux Développement rural.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NBS). Yam Consumption and Production in Nigeria. NBS.

18)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OECD. 2014. *African Economic Outlook : Nigeria 2014*. OECD.
The World Bank. 2014. *Nigeria Economic Report*. The world Bank.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2014. *Nigeria, Grain and Feed Annual Report 2014*.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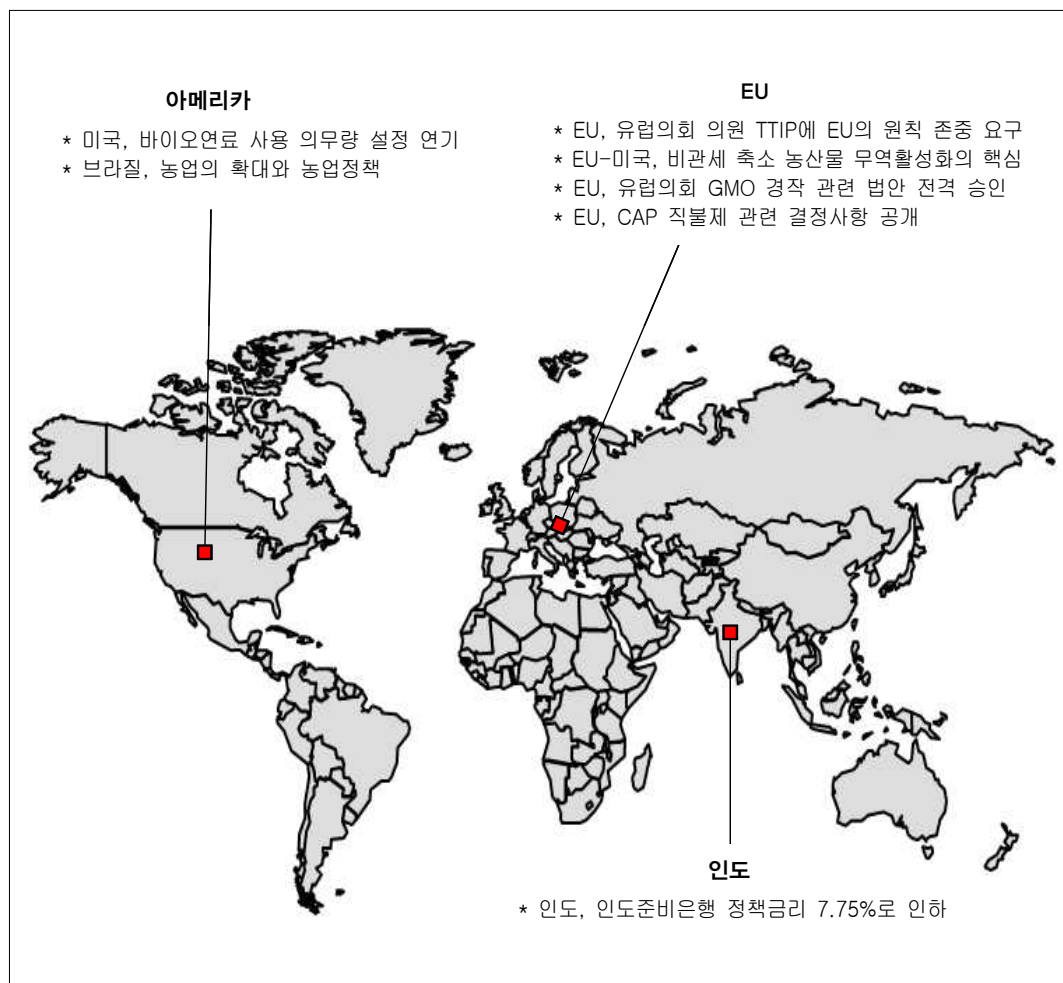
참고사이트

구글 (<https://www.google.co.kr/images>)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bricsinfo.org/me-africa/national_report/nigeria.do)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decono/201404/e2014040718130169760.htm>)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103030001>)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엔하위키 미러 (<https://mirror.enh.kr/wiki/%EB%82%98%EC%9D%B4%EC%A7%80%EB%A6%AC%EC%95%84>)
올아프리카 (<http://allafrica.com/stories/201310090523.html>)
위키백과 (<http://en.wikipedia.org/wiki/>, www.ko.wikipedia.org)
한국경제 (<http://m.hankyung.com/apps/news.view?category=general&aid=2014040764401>)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07000480&md=20140409004651_BL)
<http://agriculture.columbia.edu/events/past-events/inaugural-seminar-the-nexus-of-agriculture-environment-and-livelihoods/transforming-nigerias-agriculture/>
http://ag4impact.org/wp-content/uploads/2014/07/MP_Report_2014.pdf
<http://knoema.com/atlas/Nigeria/topics/Agriculture>
<http://www.foodbycountry.com/Kazakhstan-to-South-Africa/Nigeria.html>
<http://www.opinionnigeria.com/2014-national-budget-the-wane-in-agricultural-sector-budget-allocation-in-nigeria/>
<http://www.weekendpeoplesdailyng.com/index.php/business/agriculture/1155-nigeria-s-53-years-of-stunted-growth-in-agriculture>
<http://www.worldpackagingnews.com/2013/01/why-is-nigeria-a-net-food-importer/>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EU, CAP 직불제 관련 결정사항 공개
2. EU, 유럽의회 의원 TTIP에 EU의 원칙 존중 요구
3. EU-미국, 비관세 축소 농산물 무역활성화의 핵심
4. EU, 유럽의회 GMO 경작 관련 법안 전격 승인
5. 미국,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량 설정 연기
6. 브라질, 농업의 확대와 농업정책
7. 인도, 인도준비은행 정책금리 7.75%로 인하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5. 2)



EU, CAP 직불제 관련 결정사항 공개

□ EU집행위원회, CAP 직불제 개정안 관련 EU회원국들의 결정사항 공개

- EU집행위원회가 2015-2020년 CAP 직불제 개정안의 이행에 대한 EU회원국들의 결정사항을 공개함.
 - 공개내용에는 녹색화(greening) 및 동조화지원(coupled aid)에 대한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결정사항들은 균일요율지불제(flat rate payment)를 지향하고 있음.
- 커플링 지원은 제1축(pillar one) 직불금 총 예산의 10%를 차지함.
 - 반면 녹색화 사업에 대해서는 5개국만이 '동등성 제도'(equivalence scheme)를 적용할 예정임.
- 대부분의 오래된 회원국들은 2020년까지 국가별, 지역별 균일 요율 지원을 적용할 예정임.
 - 또한 2015-2020년에는 제 1축에서 2축으로 30억 유로를 조금 넘는 농촌개발 분야의 자금이 이전될 예정임.
- 결정사항들은 1월 29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EU집행위원회의 농업 및 농업발전집행총국(DG Agri)이 발표했다.
 - DG Agri는 회원국들의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개정안의 시행에 대한 큰 그림을 잠정적으로 제시함. 농업발전집행총국은 조만간 제1축의 이행 결정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임.
 - 대부분의 결정사항들은 8월 1일이 제출기한이었지만 녹색화 사업의 두 가지 요건(생태학적중점지역(Ecological Focus Areas, EFAs), 영구초지(permanent grasslands))에 대한 사항들은 각각 10월 1일과 12월 15일까지가 제출기한이었음.
- 아그라유럽(Agra Europe)은 각국 정부 및 농업인 연합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하여 2015년 이후의 제1축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음.

❑ 축(pillar)간 자금 이전

- 축 간 자금 이전에 대해서 농업발전집행총국은 2015-2020년에 제1축에서 제2축으로의 순(純)이전 자금액이 30억 유로를 조금 넘을 것이라고 밝힘.
 - 2014년에 이미 이전은 허용되었고 2017년 이후에 국가들은 이전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음.
- 2015-2020년에는 11개의 회원국들이 제1축으로부터 제2축으로 자금을 이전할 것이고 총 금액은 63억 8,300만 유로에 달함.
 - 제1축에서 제2축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11개 회원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체코, 그리스, 루마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임.
- 반면 5개국(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몰타)은 제2축에서 제1축으로 자금을 이전할 계획임.
 - 폴란드는 제1축에서 지원율이 낮았던 국가에게 허용되는 최대치인 25%를 이전할 계획임. 슬로바키아는 21.3%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15%만이 허용됨.
 - 제1축에서 제2축으로의 이전은 모든 국가들에 대해 15%만이 허용됨.

❑ 동조화지원제도(coupled aid)

- 2015-2020년에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이 다양한 부문에 대해 동조화지원제도를 적용함.
 - 2010-2014년의 커플링 지원금 사용 내역에 따라 회원국들은 동조화지원제도에 대해 제 1축 예산의 최대 8%, 혹은 최대 13%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EU집행위원회의 허가가 있을 경우 13% 이상도 사용 가능함.
 - 모든 국가들은 단백질 작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금의 2%를 사용할 수 있음.
 - 8% 이하의 비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9개 국으로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이 있음.
 - 11개의 회원국은 13%를 적용할 것이며 그 중 9개국은 단백질 작물에 대해 추가적인 2%를 사용할 것임.
 - 4개 회원국에게는 특별한도를 적용함. 벨기에는 제1축 커플링 지원금의 17%, 핀란드는 20%, 포르투갈은 21%, 그리고 몰타는 57%를 사용할 수 있음.

- 동조화지원제도는 남은 기간 동안의 제1축 총 직불금 중 약 10%를 차지함.
 - 동조화지원제도의 지원 분야 가운데 총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2%가 쇠고기 부문임. 24개국이 쇠고기에 대해 동조화지원을 실시하며 총 금액은 17억 유로 이상임.
 - 우유 및 유제품은 20%를 차지하며 18개국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총 예산은 8억 유로임. 다음으로 양고기와 염소고기는 12%를 차지하며, 22개국이 채택하여 약 5억 유로의 예산이 편성됨.
 - 다음으로는 단백질 작물이 11%로, 16개국이 적용하며 과일 및 채소류가 5%(19개국), 사탕무가 4%(10개국), 그리고 곡물류와 올리브유가 각각 2%, 쌀이 1% 순임.

□ 녹색화(greening) 제도

- 새로운 녹색화 사업 요건들에 있어서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및 아일랜드 5개국이 생태학적중점지역(EFAs)이나 영구초지(permanent grassland)에 대해 ‘동등성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 8개국은 초기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폴란드와 아일랜드는 제2축의 농촌 발전 사업을 통해,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인증 제도를 통해 ‘동등성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동등성 제도’를 승인해야하며 이 다섯 국가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결정을 내려야 함.
 -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벨기에는 지역 단위에서 영구초지 요건을 적용할 계획임.
 -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생태학적중점지역 제도를 전체적 또는 지역별로 적용할 예정임.
- 각 회원국들이 생태학적중점지역 선정 요건으로 제시하는 특정 작물이나 특성, 지역적 특징에서 27개국이 공통적으로 질소고정작물을 채택함.
 - 26개국은 휴경지를, 23개국은 풍경 요소(예를 들어 초목이나 초지의 가장자리, 산울타리, 연못, 도랑 등)를 요건으로 채택함.
 - 21개국은 단벌기맹아림(Short Rotation Coppice, SRC), 20개국은 포착작물(catch crops), 19개국은 완충대(buffer strip) 및 숲 가장자리의 식생(strips on forest edges), 13개국은 조림지, 12개국은 혼농임업(agroforestry), 그리고 8개국은 계단식 논(밭)을 채택함.

-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는 녹색화 요건들에서 산림면제(forest exemption)를 사용할 계획임.

□ 내부통합

- 2015-2019년의 기간 동안 모든 회원국들은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균일적인 지역 기반의 지불제를 지향하여야 함. 회원국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제도의 완전한 균일화(내부통합(internal convergence))를 달성할 수도 있음.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지역 등 일부 국가들은 2019년에 완전한 국가적 혹은 지역적 균일화를 달성하기로 함.
 - 반면 스웨덴은 2020년에 균일요율지원제를 도입할 계획임.

□ 누감제 · 재분배적 지불제

- 누감제(累減制, degressivity) : 2015년부터 15만 유로가 넘는 모든 기초 직불 금액에 대해 최소 5%의 세금이 부과됨.
 - 세수로 인한 자금은 각 국의 제2측 예산으로 이전되며 각 회원국은 원한다면 이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할 수도 있음. 단, 각 회원국은 재분배적 지불제를 채택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누감제를 적용해야 함.
 - 15개의 회원국들은 15만 유로가 넘는 지원금에 대해 최소한인 5%의 세금만 적용 할 예정임. 9개국은 지원금에 대해 일정 수준에서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그 범위는 15만 유로에서 60만 유로로 다양함.
 - 9개국은 지원 금액에서 농가 노동자들의 급여를 제하고 나서 누감제를 적용함.
 - 농업발전집행총국(DG Agri)에 따르면 역진제로 인한 총 세금은 연간 1억1,200만 유로이며 이는 제 2측 예산으로 편입됨. 이는 제 1측의 연간 예산인 400억 유로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임.
- 재분배적 지불제도(Redistributive payment): 제1측 예산 중 최소 5%를 유보하고 있다가 모든 지원 대상 농가의 최초 1헥타르에 대해서 재분배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하는 것임.
 -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프랑스,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8개국은 재분배적 지불제를 적용함. 이들 중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누감제 또한 적용함.

□ 소규모농가지원제도(Small Farmer Scheme, SFS)

- 15개국은 추가적으로 소규모농가지원제도를 적용하기로 함.
 - 이 제도는 지원 금액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 수혜 농가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새로운 지원 방식임.
 - 소규모 농가 지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는 벨기에, 체코공화국,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키프로스,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그리고 영국임.
 - 농업발전집행총국(DG Agri)의 직불제 책임자(Pierre Bascou)는 15개국만이 동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냄.

□ 활동농업인(Active Farmer), 소외지역 지원 제도(LFA aid)

- 새로운 활동농업인 규정 중 CAP 지원금의 ‘지원 대상 단체 유형’의 명단에 대해서 8개의 회원국(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은 ‘지원 거부 유형’을 추가함.
 - 덴마크만이 소외지역(Less-Favoured Area, LFA)의 농업인에 대한 추가 지불 지원제도(top-up subsidy)를 채택하기로 함. 그리고 이 ‘소외지역(LFA)’이라는 용어는 2018년까지 ‘자연적 제약 및 기타 제약이 있는 지역(areas facing natural or other constraints)’으로 바뀌며 기준도 개정될 계획임.
- 농업발전집행총국(DG Agri)에 따르면 2015-2020년에는 녹색화 지원금이 제1축 총지출액의 30%를 차지 할 것임. 또한 상기의 다양한 목표 정책들이 적용된다면 기본지불제(Basic Payment Scheme) 또는 단일지역지불제(Single Area Payment Scheme) 등의 기본지불제도가 총액의 55%를 차지할 것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1.30)

EU, 유럽의회 의원 TTIP에 EU의 원칙 존중 요구

□ 유럽의회 조사위원, TTIP에 EU의 기본 원칙과 가치 존중 및 인정 요청

- 유럽연합의 조사위원(Berndt Lange)은 EU와 미국 간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에서 유럽 농업부문의 민감성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같은 기본 가치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것을 요청함.
 -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 소속이자 사회당그룹(Socialists and Democrats, S&D) 소속의 독일인 의원(Lange)은 EU집행위원회에 대한 의회의 TTIP 관련 권고사항 초안 보고에 앞서 ‘작업 문서(working document)’를 발표함.
 - Lange는 문서에서 EU와 미국 양측이 농업분야의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상당하다고 경고하며 소비자 건강 측면이나 유전자변형식품, 호르몬 가공 육류(hormone-treated meat)등의 예를 듦.
- 또한 최근에 타결된 EU-캐나다간 무역 협정은 식품 안전의 기준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간 협상에서도 균형적이면서 상호 유익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함.
 - EU와 캐나다의 협상단은 EU의 치즈와 캐나다의 육류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나서 2013년 10월에 협상안을 타결함.
 - 캐나다는 EU의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GI)가 적용된 농식품들을 인정하고 보호하기로 함. 하지만 합의안은 아직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그리고 캐나다 각 주(州)들의 비준을 받아야 함.
 - EU와 미국 협상단은 지금까지 7차에 걸쳐 TTIP 공식회담을 개최하였고 2월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차기 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 지난 주 EU집행위원회는 협상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EU와 미국 간의 협상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첫 번째 제안문 및 기타 여러 문서들을 발표함.

□ 농산물 ‘동일하게 중요’

- 유럽연합의 조사위원(Berndt Lange)은 농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은 다른 기타 분

야들과 마찬가지로 중요(equally important)하다며 여러 제안사항들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많은 이들이 다른 분야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EU의 농업 분야가 많은 손실을 입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그는 분야별 제안사항들 사이에 균형을 강조함.
- EU집행위원회 협상단에 대한 유럽의회의 권고사항을 작성할 예정인 Lange 의원은 여러 분야의 시장 접근성 관련 제안사항들이 동일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양 측의 기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규제 융합 제안서

○ 규제 융합(Regulatory Convergence)에 대한 EU의 제안서는 2월에 미국 협상단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이며 EU정부는 협상 과정에서의 문서를 협상 직후에 공개하기로 약속함.

- Lange 의원에 따르면 규제 협력과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무역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TTIP상에는 EU의 현재 보호 수준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 식품 안전 및 동식물 보건 규정에 대해 Lange 의원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조치)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양 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그는 EU의 사전예방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GMO와 다른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EU의 입장을 분명히 함.
- EU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원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적용이라고 비판해 왔음. 심지어 어떤 이해관계자들은 그런 원칙이 적절히 적용되면 혁신을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을 장려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함.

□ TTIP ‘디딤돌’ 역할 강조

○ Lange 의원은 WTO에서의 긍정적인 국면을 바탕으로 TTIP가 보다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위한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그는 TTIP와 같은 쌍방 간 협상은 다자간 협상에 대한 차선택일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함. 따라서 TTIP가 WTO에서의 협상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보다 광범위한 무역 협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최근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의 TTIP 담당 의원은 협상이 이미 EU집행위원회의 식품안전 및 기후 보호에 대한 제안사항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함.

□ 영국 의회, TTIP에 대한 자체적 조사 착수

○ 반면 영국 의회는 TTIP가 EU의 GMO나 농약 사용 관련 규제를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함.

- 조사는 영국 환경감시위원회(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EAC)에 의해 1월 9일에 시작되었음. 이해관계자들은 1월 21일까지를 기한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환경감시위원회의 의장이면서 하원의원인 Joan Walley는 대서양을 거치는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 되는 것은 영국에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식품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을 지키는 규정들을 맞교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1.16)

EU-미국, 비관세 축소 농산물 무역활성화의 핵심

□ EU-미국, 비관세조치 축소 무역활성화 효과적

- 유럽 의회의 농업·농촌개발 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omAgri)의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EU와 미국 간 무역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25% 축소 시 EU의 미국 농산품 수입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수출량은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반면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이익은 '매우 근소'할 것으로 예상됨
- 'EU-미국 간 무역 협정으로 인한 EU 농식품 분야의 위험요소와 발전 가능성'(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EU Agri-Food Sector in a Possible EU-US Trade Agreement)이라는 제목의 본 연구는 유럽 농식품 부문에 대한 TTIP의 잠재적 영향을 국제 무역 일반균형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연구에 따르면 TTIP로 인해 2025년까지 EU의 대미 농식품 수출이 60% 증가하며, 수입은 1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U와 미국 사이의 전체적인 무역량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EU와 미국의 협상단은 지금까지 7차례의 TTIP 공식 회담을 개최했고 다음 회담은 2월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임.
- 연구는 현재 EU와 미국 간 교역에서 농업 부문은 공업 부문에 비해 양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다고 분석함.
 - 현재 EU의 농식품 수입량 중 약 8%만이 미국산이며 미국으로의 수출량은 EU 농식품 총 수출량의 약 13% 정도임.
 - 1999년까지는 EU가 미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2년에는 약 6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음. 1992년부터 EU의 가공농산물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부진했음.

□ 비관세조치 제거 효과

- 연구는 농식품의 범대서양 무역이 현재 무역장벽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각종 비관세조치들(Non-Tariff Measures, NTMs)은 EU의 대미 수입과 수출에 대해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함.
 - 연구는 국경 간 비관세장벽이 25% 축소되고 관세 보호의 완전 철폐가 이루어진다면 유럽 붉은 고기(red meat)¹⁾의 대미 수출이 약 404%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함.
 - 이외에도 설탕 수출은 297%, 흰살 고기(white meat)²⁾의 수출은 289%, 유제품 수출은 24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EU의 미국 제품 수입 증가 또한 동일한 산업에서 발생하지만 그 증가 효과는 수출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의 25% 축소로 인해 상호 무역량은 크게 증가하지만 농산물의 부가가치에 대한 효과는 미미함.
 - EU는 0.5% 감소, 미국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반면 관세의 제거로 인한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작년 2월에 EU는 관세 철폐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고 이것은 미국의 제안보다 훨씬 더 야심찬 내용이었음.

□ 유제품은 이익, 쇠고기는 손에 예상

- 연구에 따르면 TTIP하에서 EU가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은 유제품 부문임.
 - 와인이나 증류주 등 가공제품에서의 이익도 있을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설탕이나 바이오디젤 등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일부 EU의 부문들은 미국과의 무역이 자유화되면 심각한 경쟁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특히 EU의 쇠고기 부문이 그러함. 또한 TTIP로 인해 수유용 암소(suckler cows) 산업에서는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에탄올, 가금육 및 곡물류(옥수수과 저품질 밀) 또한 수입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1) 소·양·돼지고기 등 살이 붉은 고기.

2) 닭·토끼·송아지 등 살이 흰 고기의 총칭.

□ 무역자유화에 규제 융합 필요

- 연구에 따르면 규제 융합 없이 무역이 자유화되면 EU 몇몇 부문의 생산자들은 부정적인 경쟁 효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함.
 - 미국의 생산자들에 비해 EU의 생산자들은 보다 엄격한 EU의 규제를 준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임.
 - 이 차이는 GMO와 농약사용에 대한 EU의 규제, 육류 부문에서 식품안전 조치 등에 관련해서 특히 두드러짐.
 - 반면에 만약 규제가 동일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하향평준화의 위험성이 있음.
- 규제 융합으로 인한 식품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영향이 과장되어서는 안 됨. 하지만 규제 융합으로 인해 EU규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연구진들은 이로 인해 현재 EU 규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전통적인 예방 및 위험관리 정책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각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농식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름으로 인해 농산물 무역 정책에 관한 TTIP 협상과정에서 각 나라별 민감도가 균일하지 않다고 지적함.

□ 유럽의회 의원들, EU 농업부문의 특성에 대한 존중 요구

- 최근 유럽 의회의 조사위원(Berndt Lange) 등 몇몇 유명 의원들은 TTIP에 대한 견해를 밝힘.
 - 이들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EU 농업 부문의 특징인 민감성과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같은 기본적 원칙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 다른 의원은 TTIP 협상 과정이 이미 집행위원회의 식품안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활동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집행위원회는 최근 EU와 미국 간의 협상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EU의 첫 번째 제안 문서를 공개했으며 기타 관련 문서들도 공개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1.23)

EU, 유럽의회 GMO 경작 관련 법안 전격 승인

□ 유럽의회, 각 회원국에서 GMO 경작 인정 법안 승인

- 유럽의회 의원들은 1월 13일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총회에서 찬성 480표, 반대 159표, 기권 58표의 큰 격차로 금변 법안을 승인하였음.
 - 동 법안은 지난해 12월, 의회와 이사회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안건임.
 -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ComEnvi)는 지난 12월 중순 동 법안에 찬성투표를 했음. 현재 이사회 소속 각 국 정부가 정식으로 비준하는 절차를 기다리고 있음.
 - 법안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초기 제안은 2010년에 이루어졌지만 이사회에서 4년간 교착상태로 남아 있었고, 회원국들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었음. 하지만 다우·듀퐁(Dow·DuPont)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1507' 경작 신청을 놓고 벌어진 논쟁으로 인해 새로운 법률에 대한 합의를 논의하게 되었음.
- 금변 법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평가를 거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보건이나 환경상의 우려를 이유로 금지해서는 안 됨.
 - 보건이나 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유럽의회 의원들의 주요 근거였음.
- 유럽의회의 조사위원(Frédérique Ries)은 법안의 승인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힘.
 - 벨기에 출신으로 자유당그룹(ALDE)소속인 Ries 의원은 동 법안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보다 강력한 자율권과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욱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 또한 기존에 정부나 지방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자율 운영(Opt-out) 시스템

- 금변 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식품 허용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자율권이 더 강화됨.
 - 각 국은 EU 수준의 경작 허가와는 별도로 자율 운영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EU의 경작 허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자율운영을 택할 수 있음.

- 자율운영선택이 인정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환경정책 목적, 도시·농촌 계획, 토지 이용, 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제품 내 유전자변형작물 잔존 방지, 농업 정책 목적, 공공 정책 등임.

○ 동 법안으로 각 국 정부는 EU의 허가 전까지는 GMO의 경작 허가를 신청한 생명공학 회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될 것임. 혹은 사회경제적·윤리적 우려, 환경정책 이슈,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농업정책목표 및 공공정책 등의 근거로 자율 운영을 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작물 단위(예를 들어 ‘옥수수’ 등)나 특징 단위(예를 들어 ‘제초제 저항성 식물’ 등) 등의 그룹으로 묶어서 금지하는 것도 가능해짐.
- 하지만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이 보건이나 환경 문제로 유전자변형식품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보건 및 환경 분야는 계속해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관할로 남게 됨. 이로 인해 일부 의원들과 환경운동 단체들은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음.

□ 실질적 영향

○ 금번 법안은 올 봄에 발효될 예정이지만 단기간에 실질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각 회원국들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불가리아, 룩셈부르크는 이미 일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을 금지하고 있음.

○ 현재 EU에서 유일하게 경작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은 몬산토(Monsanto)의 MON810 옥수수임. 생명공학 회사인 몬산토와 바스프(BASF)는 최근 대중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우호적이지 않은 유럽의 규제 시스템 때문에 경작 허용 신청을 철회한 바 있음.

○ 생명공학 산업계와 유전자변형식품에 반대하는 로비단체들 모두 법안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상이함.

- NGO들은 동 법안으로 인해 의사결정권을 다시 국유화하게 되면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허가가 더욱 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경작을 금지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에게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 생명공학 업계와 농업인 단체는 금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비과학적 근거로 유전자변형식품을 금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비판해 왔음.

□ 오염 문제

- 금번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경 지역에서 유전자변형작물로 인한 주변국 작물의 오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즉 국경지역에서 한 국가의 유전자변형작물이 접경국의 일반 작물들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하지만 많은 의회 의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오염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 대한 보상 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1.16)

미국,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량 설정 연기

□ 미국, EISA에 의해 재생가능연료 기조 사용 의무량 설정

○ 미국에서는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EISA)의 재생가능연료기준(Renewable Fuel Standard, RFS)을 기초로 사용 의무량이 정해져, 매년 바이오 연료의 사용량이 의무화되어 있음.

- 2014년 11월 21일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2014년의 사용 의무량 설정을 2015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정책의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며, 미국의 바이오 연료 규제와 기업의 대처 현황을 보고하였음.

□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증가예의

- 현행법은 옥수수로부터 추출한 에탄올, 선진적 바이오 연료로서의 셀룰로오스(cellulose)계 에탄올, 바이오디젤 연료 등의 의무량을 규정하고 있음<표 1 참조>.
- 2008년에 90억 갤런³⁾으로 시작된 사용 의무량은 2022년에는 360억 갤런이 됨. 사용 의무량의 대부분은 옥수수 추출 에탄올로, 특히 셀룰로오스계 에탄

표 1 재생가능연료기준(RFS) 사용 의무량

단위: 10억 갤런

연도	옥수수 추출 에탄올	셀룰로오스	실적	총량
2008	9.0	0	0	9.00
2009	10.5	0	0	11.10
2010	12.0	0.10	0.0065	12.95
2011	12.6	0.25	0.0060	13.95
2012	13.2	0.50	0.0000	15.20
2013	13.8	1.00	0.0140	16.55
2014	14.4	1.75	-	18.15 (15.21 이하 제안 있음)
2015~	15.0	3.00 이상	-	20.50 이상
2022	15.0	16.0	-	36.00

자료: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EISA)를 기초로 작성.

3) 1갤런= 약 3.785리터.

- 올은 2010년부터 해마다 의무량이 증가함.
- 옥수수 추출 에탄올 의무량은 2015년에 150억 갤런으로 매듭지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의무량이 옥수수 추출 에탄올 의무량을 상회하게 됨.
 - 단, 정부 계획대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

□ 블랜드(blend)의 벽, 보급 안계점

- 에탄올 10%이상을 혼합하는 가솔린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 가솔린 수요 쇠퇴에 의하여 에탄올 혼합 가능량이 10%의 상한으로 고정되어 있음.
 - 상한 10%의 이유로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비용면이나 안전성을 들 수 있음. 안전성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의 차량이라면 E15(에탄올 15% 혼합 가솔린)의 안전성을 EPA가 보증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차량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E15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 필요하지만,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일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미국 연료·석유화학제조자협회(American Fuel & Petrochemical Manufacturers, AFPM) 회장은 E15을 보급되게 하고 싶다면 바이오연료 기업이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지나치게 복잡한 재생가능식별번호

- 연료마다 설정되는 재생가능식별번호(Renewable Identification Number, RIN)는 재생가능연료의 카테고리 정보, 생산이나 수입한 해, 의무이행자의 ID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번호로 의무량 달성을 위한 검증 수단이 됨.
 - 동 번호에 의해, 환경보호청(EPA)은 각 업자의 의무량 달성 상황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매매가 가능한 크레디트의 역할도 가짐.
- 재생가능식별번호(RIN)의 문제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함 때문에 잠재적으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는 점임.
 - 서덜랜드·컨설팅 관계자는 많은 부정한 RIN이 작성되었다고 지적하였음. 바이오디젤연료의 부정 RIN을 만든 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됨.
 - 환경보호청(EPA)은 시스템에 하자가 있어 정당한 RIN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생산자나 제유소에서 정당한 RI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확보프로그램(Quality Assurance Program, QAP)을 2015년에 책정하기로 하였음.

□ 처음으로 아양 조정된 사용 의무량

- 2013년 11월 환경보호청(EPA)이 제안한 2014년의 사용 의무량에 관한 안(案)은 2007년 설정치인 181억 5,000만 갤런을 밑돌았고, 2013년의 사용 의무량인 165억 5,000만 갤런도 밑도는 152억1,000만 갤런이었음.
 - EPA는 제안 이유로서 앞서 언급한 블랜드(blend) 벽의 한계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음. 이것은 RFS규제로 처음으로 하향조정 되었고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사용 의무량에 관하여 다른 불투명한 부분으로서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의무량을 들 수 있음. 2010년에서 2013년에 걸쳐 계획량과 실제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있었음.
 - 이는 생산자 측의 재무·기술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셀룰로오스계 연료제조자는 2013년 3월 셀룰로오스계 연료의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지만, 곧 재무문제에 의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지금은 파산 상태에 있음. 2011년에는 레인지 퓨엘이 파산했음.
-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벤고아, 포에트, 듀폰은 셀룰로오스계 에탄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포에트는 2014년 10월에 개최된 정보제공회사 오피스 주최 포럼에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생산에 필요한 효모의 생산 대기업인 노보자임은 셀룰로오스계 에탄올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전망함. 노보자임은 베타 리뉴얼브루와 함께 2013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셀룰로오스계로서는 최초로 상업 플랜트를 시작하였음.

□ 셀룰로오스계 생산량 의무량에 합당 여부 의문

- 이러한 개발 기업의 셀룰로오스계 에탄올 생산량이 현행법의 의무량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함.
 - 만일 환경보호청이 사용 의무량 목표치를 그대로 했을 경우, 예상되는 셀룰로오스계 에탄올의 부족 부분을 어느 재생가능연료기준(RFS) 카테고리에서 보충하는 것인지도 향후 주목할 부분임.
-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청은 2014년 11월 21일, 2014년 사용 의무량 설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음.

-
-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료·석유화학제조자협회(AFPM)는 2014년 12월 1일, 이러한 규제 지연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CAA)에 위반된다며 환경보호청을 고소하였음.

□ 정부보조 · 석유산업에 의존 정책에 변화

- 바이오연료 업계는 대체로 30년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음. 특히 에너지 정책으로 2005년 재생가능연료기준(RFS)에 규정된 이후 놀랄만한 발전을 하였음.
 - 단지, 그 발전은 기술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정부보조를 유지해 온 측면이 강함.
- 그러나 최근 환경보호청에 의한 2014년의 사용 의무량안(案) 연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정책의 변화는 바이오연료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농무부 장관은 바이오연료 업계는 석유산업에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이러한 변화는 바이오연료의 브라질, 필리핀, 캐나다로의 수출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음.

□ 생산량 확보와 부생성물 활용 중요

- 현행법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임. 환경규제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상하 양원의 과반수를 얻은 것은, 환경보호청에는 역풍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미국 연료·석유화학제조자협회(AFPM)에 의한 고소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법에서도 규제 본연의 자세가 문제될 수 있음.
- 재생가능식별번호(RIN)는 품질확보프로그램(QAP)에 의해 그 관리 체제가 강화되는 방향에 있지만, 한편 농가를 비롯한 바이오연료 관계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회계사가 새롭게 RIN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됨.
 - 이것은 바이오연료 산업이 보다 단단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됨.
- 셀룰로오스계 에탄올에 관한 개발 동향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연료용으로 얼마만큼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되며, 다른 면에서 생화학물질(biochemical)과 같은 부생성물의 활용도 파생 기술로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 자료: JETRO(2015.01.20)

브라질, 농업의 확대와 농업정책

□ 브라질, 농업대국으로 세계농산물 무역에서 우위 차지

- 브라질은 21세기에 들어, 세계 최대 농산물순수출국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농업대국으로서 세계농산물무역 시장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음.
- 수출품목도 예전의 하나의 품목 재배에 집중하여 수출하는 단일재배(monoculture)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다양한 품목을 수출하는 농업으로 전환하고 있음.
 - 중국이 대두를 시작으로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브라질은 세계 식량무역의 안정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음.

□ 수출 농산물의 ‘순환체계’

- 브라질 농업은 1500년에 포르투갈인에게 ‘발견’된 이래, 농산물 수출형 산업으로 시작되었음.
 - 하지만 단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단일재배(monoculture)가 주체이었으며, 어떤 작물이 쇠퇴하면 다음 주역이 되는 작물이 교대되는 ‘순환체계’를 이루고 있었음.
 - 최초의 순환체계를 짚어준 것은 브라질의 국가명 유래이기도 한 ‘파오(pao) 브라질(브라질의 나무)’임.
- 이것은 의류 염료로서 종주국인 포르투갈에 수출되었음.
 - 이것 이후, 1530년대에 시작된 설탕, 17세기 초에 노예무역용으로 아프리카에 수출된 담배처럼 수출 주역이 교대되어 19세기에는 커피가 브라질 전체를 대표하는 수출품이 되었음.
 - 한편, 19세기말로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단기간에는 고무도 커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출품이었음.
- 현재 브라질은 세계 제일의 농산물 순수출국임.
 - 브라질의 현재 수출 농산물은 어떤 한 가지 품목에 특화되지 않은, 커피, 오

렌지주스, 설탕 등 비교적 역사가 긴 수출품목(전통품목)과 함께, 대두관련 제품, 옥수수, 육류, 에탄올 등 비교적 최근에 수출 주력품목이 된 품목(신품목)도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그전의 단일품목에 의존하는 단일재배(monoculture)에서 현재에는 다양한 품목이 세계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표 1 브라질의 주요 수출 농산물의 세계 무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구분	품목	연도	순위	비율
신품목	대두	2013/14	1위	41.5%
	대두박	2013/14	2위	23.4%
	대두유	2013/14	2위	15.0%
	옥수수	2013/14	1위	17.0%
	쇠고기	2013	1위	20.3%
	닭고기	2013	1위	34.0%
	돼지고기	2013	4위	8.3%
전통품목	에탄올	2013	1위	26.2%
	커피	2013/14	1위	28.8%
	오렌지주스	2012/13	1위	76.3%
	설탕	2012/13	1위	44.0%

주: 수량 기준.

자료: 에탄올은 F.O.Licht, 기타는 USDA, FSA, World Markets and Trade.

○ 다음 <표 2>는 2013년 수출 농산물의 구성을 나타낸 것임.

- 동 표에서는 커피, 담배, 과즙, 목재와 같은 전통품목보다 대두관련 제품, 육류와 같이 소득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소득 탄성치가 높은 신품목의

표 2 수출농산물 구성(2013년)

수출품목	금액(백만 달러)	구성비
대두관련 제품	30,961	31.0%
육류	16,803	16.8%
설탕에탄올	13,718	13.7%
목재	9,635	9.6%
커피	7,252	7.3%
옥수수	2,295	2.3%
담배	4,582	4.6%
피혁제품	650	0.7%
오렌지주스	3,027	3.0%
면화	1,107	1.1%
기타	9,938	9.9%
합계	99,968	100.0%

주: 대두관련 제품은 대두, 대두박, 대두유의 합계임.

자료: 브라질농무부(MAPA).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 옥수수는 현재 금액 점유율은 낮지만, 21세기에 들어 수출품목이 되면서 최근 세계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품목임.

□ 생산 확대의 경위

- <표 3>은 과거 30년간 주요곡물의 생산량과 경작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것임. 30년 전 1982/83년도에는 4,765만 톤이었던 생산량이 2002/03년 이후 1억 톤을 상회하였고, 2012/13년도에는 1억 8,866만 톤으로 1982/83년의 3.96배까지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내역을 살펴보면, 대두와 옥수수의 생산량이 크고 두 품목은 1억 6,300만 톤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 대두는 2002/03년 생산량이 5,000만 톤을 넘어, 당해 이후 옥수수를 제외한 품목 중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작목이 되었음.

표 3 곡물생산 변화

구분	1982/83		1992/93		2002/03		2012/13		배율	
	생산량 (천 톤)	경작면적 (천ha)	생산량 (천 톤)	경작면적 (천ha)	생산량 (천 톤)	경작면적 (천ha)	생산량 (천 톤)	경작면적 (천ha)	생산량	경작면적
대두	14,532.9	8,412.0	23,042.0	10,717.0	52,017.5	18,474.8	81,499.4	27,736.1	5.61	3.30
옥수수	19,015.0	11,658.2	29,207.7	12,436.3	47,410.9	13,226.2	81,505.7	15,829.3	4.28	1.36
쌀	8,225.4	5,181.2	9,903.0	4,458.5	10,367.1	4,378.7	11,819.7	2,399.6	1.44	0.46
밀	2,191.4	5,496.1	2,051.8	4,385.3	5,851.3	3,186.1	5,527.9	2,209.8	2.52	0.40
두류(feijão)	1,654.8	1,932.1	2,379.0	1,641.9	3,205.0	2,464.2	2,806.3	3,075.3	1.70	1.59
기타	2,035.1	4,532.7	1,669.6	1,982.3	4,316.2	2,216.8	5,499.0	2,312.9	2.70	0.51
합계	47,654.6	37,212.3	68,253.2	35,621.3	123,168.0	43,946.8	188,658.0	53,563.0	3.96	1.44

주: 경작면적은 총 면적. 옥수수는 연 2모작. 두류는 3모작. 기타에 포함되는 땅콩은 연 2모작 면적을 합한 것임.
자료: 브라질식량공급회사(Conab).

- <표 3>에서 경작면적의 변화를 보면 같은 시기에 3,721만ha에서 5,356만ha로 1.44배가 된 것에 지나지 않음.
 - 브라질 농무부는 브라질 곡물생산의 확대는 면적이 아닌 생산성(단수) 향상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각 작물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 대두는 생산량이 5.61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경작면적도 3.3배로 크게 확대되어 단수와 같이 경작면적 확대의 공헌도 컸다고 볼 수 있음.

-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이 4.29배가 된 것에 비해 경작면적은 1.36배가 된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단수의 성장이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대두, 옥수수의 자급률은 대폭 상승하였고 두 품목 모두 현재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목이 되고 있음.

연방 농업정책 체계

- 브라질 정부의 농업정책은 지극히 시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브라질은 1990년대 초, 시장원리에 근거한 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 적이 있음.
 - OECD가 각국의 농업보호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채용하고 있는 지표(%PSE)로 보아도 5%(2008~2010년 평균)로 OECD평균에 21%, 일본의 50%와 비교하여도 지극히 낮은 보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브라질 농무부가 농업정책의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금융임.
 - 브라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금리 국가로 시중금리로 빌렸을 경우, 농업인이 농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함.
- 브라질 정부의 공적농업금융에서는 매년 융자 체제가 설정되어, 농가에 저금리로 대출되고 있음.
 - 융자의 자금원으로서 특징적인 것은 은행의 예금 잔액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정한 저금리에서 농업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임.
- 또한 브라질은 시장가격변동의 위험을 경감하는 정책으로 최저가격보증제도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작목 및 지역별로 정한 최저가격을 시장가격이 밑돌았을 경우 정부가 최저가격을 보증하는 제도임. 실시하는 경우 정부부담이 경감되게 다양한 수단이 개발되고 있음.
- 동 제도가 본격 적용된 1960년대에는 시장가격이 최저가격을 밑돌았을 경우, 정부가 농가로부터 직접 작물을 최저가격으로 사들였음.
 -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작물을 사들이는 것이 아닌,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만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으로 정부가 재고를 가능한 한 쌓아두지 않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과 같은 정책수단을 중용하게 되었음.

- 상기 두 수단을 보완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것이 농업생산의 변동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농업보험료보조제도가 있음.
 - 동 제도는 민간 농업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임. 제도 발족 초년에 동 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작면적은 불과 7만ha이었지만 2013년에는 960만ha로 급격하게 확대되었음.
-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새로운 농업연도가 시작되는 7월전에 정부에서 발표됨.
 - 7월 이후 1년간, 동 계획에 의거하여 브라질의 농업정책이 수행되게 됨.
- 브라질에는 농무부 이외에 농업과 관계되는 부처로는 농업개발부가 있음.
 - 동 부처는 1999년에 농무부에서 분리된 조직으로, 농지 개혁, 영세농을 대상으로 한 가족농업강화 계획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농무부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농업전체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등 영역 분리가 되어 있음.
- 브라질 농목연구공사는 다양한 농축산물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부 이외에 작물별 연구소와 지역별 연구소가 있음. 정부의 농업에 관련 기술개발계획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으며 브라질 농업의 기술진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 자료: Primaff(2015.01.29)

인도, 인도준비은행 정책금리 7.75%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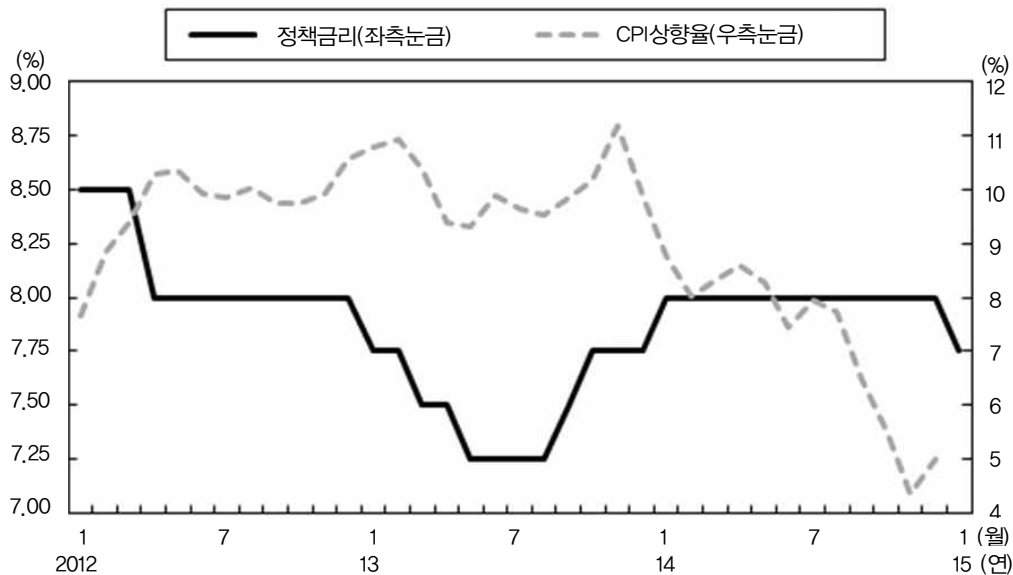
□ RBI, 정책금리 인하 발표

-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중앙은행)은 1월 15일, 정책금리를 8.00%에서 0.25포인트 내린 7.75%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음.
- 금리인하를 실시한 것은 2013년 5월 이래 1년 8개월 만임.

□ CPI 상승을 꺾어로 금융정책 변경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율을 보면, 2014년 7월 이후 저하 경향에 있으며 1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5.0%가 되었음<그림 1 참조>.

그림 1 정책금리와 CPI상향율(전년동월대비) 변화



자료: 인도준비은행 및 통계사업실시성.

- RBI 총재는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채소와 과일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곡물이나 원유가격이 억제되고 있는 것, 또한 정부가 계속

되어 재정적자삭감에 강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함.

-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장래 예측치가 안정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동향에 따라 금융정책을 변경할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함.

○ 또한 거듭된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수렴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열쇠라고 하였음.

- 재정재건, 공급 측면에서의 제약 요인, 특히 전력, 토지, 광산, 기반시설 등의 모든 문제 해결이 중요함.

○ 2월 3일 예정되었던 금융정책결정회의 전에 예기치 않는 금리인하로 시장관계자는 당황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장관은 금번 금리인하에 대하여 인도 경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진전이며,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었던 투자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 이 외에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이 고조되고 있음.

- 인도상공회의소연맹 (FICCI) 회장은 금융정책결정회의 전 RBI에 의한 정책금리 인하를 환영한다고 표하며, 금번 조치는 투자가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FICCI로서는 금번 조치가 새로운 금리인하의 시작일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냄.

○ 한편, 금번 정책금리 인하로 1월 15일 주식시장은 대표적 주가지수인 S&P BSE SENSEX의 증가가 전일 대비 728.73포인트 상승한 2만 8,075.55포인트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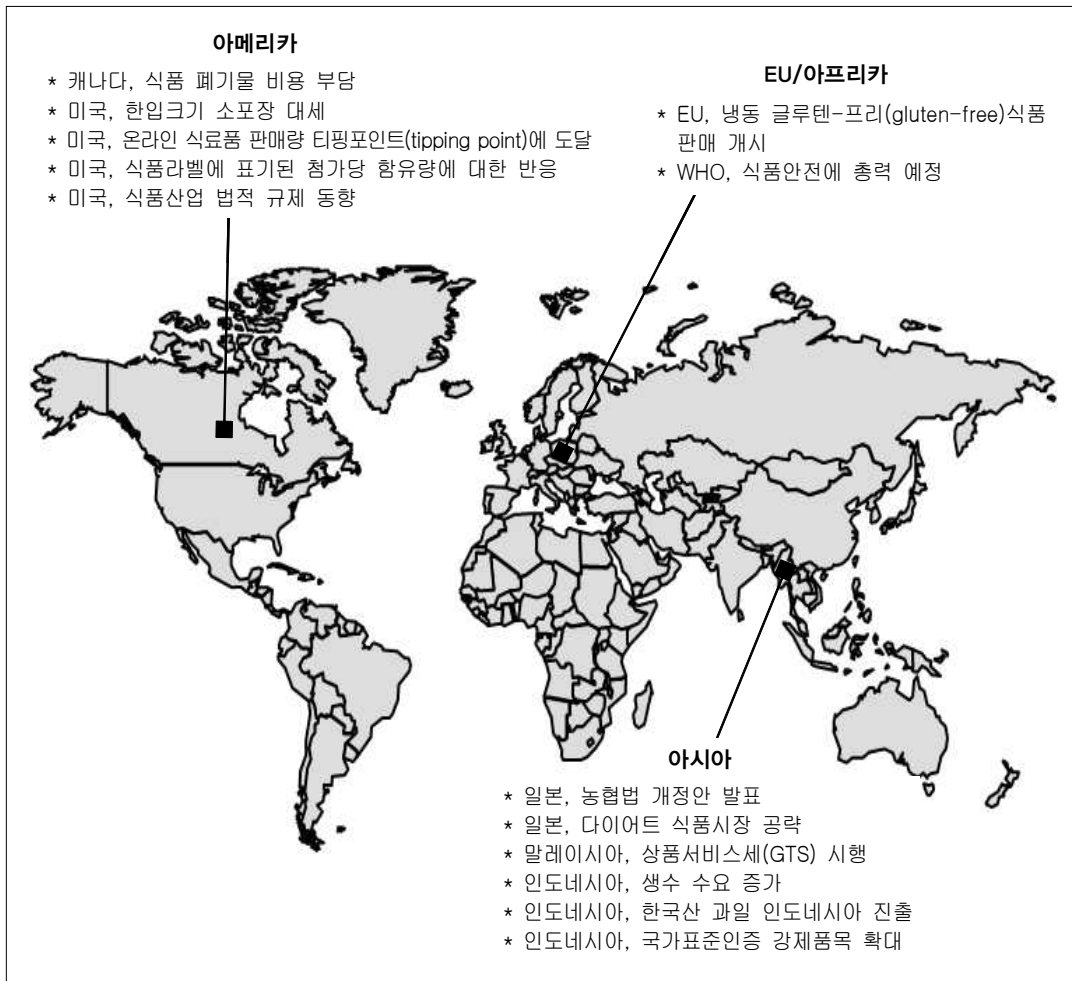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9.05)

자료 작성: 이해은 전문연구원, 박현빈 인턴연구원

세계 농업 브리핑

주요외신동향

세계 농업 브리핑 (2015. 2)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농협법 개정안 발표

- 일본 정부는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골자를 정함.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worldagri.krei.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농협조직을 통합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 중앙회)의 지도·감사 등의 권한을 3년 안으로 전폐하고 임의 단체로 전환함.
- JA그룹 내에서 중앙회의 강제력을 없애고 지역농협과 농민이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유통 경로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매력적인 국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JA전중은 중앙회의 지도·감사 권한과 행정에 대한 건의권 등 법적인 권한을 3년 후에 모두 없애고 다른 업계 단체와 같은 일반 사단법인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농협의 연합회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킴.
 - 중앙회의 권한을 제거하여 지역 농협이 상품 개발과 수출 강화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중앙회는 감사비 등으로 지역농협 등에서 매년 80억 엔 정도의 부담금을 거두고 있음.
 - 임의단체가 되면 부담금이 거의 없어져 지역농협의 자유도가 높아짐.
 - 정부 내에는 부담금을 사용한 TPP 교섭이나 기업의 농업 진출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상사 서비스 기능을 갖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함.
 - 당분간은 지역 농협이 출자하는 형태를 유지하나 장래에는 일반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함.
 - 합리화로 생산 자재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기업의 출자비율도 현행 25%에서 50%미만까지 확대함.
- JA전중의 하부조직인 지방중앙회는 원칙 5년 안으로 임의단체로 전환함. 농림수산 대신이 승인하면 추가적으로 5년간 유예함.
 - 영세 농가와 겸업농가 등 생산규모가 작은 농가의 모임인 지역 농협의 정점에서 있는 것이 JA전중이며 도도부현마다 설치된 지방 중앙회를 통해 통제하고 있음.
- 2014년 5월, 규제개혁회의가 농업개혁안을 발표한 당초는 JA그룹 전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 내용이 크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혁안을 대부분 채용함.

- 제 3차 아베정권이 시작되면서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하나인 농업개혁을 JA그룹 개혁을 통해 가속시키려는 의도이나, 현행 농협제도에 익숙한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06)

□ 일본, 다이어트 식품시장 공략

- 일본 시장조사 기업 시드플래닝에 따르면 일본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2009년 약 1조 6,701억 엔으로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15년에는 약 2조 엔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됨.
 - 일본국민의 30%이상이 2종류 이상의 다이어트 식품을 사용하고 약 24%는 다이어트 식품에 연간 1만 2,000엔(한화 약 11만원)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민의 60%가 다이어트 식품 복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
- 과거 다이어트 식품시장은 20~30대의 젊은 여성층이 주요 목표이었으나 미쓰비시 UFJ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결과 소비자의 연령대와 성별이 다양화되어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웹 분석 기업 SecS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다이어트 관련 주요 키워드는 '집에서', '간편하게' 등으로 나타나 힘들게 운동하기보다는 식단과 보조식품을 이용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남성은 다이어트 관련 정보 검색 시 다이어트 보조식품보다는 '근육', '산소', '내장지방' 등이 주요 키워드로, 여성에 비해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하려는 경향이 강함.
 - 한편, 중·장년층에서도 여성(안티에이징, 미용), 남성(과체중 및 메타볼릭 신드롬 방지) 간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계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성별·세대별 시장의 세분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칼로리 섭취량을 줄여 살은 빼고 싶지만 간식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위해 각 기업에서 맛있지만 칼로리는 낮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음료를 앞 다투어 출시됨.
 - 삿포로 파인푸드(주)의 '포테카룻(ポテかるっ)'은 기존의 포테이토칩과는 달리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굽는 방식으로 유분량을 72% 감소시키고, 칼로리를 낮춤.
 -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 지정된 최초의 기린 社の '메츠 콜라'는 식사 시 지방의

- 흡수를 늦추어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
- 또한 편의점 업계에서도 간편하게 닭가슴살 샐러드, 저칼로리 간식과 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출이 호조를 보임.
- ‘마음껏 먹고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구호를 걸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식품의 인기가 높았으나 도쿄의 30대 여성이 해당 제품 복용 후 심한 구토 및 복통과 열 증세를 보이며 부작용을 호소함.
- 한편, 미국에서 마황과 카페인을 함유한 인기 다이어트 식품이 심실성부정맥을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
- 위의 사례는 일본 국내 다이어터의 경각심을 야기하며 안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과거에는 칼로리 섭취량과 운동량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IT 기기 등장으로 다이어트 식품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함.
- 미국 Jawbone사에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 ‘UP’은 손목밴드와 연동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일일 소비 칼로리와 활동량이 자동으로 체크됨.
- 이외에도 간편히 착용할 수 있는 착용 가능한(wearable) 디바이스, 일일 목표 달성을 놓고 인터넷상에서 여러 유저와 경쟁할 수 있는 게임형식 다이어트 애플리케이션도 큰 인기를 끌고 있음.
- 더 이상 20~30대 여성을 위주로 한 일괄적인 마케팅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별, 세대별 니즈에 맞춘 마케팅 툴을 모색해야 함.
- 예를 들어 젊은 여성을 수요층으로 한 아이돌 스타 마케팅에서 벗어나 중년층 모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령별, 성별에 맞춘 알맞은 마케팅이 필요함.
- 또한 소비자의 안전 지향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식품안전인증을 취득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함.
-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자사 다이어트 식품을 연계시키거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와의 공동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장기적인 다이어트와 꾸준한 식단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2014.01.29)

□ 말레이시아, 상품서비스세(GST) 시행

- 2015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6%의 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를 부과함.
 - 연 매출이 50만 링깃(MYR)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에 GST적용 기업으로 신청하여 동 제도를 따라야 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래 전부터 경제안정과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국가 부채 및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GST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서민부담 증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이유로 야권의 반대에 지연되어 옴.
- GST 도입은 2005년 예산 연설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당시에는 200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시행이 연기되었음.
 - 2009년에는 관련 법안인 ‘GST Bill 2009’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바 있음.
 - GST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SEAN) 국가들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세금 제도임.
 - 세율은 인도네시아 10%, 태국 7%, 싱가포르 7%, 필리핀 12%, 베트남 10%, 라오스 10%, 캄보디아 10% 등으로 말레이시아가 책정한 6%는 가장 낮은 범주에 속함.
- GST 도입과 관리를 주관하는 말레이시아 관세청(The Royal Customs and Excise of Malaysia)은 GST제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계자는 “GST는 기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하고 올바른 시행을 위하여 해당 기업체들은 결제 시스템을 바꾸고 지불 방법을 구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함.
- GST가 시행되면 현재 상품에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서비스세(service tax)대신, 상품이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6%의 세금이 부과됨.
 - 참고로 10%의 판매세는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에 부과되고 6%의 서비스세는 숙박, 의료, 전문서비스, 통신서비스, 보안서비스, 음식물, 주류, 담배 제품의 판매와 공급 등 과세가 가능한 서비스에 부과되어 왔음.
- GST와 판매세/서비스세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다단계’세금이고 후자는 ‘단일단계’세금이라는 점임.

- GST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공급자로부터 유통의 소매단계에 이르는 공급망의 매 단계에 대하여 증대된 부가가치에 과세되고 납부자는 최종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사슬 중간에 있는 업체들에게는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음.
- 과세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판매에 대해 기업은 매출세액(output tax)을 부담해야 하지만 구매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input tax)에 대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매출세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관세청으로 송금하게 됨. 반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게 됨.
-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는 소비자에 높은 비용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GST부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미가공 육류, 식용유, 설탕 등 필수 상품 및 대중교통 전기, 교육, 의료, 전화, 금융거래 및 생명보험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함.
 - 또한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는 주된 이유는 인프라, 교육, 복지, 의료, 국가안보 등 사회·경제 개발에 정부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을 포함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GST는 판매세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현재의 판매세와 비교하여 자신이 소비하는 제품이 세금에 해당되는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GST에 등록한 기업 수는 11만 2,610개 기업이며, 정부 목표치인 14만 기업을 기준으로 80.4%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총 30만 기업 전체를 GST대상 기업이라 보면 실제 성과 비율은 37.53%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판매세·서비스세와 비교하여 GST도입을 통해 10억 링깃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해 3.9%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내년 3%으로 낮추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목표를 계획하고 있음.
 - GST 탈세의 경우는 해당 세금의 10~20배의 벌금형이나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탈세의 경우에는 탈세금액의 20~40배의 벌금형이나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12)

□ 인도네시아, 생수 수요 증가

- 인도네시아 비알콜성 음료수 판매량에서 생수의 비중이 2010년 8%에서 2014년 20%로 증가함.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증가하고 개인소득이 상승하고 있으며 젊은층 소비자들은 생수를 사먹는 습관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생수시장의 성장잠재력은 큰 편임.
 - 영국시장조사업체 민텔(Mintel)의 세계 음료시장 분석가 존 포시는 1인당 생수 소비량과 소비증가율을 고려하면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생수시장 중 하나라고 말함.
 - 인도네시아 가정에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점도 생수를 구입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 보고서는 상수도 보급률에 관한 통계는 언급하지 않았음.
 - 민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생수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며, 비알콜성 음료수 판매량에서 생수의 비중이 2009년 1%에서 2010년 8%로 급증함.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출시되는 비알콜성 음료 신제품 10개 중 1개가 생수 제품임.
- 인도네시아 생수 소비량이 2006년에 1인당 29리터에서 현재 49리터로 증가했고 2016년에는 86리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에서 생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브랜드들이 앞 다투어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생수협회(ASPADIN) 헨드로 바루노 회장은 외국기업이 대부분 생수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기업으로 프랑스 다국적 식품기업인 다논 'Aqua', 일본 식품기업이 운영하는 인도 푸드 아사히 그룹의 'Club', 코카콜라의 'Ades' 등이라고 밝혔다.
 - 헨드로 회장은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이 급성장하고 있어 생수 기업 시장진출에 매력적이고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생수 시장은 적어도 연간 11~12%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Aqua와 Club이 각각 17개와 22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에도 기회가 있다며 특히, 지방에 공장을 설립한다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21)

□ 인도네시아, 한국산 과일 인도네시아 진출

- 한국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전주 배, 곡성 딸기, 거창 사과 등이 인도네시아 과일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 전주시는 으뜸배 영농조합법인 등을 비롯한 6개 작목반이 20일 인도네시아와 대만에 980톤의 배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 앞서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해 복숭아, 포도, 배 등 12톤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음.
- 전남 곡성군의 대표 농산물인 멜론을 수출하고 있는 ‘곡성멜론주식회사’는 딸기 공동선별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태국시장에 2015년 곡성딸기 수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곡성멜론(주)에서 수출하는 딸기는 전남 곡성읍 대평리, 신리, 장선리 지역의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협의 및 재배교육을 통해 엄격한 품질관리와 철저한 수확시기 조절뿐만 아니라 이산화염소 훈증 시스템 설비 구축으로 해외 수출시 당도가 높은 만큼 쉽게 물러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 그동안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으로의 멜론 생과 수출에 이어 태국, 인도네시아 시장에 신선딸기를 수출함으로써 해외 시장 다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경남 거창사과원예농협과 거창군 연합사업단은 15일 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거창사과 인도네시아 수출 선적식을 갖고 약 6톤(10kg, 600상자)의 사과를 수출함.
- 금년 인도네시아로 총 70톤의 사과를 수출할 예정인 거창사과원예농협은 현지 시식회, 바이어 상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상류층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21)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 강제품목 확대

-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인증(Indonesia National Standard, SNI) 강제 취득 품목을 확대함. 최근, 인도네시아 무역부 담당 국장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약 60개 품목이 강제인증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에는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 식료품과 플라스틱 포장,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제도는 인도네시아 국산품뿐만 아니라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를 운영하고 있음. 국가 규격은 국제 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됨.
 - 당초 SNI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격을 마련해 생산자의 품질혁신을 도모하고 유해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에서 유통된 SNI인증 미취득 제품은 1,222개였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 미취득 제품을 모두 환수하고 관련 기업은 사업면허취소까지 고려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입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고 밝힘.
 - 현재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품목은 151개에 불과함.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27)

2. 아메리카

□ 캐나다, 식품 폐기물 비용 부담

- 4년 전, Volume Chain Management 대표 Martin Gooch이 작성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의 양은 약 27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오늘날 식품 폐기물의 양은 과거의 예상치보다 15%이상 증가한 310억 달러로 식품 폐기물 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식품 폐기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많은 식품유통업체들을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VCM에서 작성한 최근 한 보고서는 전함.
- 최근 식품유통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득을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식품유통업체들은 그렇지 않음.
 -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유통업체들이 더 좋은 프로모션 또는 행사가 있고 그들

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에 비해 오늘날 많은 식품유통3 업체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하기에 바쁘기 때문임.

- 많은 식품 유통업체들은 서로간의 견제 및 경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만을 통해서 각 업체들은 최대 15~20% 이상이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또한 최대 5~11%이상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식품유통업체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규모에 대한 강박관념은 허위 절감(False Economy)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규모가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임.
 - 낭비되는 비용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계속 축적됨. 에너지, 물, 자원, 인력, 자본, 인프라스트럭처, 기계장치, 이동수단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단적인 예로 어떤 업체의 낭비되는 총 비용이 해당 업체의 총 이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들은 또한 피할 수 있는 식품 폐기물들로 인해 10%이상 식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에서 폐기되는 식품의 양은 약 3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식품업체들은 자신들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한 보고서의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만으로 운영비용을 최대 15~20%감소, 수익성 또한 최대 5~11%상승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오늘날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규모가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식품폐기물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05.)

□ 미국, 안입크기 소포장 대세

- 미국 시장조사 전문 업체 패키지 팩츠(Packaged Facts)의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이른바 대박 조건으로 '소량포장'을 꼽음.

- 레스토랑 메뉴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형식품유통업체의 진열대에도 적은 양 또는 소량의 간식류(snackable items)의 제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
- 금번 조사를 통해 약 66%이상의 사람들이 식사시간 사이에 스낵류를 즐겨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루 세끼가 아닌 소량의 식사를 자주하는 사람들이 10여년 전만에도 30%정도였으나 금년에는 약 39%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소량의 식사를 4~5번에 걸쳐 먹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소비자들에게 스낵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건강하고 비용부담이 없는 간식의 개념이 아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단적인 예로, 멕시칸패스트푸드 체인업체인 타코벨(Taco Bell)에서 금년 출시된 신 메뉴 'Dollar Cravings'는 소비자들에게 편의성과 가격대비 높은 가치의 음식을 제공하며 미국 현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이러한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체인업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임.
- 스낵류의 메뉴는 오늘날 고객들을 불러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한입크기의 메뉴(bite-size items) 또는 핑거푸드(finger food)는 고객들의 식사량조절과 그들에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할 수 있음.
 - Packaged Facts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스낵류의 한입 크기의 메뉴 등은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체인업체에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신 메뉴들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스낵은 더 이상 단순히 간식의 개념이 아닌 4번째 식사라는 것과 나눠먹는 식사경험이라는 개념을 인식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 외에도 음료업체인 코카콜라와 펩시 등도 눈을 돌린 소비자들과 오늘날 스낵류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량 포장 트렌드를 접목시키기 위해 작은 캔에 담긴 음료를 출시 준비 중이라고 함.
 - 최근, 식품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작은 포장에 담긴 스낵,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한입 크기 또는 핑거푸드라 불리는 메뉴의 인기가 상승하는 이유는 단순히 간식을 즐겨먹는 소비자가 늘어났거나 식사를 챙겨먹을 시간이 없다는 개념이 아님.
-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과거와 달리 많은 양의 음식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한 음식을 선호하고 적은 양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기고 싶어 하며, 편의성에 대한 가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레스토랑 체인을 포함, 각종 외식업체들의 모든 메뉴에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최종 식품라벨 규제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05)

□ 미국, 온라인 식료품 판매량 티핑포인트(tipping point)에 도달

- 온라인 식료품 판매는 2013~2018년에 21.1%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매상 판매량 예상 증가율인 3%를 훨씬 넘는 수치임.
 - 조사에 의하면 아마존(Amazon)과 투자금 유입으로 소비자들의 수용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다른 주요점은 25%의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소비자들은 식료품의 당일 배송에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점임.
- 미국에서 식품 및 음료시장은 연간 6,000억 달러의 판매량으로 가장 큰 소매점 범주에 속함. 그러나 전자상거래(e-commerce)가 가장 적게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함.
 -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조사에 의하면 식품 및 음료부분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판매가 1%미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쇼핑을 하는 방식은 계속 변화중이며 온라인 식료품 서비스는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 관심을 받고 있음.
 - 아마존은 식료품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값비싼 배송료가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임.
 - BI Intelligence(Business Insider Intelligence)의 금번 조사는 식료품 사업이 전자상거래로 발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식료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유명 테크놀로지 업체들이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임.
 -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온라인 식료품 판매량은 약 1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 및 업체에게 모두 단점이 있음.
 - 배송비, 물류지원 문제, 제품의 신선도 및 품질 등 소비자와 업체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온라인 식료품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배달되기 위해서는 제품이 훼손 없이 품질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존재함.
- 온라인 식료품 쇼핑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임.
 - 미국 성인 중 약 15%가 온라인으로 일반 음식을 구매한 적이 있으며 25%의 소비자는 특수식품 및 음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동 조사결과의 주원인은 다른 곳에서는 구매할 수 없었던 것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임.
- 신규 온라인 업체들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을 권장하여 기존 슈퍼마켓과의 차별성을 홍보하고 있음 .
 - 여러 가지 제품을 한 번에 구입함으로써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온라인 식료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 아마존, 이베이(E-bay) 및 구글 등의 유명 테크놀로지 업체들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 소비자들이 당일 배송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어 온라인 식료품점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 당일 배송은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25%는 당일배송을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10)

□ 미국, 식품라벨에 표기된 첨가당 함유량에 대한 반응

- 지난 11월 17일, 리서치저널 Obesity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3%이상은 식품 내 함유된 첨가당(added sugar)의 함유량을 확인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응답자의 약 18%는 혼돈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조사 결과는 금년 초 국제식량정보협의회(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결과와 상당히 대조적임.
- 국제식량정보협의회에서 진행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5%만이 식품영양정보라벨에 표기된 당(sugar) 및 첨가당의 함유량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해당 식품의 총 당류의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식품영양정보라벨에 표기된 첨가당 함유량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특정

식음료제품이 실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될 수도 있음.

- 지난 3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식품영양정보라벨 당분 함유량 하단에 첨가당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한다고 공표하였음.
 - 그리고 지난 7월, 미국 내 5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영양정보라벨에 기입된 첨가당 정보의 어떤 점이 유익하며 또 어떤 점이 혼돈을 주는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음.
 - 조사 결과, 식품영양정보라벨에 기입된 첨가당 정보가 유익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필요한 정보이며 당분으로 인한 건강 우려가 주된 이유였고 되레 첨가당 정보로 인해 혼돈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였음.
 - 비만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인 Conscience Health의 한 관계자는 “포장식품 및 음료에 부착된 식품영양정보라벨은 많은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양성분정보라고 볼 수 있다”며 “첨가당의 과다섭취는 비만과 심장 질환 발생률을 급격하게 높이는 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해당 식품이 얼마나 많은 양의 첨가당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상의 유익함을 얻었다고 믿는 것이다”고 전함.
- 국제식량정보협의회는 1,088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금번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3가지 종류(당, 당과 첨가당, 총당과 첨가당)의 식품영양정보라벨을 보여준 뒤 그 차이점을 확인해봄.
 - 그 결과, 당만 표기된 식품영양정보라벨을 보였을 때는 응답자의 92% 이상이 해당 식품에 함유된 총당류의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했지만 총당과 첨가당이 표기된 라벨에는 66%, 당과 첨가당이 표기된 라벨에는 55%의 응답자만이 정확한 총당류의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금번 조사를 통해 국제 식량정보협의회가 확인한 사실은 많은 소비자들이 정확히 첨가당이 무엇인지, 어떤 성분이 첨가당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당과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임.
 -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포장 식품 및 음료의 식품영양정보라벨에 기입된 첨가당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익하다고 답한 소비자들조차 첨가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른 종류의 당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부족한 편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21).

□ 미국, 식품산업 법적규제 동향

- 지난해 다양한 새로운 맛에 대한 예측과 소비자 트렌드 등을 보여주며 2015년 식품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식품산업과 관련해 많은 소송들이 있었음.
 - 이처럼 다양한 식품관련소송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미 많은 소비재식품업체들은 그들의 식품라벨 마케팅 움직임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식품업계 관련 매거진 Food Business News와 시카고에 위치한 로펌인 Freeborn & Peters LLP의 식품산업분야 전문변호사 David L. TerMolen 사이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의하면, 2015년 포장식품라벨에서 가장 소송위험이 높은 강조표현을 ‘천연 재료만을 사용한(all natural)’ 으로 꼽음.
 - 단적인 예로, 세계적인 곡물회사인 Cargill의 Truvia, 유명초콜릿 회사인 Ferrero의 Nutella 등은 ‘all natural’을 사용한 강조표현과 잘못된 식품라벨표기 등으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한 전례가 있음.
 - 그러므로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은 그 대안으로는 ‘합성착향료 또는 방부제를 함유하지 않은(no artificial flavors or preservatives)’ 또는 최소한의 가공과정과 한정된 재료만을 사용했다는 의미를 강조한 ‘딸기와 사탕수수만을 사용한(made with only strawberries and cane sugar)’ 등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FDA에서 공개한 모든 메뉴에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식품라벨 규제안으로 인해 외식업체들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포장된 식품에 비해 영양소, 사이즈 등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은 외식업체들은 그 사실에 대해 매년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함.
 - 외식업체들은 반드시 효과적인 통합적 사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특정 음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그 변화를 알아차려 재검정해야만 한다고 함.
 - 예를 들어, 만약 특정 메뉴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소금이나 치즈를 사용했다면 사전에 공개했던 소금, 지방, 칼로리 등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함.

- 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에 대한 현지 변화 및 위험성은 무엇이며 각 식품제조업체들은 GMO-Free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16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버몬트 주 GMO 라벨링법(유전자변형농산물을 대상으로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대상으로 미국 식료품제조업자협회(GMA)와 몇몇 동업조합(trade association)들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금번 소송은 버몬트 주에서 시행할 예정인 GMO라벨링법과 동일한 유사한 법이 다른 주(州)까지 확장되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함.
 - 덧붙여 현재 비영리기관인 Non-GMO Project로부터 유전자 미조작 인증을 받게 된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지난해 다양한 식품관련 소송사건들은 금년 식품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식품제조업체 및 외식업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소송위기에 미리 대비하고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2.01)

3. 유럽/아프리카

□ WHO, 식품안전에 중력 예정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5년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World Health Day 2015)을 맞아 식품안전에 중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발표함.
 - WHO에 따르면, 금년 세계 보건의 날을 위해 특정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오늘날 식량 및 식품공급이 세계화되어가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들 사이에 더 체계화되고 향상된 시스템을 도입시켜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 식품안전성은 식품 생산과정, 유통 및 소비과정, 환경의 변화, 새로운 식중독균의 발생, 길항미생물저항성(antimicrobial resistance) 등의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계속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이외에도 해외 및 국내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각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는 빈도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및 각종 전염성 물질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높일 공산(公算) 또한 있기 때문임.

- WHO는 식품안전캠페인과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품매개질환 및 식중독균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추산치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 최근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 매년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며 그 중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식품 내 도사리고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화학물질들은 설사부터 암까지 약 200여 가지가 넘는 질병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WHO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공정한 식품무역 확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와 합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Code Alimentarius)을 통해 각 나라들이 식품매개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FAO와 WHO는 국제정보망을 통해 각 나라에 식품안전위기사항을 정보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 식품안전은 공유책임제(shared responsibility)라고 할 수 있음. 농업종사자에서부터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비자까지 걸쳐 함께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뜻임.
 - WHO에서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개한 안전하게 식품을 다룰 수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라, 생식(raw food)과 조리된 음식을 분리하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리하라, 안전한 온도에 음식을 보관하라, 안전한 물과 식자재를 사용하라’임.
- WHO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금년 WHO는 정부관계자, 농업종사자,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물론 모든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자부심 또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오늘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며, 금년 세계보건회의의 주제를 식품안전에 집중한다고 한만큼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21)

□ EU, 냉동 글루텐-프리(gluten-free)식품 판매 개시

- 유럽 최대 할인 매장인 까르푸(Carrefour)는 프랑스에서 유행 중인 글루텐-프리(gluten-free)식품의 인기를 이용하여 냉동 글루텐-프리 식품을 선보임.
 - 냉동 글루텐프리 식품은 현재 프랑스 파리 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라빌-뒤-부아(La Ville-du-bois)에 위치한 까르푸 매장에서만 시범판매 중임.
 - 이들 식품에는 프랑스 글루텐 알레르기 양성 반응자 협회의 AFDAG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향후 다채롭고 눈에 띄는 포장을 활용한 냉동식품 코너 내 가시성 향상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까르푸는 유기농, 비유전자재조합식품 및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미국 회사인 Amy's Kitchen과 협력하여 냉동 글루텐 프리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개월 내 더 많은 냉동 글루텐 프리 식품 유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자료: 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4.01.27)

자료 작성: 이해은 전문연구원, 박한울 연구원

E 03 세계농업 제174호 (2015. 2.)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5년 2월

발 행 2015년 2월

발행인 최세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ISSN 2288-5587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